

# 束草文化

1994/第10號

束草文化院

관광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앞장설것을 다짐합니다.

## 雪嶽觀光株式會社

케이블카



會長  
韓丙起



代表理事 社長  
崔澤琳



본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34-7365)  
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39 정남빌딩 401호 (☎ 558-3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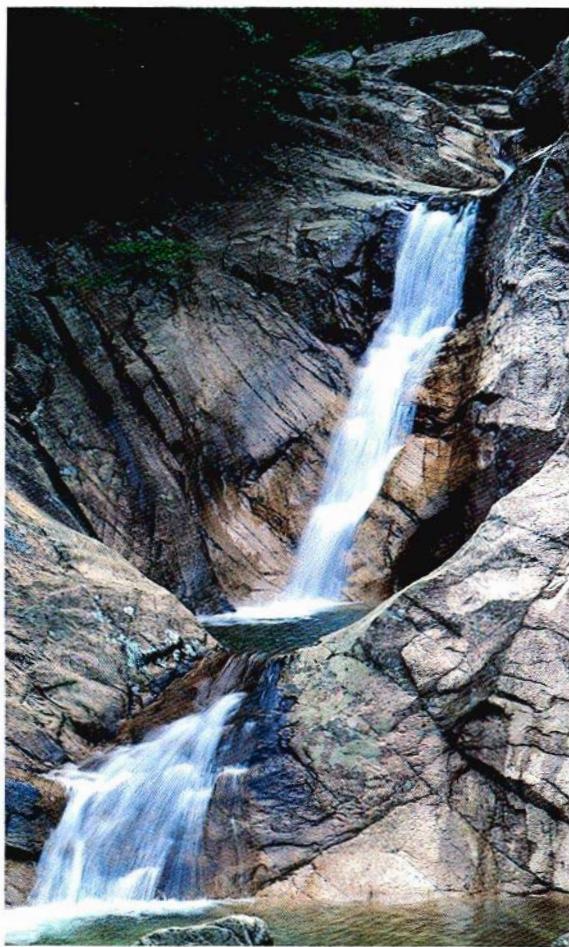


관광특구로 각광받는 속초시의 발전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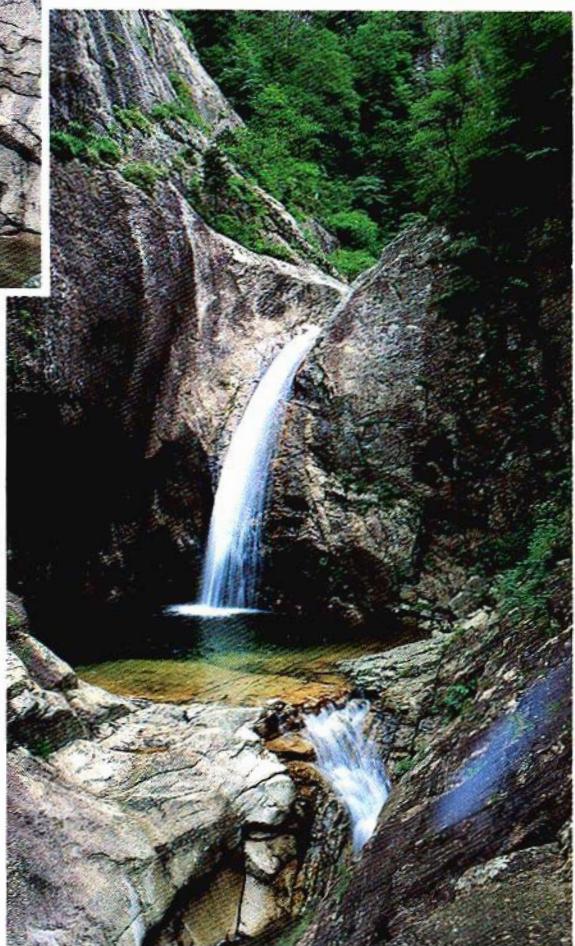
崔 洛 珉

- '82 서울 美術祭 入選
- '82 韓國 傳統 美術 公募展 銅像 受賞
- '83 韓國藝術大展銀賞 受賞
- 第16回 江原美術大展 入選
- '89 個人展
- '81~'93 東草 美協 會員展
- '93 江原道 美協招待展
- (現)東草美術協會 會員
- 住所 : 東草市 雪嶽洞 246-119
- 電話 : (0392)34-7019



▲천불동의 천당 폭포

▼천불동 최상단의 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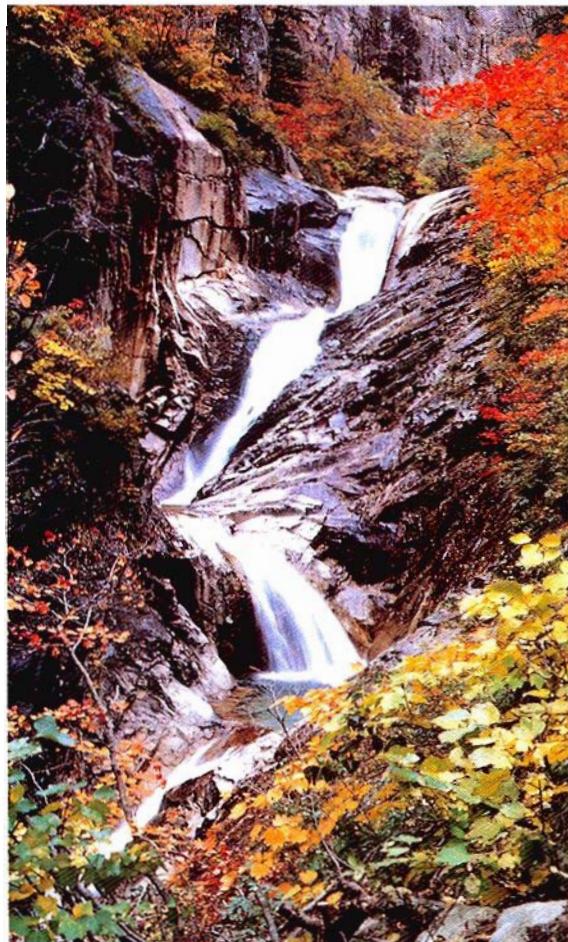




▲설악동 피곡폭포

▼외설악·천불동계곡 양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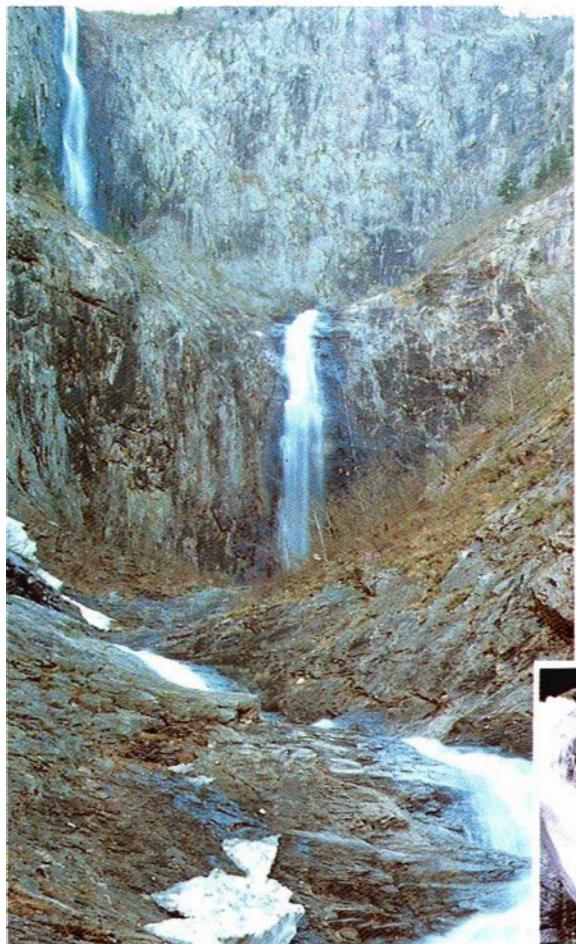




▲외설악·천불동계곡 오련폭포

▼남설악 옥녀폭포





▲외설악 토왕성폭포

▼외설악 비룡폭포





제29회 도민체전 1994.6.16~19 속초시 개최



제29회 도민체전



제29회 설악제



제29회 설악제



제29회 설악제



제29회 설악제



제29회 설악제



사진작가 崔 春 永  
<속초시청 근무>

願南北統一

鄭元澈書

桺老古木得新生  
南北連枝是至情  
半島山河依舊在  
先天日月迄今明  
治民莫若仁為政  
防敵事然義作城  
歸化人心似水下  
勿愁一線地中接

玄菴 鄭元澈 謹書

■願南北統一 해설

○무궁화 고목도 생기를 얻어

○남북으로 연결된 가지가 – 이본시 근본이다

○한반도 山河는 옛것에 의해 본래하고

○그하늘에 해와 달도 어제도 오늘도 밝혀주네

야하고

○적을 막는일 그려하여 義를 높이 지으면

○人心이 돌아가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으나

○어찌 불안한 휴전선은 國土에 한 중간을 가로 질렸구나.



玄菴 鄭 元 澈

- 韓國書畫作家協會東草支部長
- 第二回 全局書藝大展審查委員
- 成均館儒道會襄陽東草副支部長
- 東草市 繁營會理事
- 玄菴 書藝漢文學院長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  
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  
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  
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牢固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值意  
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  
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  
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  
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  
을 이루할 것을 宣言한다.

# 차례

## 東草文化

1994/第10號

■ 속표지/설악의 폭포	사진/최낙민· 1
■ 화보/설악제	사진/최춘영· 8
■ 휘호	정원철· 11
■ 문예중흥선언	· 12
■ 권두사/땀과 투혼으로 핀 향토문화	최용문· 14
■ 축간사/향토문화의 창달	정재철· 16
■ 축간사/향토문화의 파수꾼	한상철· 18
■ 축간사/지역번영과 직결되는 문화	장현영· 20
■ 권두시/그대는 떠나가고	사상철· 22
■ 제29회 설악제는 이렇게 열렸다	사무국· 23
■ 논단/사회변동과 제3의 인생	이기을· 33
■ 논단/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지역문화정책 방향	황돈태· 39
■ 특집/설악제의 현주소와 향후발전방향 모색	안준현· 47
■ 특집/청소년과 우리음악	박종성· 51
■ 특집/중국의 한국동포	동문성· 54
■ 특집/사물놀이의 허와 실	임수철· 61
■ 국립공원 설악산(10)	박익훈· 64
■ 명문교순례/속초중학교	편집부· 68
■ 명문교순례/속초여자중학교	편집부· 72
■ 명문교순례/설악중학교	편집부· 75
■ 명문교순례/설악여자중학교	편집부· 78
■ 창작시/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채재순· 82
■ 창작시/어머니의 잡	김춘만· 83
■ 창작시/새들은 꿈꾸고	지영희· 84
■ 창작시/한계령 지나며	김영미· 85
■ 창작시/그녀는 4벌식 타자기를 두들긴다	서귀옥· 86
■ 창작시/연	권정남· 87
■ 특별기고/설악권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등 대응방안	김희철· 88
■ 특별기고/속초의 아바이와 또순이	이태형· 92
■ 특별기고/그리운 내고향 종성	오윤근· 95
■ 특별기고/아름다운 삶	백운화· 100
■ 수필/나비와 형수님	김정우· 104
■ '94 속초문화원 업무소개	사무국· 107
■ 장보고 유적지를 찾아서	동문성· 114
■ 문화학교 수강생 8명 한중서예전 입선	사무국· 117
■ 예총 속초지부 업무소개	예총사무국· 121
■ 속초시 제5회 백일장 입선작품/산문	이연정외 16명· 134
■ 속초시 제5회 백일장 입선작품/시	김정대외 17명· 151
■ 속초시 제5회 백일장 입선작품/그림	윤준식외 6명· 169
■ 나의이야기/東草가 좋아서	김호응· 173
■ '94속초문화원 창립총회	사무국· 175
■ 東學思想과 教育	조태성· 176
■ 표지화/원로작가(전·예총속초지부장)	김광수· 182

## 땀과鬪魂으로 편 鄉土文化



崔龍文  
東草文化院長

온 시민들이 제작에 참여하여 향토문화의 뿌리를内外에 멀친 종합문예잡지인 「東草文化」 제10호를 발간하게 된것을 다같이 축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속초시는 오랜역사와 문화적인 향기를 지니고 있었으나 근대 도시의 기틀은 6·25전쟁으로 수복된것이 발전의 촉매역할을 했고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보는 측면이 큰것같습니다. 조선시대엔 양반들의 전제정치로 주민들은 시달렸고 일제시대엔 수탈과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눈물속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가정과 대중경제는 참상을 헤어나지 못했고 그후 광복으로 공산치하에 들어가 자유와 인권은 유린당해 문화적으로는 암흑시대를 맞은것입니다. 북한측의 남침으로 시작한 6·25전쟁으로 결사항쟁한 보람으로 東草지구가 수복되어 사장되고 파괴된 향토문화가 다시 잉태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모두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폐허의 상처 치유에 나서면서 향토문화 중흥에 나선것입니다.

자유는 회복되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붕괴, 4·19혁명, 5·16군사정권의 탄생. 5공, 6공을 거치는동안 시민들은 정의앞에 한번도 굴복한적이 없고 74년의 대화퇴어장 조난사고로 3백25명의 어민들이 숨지는 아픔을 당해도 잘살아 보겠다는 시민들의 투혼은 주춤하지 않고 더많은 땀을 흘리면서 속초건설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힘은 문화시민의 긍지와

“역경을 이겨 낼 수 있는 원천적 힘은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겨져있는 전통문화다. 그 바탕은 땀과 투혼  
이 깃든 향토문화이므로 더 정성을 들여 그빛이 세계  
속에 뻗치게 하자.”

전통문화계승 의욕이 밑바닥에 깔려있어 무서운 힘으로  
파도와 땅과 싸워 이룩한 것이 오늘의 東草市를 건설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고장 주민들은 어려운 고비마다  
좌절하지 않고 초인적인 노력으로, 땀을 흘리면서 이겨나가  
는 투혼은, 속초문화를 꽂피게하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고장 문화는 전통민속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위에  
행정체계의 복지화, 생산성 제고등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고 고급문화와 접하려는 욕망이 고차원으  
로 발상되고 있으므로 외래문화를 선별 소화하는 수준까  
지 갖추게되어 위대한 시민상을 정립했다고 느낍니다.

이는 모두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전통문화를 수  
호하겠다는 의지와 투혼으로 많은 땀을 흘리면서 성실한  
생활에 확고한 신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까지 쏟은 전통 민속문화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에너지를  
향토문화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 원심력으로 세계속에 진  
입시키는 과제가 중요하고 세계인이 모두 공감하고 향수  
(享受)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참뜻을 널리 알리는 사업이  
당면한 과제로 등장 하는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의 바탕이  
향토문화이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속초시는 세계속  
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했으므로 고난을 극복  
한 정신으로 문화유산을 더 열심히 닦고 연마하여 향토문  
화를 세계문화로 승화시키는 전기임을 강조합니다.

## 향토문화의 창달



鄭 在 哲  
國會議員

우리는 지금 國際化와 開放化 時代에 살면서 急變하는 經濟社會 與件에 걸맞는 새로운 文化를暢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時期에 東草文化院이 내고장을 지키고 發展시키려는 鄉土人們의 끊임없는 热誠과 努力を 바탕으로 東草文化誌를 꾸준히 發刊하여 오고 있는 것은 東草地域文化藝術의 發展을 위하여 뜻있는 일로서 關係者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故鄉인 東草地域은 天惠의 自然條件을 갖춘 아름다운 雪嶽山과 어느것과도 比較할 수 없는 文化遺跡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고장으로서 우리는 이고장의 悠久한 歷史와 傳統을 이어받아 鄉土愛로써 우리 文化藝術을 繼承 發展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東草地域은 지난 8月 觀光特區로 指定됨에 따라 雪嶽圈은 앞으로 國際觀光地로서 開發 育成될契機가 마련되었으며 北韓의 核問題가妥結됨으로써 앞으로 南北協力關係의 進展에 따라 雪嶽圈은 金剛山을 包含한 地域 일대를 國際觀光地로 共同開發할 기틀도 마련되었습니다.

더욱이 現在 推進되고 있는 東草地域의 國際空港建設 서울-東草間의 東西高速電鐵과 北部高速道路의 建設은 東·西를 連結하는 交通網이 擴充되고 國際水準級으로改善됨으로써 이 地域을 國際觀光地로 育成 發展시키는데 크게 寄與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東草地域은 앞으로 日本·Russia·中國

“地域文化發展을 위해 불타는 愛鄉心으로 모두 和合團結하여 내고장을 풍요롭고 잘사는 고장으로 만드는데全力을 쓸어야 할 것입니다.”

間의 交流 協力を 위한 環東海圈 經濟協力의 中心地가 되어 國際港口都市로도 發展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地域이 國際觀光地로서 또한 環東海圈 經濟交易 中心地로서의 發展은 내년의 地方自治團體長 選舉와 더불어 本格的으로 實施되는 地方化 時代에 地方의 國際化를 促進하게 되고, 다가오는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有利한 與件을 造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地域의 變化와 發展이 圓滑히 이루어지도록 불타는 愛鄉心으로 모두 和合團結하여 내고장을 豐饒롭고 잘사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全力を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 固有의 文化와 藝術이 우리 고장의 變化와 發展을 위한 精神적인 支柱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東草文化院은 우리 고장의 鄉土文化를 經濟的인 發展과 國際化에 副應하는 文化로 暢達하는데 努力해야 할 것이며 여러가지 文化藝術 活動을 通하여 우리고장 發展에 先導的인 役割을 遂行하는데 渾身의 情熱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東草地域의 發展과 우리의 未來 後孫의 幸福을 위해 온갖 努力を 다하고 계신 文化 藝術人 여러분께 真心으로 感謝의 詞句을 드리며 東草를 사랑하는 이 地域의 모든 文化藝術人은 새로운 東草, 새로운 文化를 創造한다는 自矜心을 갖고 加一層 奮發 努力해 주실것을 當付드립니다.

東草文化院의 發展과 『東草文化誌』의 永遠한 暢達을 祈願합니다.

## 향토문화의 파수꾼



한상철  
속초시장

전기의 흐름은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는 ‘옴의 법칙’은, 문화의 흐름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향토문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외래문화의 유입속도는 느려지고, 외래문화에 대한 동경이 강하면 그만큼 문화의 유입속도가 빨라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화의 흐름은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 너무 빠르면 문화의 황폐화가 초래되고, 너무 늦으면 문화의 고립화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여가(餘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여가 지대인 우리 지역의- 역할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더 군다나 환태평양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지역은 그 중심도시 역할마저 담당하여야 한다. 이는, 외래문화와의 접촉이 잣아진다는 의미이며, 향후 우리 지역의 문화양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듯 중앙이나 외국의 외래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아직 우리는 이에 대응할만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외래 퇴폐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문화적 충돌을 막기 위

“東草文化는 향토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며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중앙의 고급문화와의 교류를 시도하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해서는, 적절한 문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주민들에게는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외래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한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속초문화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문화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문화 사랑방 운동이 그것이고, 중앙의 고급문화와의 접촉을 강화해 온 것도 바로 이때문일 것이다. 속초문화원의 이런 시도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높게 평가해 왔으며, 향토문화의 파수꾼으로서의 그간 노력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

『東草文化誌』는 그동안 향토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며,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중앙의 고급문화와의 교류를 시도하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어왔다. 이번 제10호도 바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이라 확신한다.

발간을 위해 애쓴 속초문화원 관계자와 편집위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축간사에 가름한다.

## 지역번영과 직결되는 문화



장 현 영  
속초시의회의장

### ■ 약력

- 강원도 평강공립 농업학교 5년 졸업
- 대한경우회 속초·양양군지부장 역임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장
- 속초시 문화원장
- 속초시 요식조합장
- 대한무공수훈유공자회속초시지부회장
- 새마을문고속초시지부장

우리고장의 역사와 숨결을 간직한 『속초문화지』가 열번 째 발간을 맞이하여 순수한 향토지로 점차 시민의 생활속에 함께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남보다 더 향토를 소중히 여기고 애착을 갖는 지역 인사들에 의해 태동하게 되었던 향토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새롭게 변모 발전하여 왔으며, 향토사 연구와 지역의 뿌리를 찾는데 귀중한 사료로써, 시민의 정서적 지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더 한층 자긍심을 높여주는 촉매제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고장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 경관인 설악산과 바다와 호수 그리고 온천 등 내·외국인이 부러워하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빼어난 자연을 음미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활동해권시대를 대비한 국제간 교류의 거점 도시로 부각되어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접근망을 구축하기 위한 동서고속전철, 북부고속도로, 국제공항신설 그리고 국제항로 개설 등 기간 산업 유치계획과 지역개발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관광진흥에 대한 지역 주민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민족은 번영을 누려왔으므로 이런 맥락에서 속초문화는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촉매제가 될것이다.”

의 기대 또한 그 어느때 보다 부풀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더이상 우리의 소유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사랑을 받는 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문화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관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그동안 9차례에 걸친 『속초문화』발간을 통하여 시민의 가슴속에 애향심을 심어 주었듯이, 호기를 맡고 있는 지역발전에 전시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속초문화』지의 역할을 기대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문화를 꽂피웠던 민족은 영원한 번영을 향유할 수 있었으며, 문화를 보존할 줄 모르는 민족은 자멸하고 말았다는 엄연한 역사적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본향토지의 발전은 지역번영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지의 발간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전진한 정착 뿐만아니라, 우리고장의 전통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항상 시민의 사랑을 받는 향토문화지로 도약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대는 떠나가고

회색추억을 가슴에 심어온  
회청대는 세월들의 잔해가 남아  
쓰디쓴 축배라도 들어  
이밤을 예찬하는 기도로  
떠나버린 연인을 그리며  
땀에 젖었던 어제를 잊으려 한다.

오늘의 고행을 생각하여  
양털같은 시간속에 앉아  
사랑을 노래한 세월,  
언제나 꽃동산 언덕에 누워  
앞가슴을 키워온 나날들  
이제 그대는 떠나 가고  
꿈꾸는 잡초들이 자라고 있다.

사랑은 무딘 임버릇의 전설로  
바람처럼 나뭇잎을 날리고  
잊어버린 정열의 색깔로  
길섶의 허기진 그림자처럼  
병든 가슴을 여미고 있다.

험상궂은 회색의 추억이  
그 회색의 세월들과  
발바닥밑에서 5공화국까지  
사랑이며 명예와 자존심까지  
혓바닥으로 훑어야 했기에  
나는 구름의 손을 잡고  
그결에 조그만 친구되어  
그대의 바람결 옆에서  
시간을 까먹고 노래한다.



史 相 喆

## ■ 약력

- 동국대 국문학과 졸업 “전남대경영대학원”이수
- 우리문학 예술세계로 등단
- 한글문학회이사 예술시대동인, 한국문인협회 강원도 문협회원
- 강릉신문 논설위원 “칼럼리스트”
- 현 주식회사 森林대표이사
- 저서 : 제1시집 「그대 영혼을 위하여」, 제2시집 「저하늘에 흰구름은」 등 출간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1리 246(219-830)
- 전화 : 직장 : (0392)635-4420, 자택 : 31-3805

# 제29회 雪嶽祭 盛了

~ 8만 市民과 觀光客 환호 ~

설악제 위원회(위원장: 金鍾祿)가 주최하는 제29회 설악제는 10월7일 오후6시 전야제에 이어 8~9일 1천여 산악인을 비롯 8만시민의 환호속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전야제는 수복탑 광장에서 사물놀이패의 요란한 팽파리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등행렬, 불꽃놀이, 해상불꽃놀이로 축제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끈 다음 8일 오전 9시부터 화랑도를 비롯 각 동별로 전통풍습에 의한 가장행렬은 시민의 축제로서 손색없었고 산과 바다(항도)에서 펼쳐지는 축하잔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흡족하게 했다. 개회식장에 8백여명으로 구성된 시립합창단의 속초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퍼지자 식장엔 흥분과 환희가 가득했고 곧이어 속초시문화상 시상엔 박수가 진동했다.

설악제의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야제(7일)

▲설악대제(산신, 용왕, 성황등 3신 합동봉안대제) ▲산신제(권금성 강신제로 산신 영접, 산악인 무사고 기원제) ▲제등행렬(속초국교~수복탑) ▲불꽃놀이 ▲해상불꽃놀이  
(어선 20척동원)

## ◇공개행사(8일)

▲시가행진(속초국교~공설운동장) ▲개회식 ▲마스게임(속초여중) ▲한마당 잔치(각동농악대)

## ◇산악행사(1일~2일)

▲산악의 큰잔치(1일, 소공원) ▲등산행사(2일~4일)

## ◇문화행사(4일~8일)

▲풍물패 갯마당공연(4일, 문화회관) ▲꽃꽂이전(6일~8일, 문화회관전시실) ▲국악공연(6일, 국립국악원 공연, 문화회관) ▲시민노래자랑(7일, 문화회관) ▲연극공연(8일~10일, 문화회관)

## ◇민속행사(8일~9일)

▲농악경연대회 ▲씨름대회 ▲줄다리기 ▲그네 ▲널뛰기 ▲민속축구 ▲민속피구 ▲줄넘기 ▲궁도 ▲쌓가마 나르기

## ◇체육행사(7일~9일)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등.

## 『第29回 雪嶽祭 決算』

第29回 雪嶽祭는 市民의 결집력으로 地域 固有의 鄉土色을 살린 文化祭로 定着되어, 시민 일체감 조성과 애향심 고취의 본래 목적을 성공적으로 成就한 바, 雪嶽祭委員會 정관 제17조 및 23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總會에 보고합니다.

제29회 雪嶽祭 盛了

■ 行事概要

○行事期間 \_\_\_\_\_ '94.10.8(토)~10.9(일)  
※前夜祭：'94. 10. 7(금)

○行事場所 \_\_\_\_\_ 公設運動場, 文化會館 哭 補助競技場

○主 催 \_\_\_\_\_ 雪嶽祭 委員會

○後 援 \_\_\_\_\_ 各級 機關, 社會團體, 企業體, 學校 等

#### ■ 豐算 執行 事項

제29회 雪嶽祭 決算

1. 確保額	55,250,000
○ 市費 支援額	40,000,000
○ 行事 協賛金(35回)	15,250,000
※ 제29회 雪嶽祭 협찬금 기탁자 명單 —— 別添	
2. 執行額	53,071,600
○ 本部行事 運營費	35,371,600
○ 競技團體 支援金	17,700,000
3. 残額	2,178,400

### ※基金造成現況

계	166,099,701
전년도 결산 잔액	150,762,002
제29회 설악제 잔액	2,178,400
결산 이자	13,159,299

※基金豫置現況

계	166,099,701
농협 가계 금전 신탁	143,121,994
농협 보통예금	2,977,707
마을금고 정기 예탁	20,000,000

■行事種目

○總 34個 種目

- 公開 行事(11개 種目)
    - 祭禮(2) 雪嶽大祭(山神祭, 雪嶽大祭)
    - 前夜祭(3) 祭燈行列, 불꽃놀이, 海上불꽃놀이
    - 公開行事(6) 市街行進, 入場式, 開會式, 마스게임, 한마당잔치, 閉會式
  - 山岳 行事(2개 種目) : 登山大會, 산악인 큰 잔치
  - 文化 行事(6개 種目) : 사물놀이, 시민노래자랑, 演劇공연, 國樂공연, 꽃꽂이전, 갯마당공연
  - 民俗 體育行事(10 種目) : 농악경연대회, 써름, 줄다리기, 그네, 널뛰기, 민속축구, 퍼구, 줄넘기, 궁도, 쌀가마 나르기
  - 體育 行事(5개 種目) : 시범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 ■行事 種目別 成績

## 가. 綜合賞

- 綜合 優勝 \_\_\_\_\_ 교동
- 綜合 準優勝 \_\_\_\_\_ 조양동
- 綜合 3위 \_\_\_\_\_ 중앙동

## 나. 농악경연대회

- 1위 \_\_\_\_\_ 교동
- 2위 \_\_\_\_\_ 노학동
- 3위 \_\_\_\_\_ 도문동
- 奨勵賞 \_\_\_\_\_ 조양동
- 努力賞 \_\_\_\_\_ 청학동

## 다. 應援賞

- 1위 \_\_\_\_\_ 교동
- 2위 \_\_\_\_\_ 장사동
- 3위 \_\_\_\_\_ 금호동
- 奨勵賞 \_\_\_\_\_ 노학동, 동명동, 중앙동
- 努力賞 \_\_\_\_\_ 조양동, 청학동, 영랑동, 도문동, 청호동

## 라. 民俗 競技

- 출ند기 \_\_\_\_\_ 1위 장사동, 1위 영랑동, 3위 교동
- 출다리기 \_\_\_\_\_ 1위 도문동, 2위 조양동, 3위 청학동, 교동
- 그네(단체) \_\_\_\_\_ 1위 조양동, 2위 중앙동, 3위 교동
- 널뛰기 \_\_\_\_\_ 1위 영랑동, 2위 조양동, 3위 장사동
- 민속축구 \_\_\_\_\_ 1위 동명동, 2위 중앙동, 3위 설악동
- 민속피구 \_\_\_\_\_ 1위 도문동, 2위 교동, 3위 조양동
- 씨름(단체) \_\_\_\_\_ (男) 1위 교동, 2위 청호동, 3위 영랑동  
(女) 1위 중앙동, 2위 대포동, 3위 교동

## ■行事 評價

## 1. 평가 개요

- 시민 참여율 제고로 축제분위기 연출 성공
- 산악행사가 주행사 기간과 분리 실시됨에 따라 관광자원화에 실패
- 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할만한 행사 종목 부재
- 다양한 참여 계층 흡수를 위한 행사 종목 개발 절실

## 2. 各洞 제안사항 요약

- 농악경연대회 시상금 조정-시상금이 입장 동에만 편중되고, 외지농악대를 출전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의 문제점 시정 요망.

- 행사 종목 조정-체육행사 종목을 축소하고 민속경기를 확대함과 동시에, 경기 방식도 동대항을 止揚하여 과열 경쟁에서 탈피하도록 유도 요망.
- 동 대항 점수 평가제 개선-종합점수제를 폐지하고 각종 민속경기 내용을 조정하여, 동 대항 종목은 우승기 또는 시상금으로 대체 요망.
- 제례 행사의 개선-格에 맞는 행사내용 확보. 행사장 인근에 제례장소를 개설함으로써, 행사기간 중 희망 시민 모두가 제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 요망.
- 야간 행사종목 개발-직장인 등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야간축제행사 개발 절실.
- 가장행렬 방법 개선-동별 가장행렬 폐지, 민간단체별 가장행렬단 구성 요망.

### ■行事內容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주 관	장 소	행 사 내 용
계	34개 종목				
제례 (2)	설악대제	10. 7 17:30	속초시 노인회	수복기념탑	• 山神, 용왕, 성황 등 3神 합동 봉안. 대제舉行
	산신제	10. 7 14:00	설악동 노인회	소공원	• 권금성 강신제로 山神 영 접. 산악인 무사고 기원제 거행.
전야제 (3)	제등행렬	10. 7 18:00~ 19:00	교육청	속초국교 -수복탑	• 대포국교농악대, 속초국교, 중앙국교 고적대, 22사 군악대, 여학생-속초여중, 설악여중, 속초여고, 속초상고.
	불꽃놀이	10. 7 19:00	설악프라자		• 시내 : 연화 300발
	해상불꽃놀이	10. 7 19:00	수협		• 오징어 선단 집결 점등 후 항내 선회 오징어배 20척 참가.
공개행사 (6)	시가 행진	10. 8 09:00~ 10:00	대회본부	속초국교 -시청 -공설운동장	• 대포국교농악대, 중앙·속초국교 고적대, 본부임원, 각동 가장행렬단, 군악대
	입장식	10. 8 10:00	대회본부	공설운동장	• 선수단 및 가장행렬단 입장
	개회식	10. 8 10:30	대회본부	공설운동장	• 개회선언, 속초시민문화상 시상, 속초시민현장 낭독
	마스게임	10. 8 11:05	속초여중	공설운동장	• 에어로빅 시범, 설악여중생 700명
	한마당 잔치	10. 9 16:00	대회본부	공설운동장	• 각 동 농악대, 설악제 참여자 등
	폐회식	10. 9 16:40	대회본부	공설운동장	• 시상식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주 관	장 소	행 사 내 용
산악행사 (2)	산악인 큰잔치	10. 1 14:00	산악회	소공원	• 산악인 추모행사 캠프파이어 등
	등산 행사	10. 2~ 10. 4	설악산악연맹	설악산	• 권금성-화채봉-소공원 참여자 300여명
문화행사 (6)	시민노래자랑	10. 7 14:00	예총속초	문화회관	• 영북지구 주부 노래 경연
	국악공연	10. 6 18:30	문화방송	문화회관	•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 연인원 1500명 참가
	연극공연	10. 8~ 10. 10	연극협회	문화회관	• 연극 '뜨거운 바다'
	사물놀이	10. 7	속초문화원	문화회관	• 수복탑에서 사물놀이 공연
	꽃꽂이전	10. 6~ 10. 8	금연꽃꽂이회	문화회관	• 꽃꽂이 200여점 전시
	풀물페 갯마당 공연	10. 4	속초문화원	문화회관	• 갯마당사물놀이 공연
민속행사 (10)	농악경연대회	10. 8~ 9	대회본부	공설운동장	• 동 대항 농악경연
	씨름	10. 8~ 9	씨름협회	공설운동장	• 단체전, 개인전, 남녀, 초등부 및 동 대항
	줄다리기	10. 8~ 9	평통	공설운동장	• 동 대항
	그네	10. 8~ 9	여성단체협의회	공설운동장	• 동 대항 및 개인전
	널뛰기	10. 8~ 9	축협	공설운동장	• 동 대항 단체전
	민속축구	10. 8~ 9	청년회의소	공설운동장	• 동 대항
	민속피구	10. 8~ 9	농협	공설운동장	• 동 대항
	줄넘기	10. 8~ 9	신협	공설운동장	• 동 대항
	궁도	10. 8~ 9	궁도협회	설악정	• 개인전, 유단개인전
	쌀가마나르기	10. 8~ 9	마을금고연합	공설운동장	• 동 대항
체육행사 (5)	축구	10. 9	축구협회	공설운동장	• 조기축구 시범경기
	배구	10. 7~ 8	배구협회	공설운동장	• 동 대항전

제29회 雪嶽祭 盛了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주 관	장 소	행 사 내 용
체육행사 (5)	축구	10. 7~ 8	대청라이온스	공설운동장	• 동 대항전
	테니스	10. 7~ 8	테니스協	市內 테니스 장	• 단체전
	게이트볼	10. 7~ 8	금설라이온스	공설운동장	• 동 대항전

■豫算 執行 內謹

항 목	집 행 액	내 역
설악제 행사비 계	53,071,600	
본부행사운영비	35,371,600	
시상금	9,200,000	
종합상	1,800,000	종합우승 1,000,000 준우승 500,000 종합 3위 300,000
응원상	3,200,000	1위 1,000,000 2위 500,000 3위 300,000 장려상 600,000 (200,000 * 3동) 노력상 800,000 (200,000 * 4동)
농악경연상	4,200,000	1위 2,000,000 2위 1,000,000 3위 600,000 장려상 400,000 노력상 200,000
우승컵제작	510,000	
		종합 1,2,3위 330,000 시범축구우승 180,000

항 목	집 행 액	내 역
시설비, 홍보비	8,020,000	
		행사장 아취 1,000,000 피켓 및 시상대 200,000 홍보용 애드벌룬 1,140,000 행사장 애드벌룬 1,000,000 행사장 수반 60,000 청사초롱 구입 500,000 임원 리본 제작 300,000 모자 구입 1,680,000 뺏지 구입 240,000 홍보사례비 1,900,000
행사장 관리비	444,000	
		앰프 수리비 100,000 야간 경비 200,000 전기 사용료 30,000 분뇨 수거료 114,000
행사 진행비	7,400,000	
일반 행사사례비	3,100,000	고적대 사례비 600,000 제동행렬사례비 800,000 경찰 경비 200,000 경찰 선도차 100,000 사물놀이 200,000 군악대 200,000 상고 가장행렬 300,000 설악여중 마스게임 500,000 사회자 사례비 200,000
기타행사 진행비	1,200,000	아마츄어 햄 급식비 200,000 악대 피켓 차량 운송비 550,000 연화 발사 종사자 식대 100,000 연화발사종사자 진행사례비 100,000 농악 심사 사례비 250,000

제29회 雪嶽祭 盛了

항 목		집행액	내 역
	가장 행렬 의상 임대 제비용	3,100,000	
			임대료 2,000,000 수송비 900,000 말임대사례비 200,000
	급식비	4,326,500	
			행사진행 임원 식대 2,576,000 고자문화의 식대(2회) 505,000 위원회 식대 405,500 직원 식대 840,000
	행사 일반 경비	1,217,200	
			사무용품 구입비 200,000 상장 대서비 50,000 우편 발송비 150,000 수표 추심료 1,800 기타 잡비 103,000 기수단 장갑 구입 50,000 인쇄비 등 662,400
	업무 추진비	500,000	
			위원회 업무추진비 500,000
	예비비	270,000	
			응원 노력상 200,000 본부석 음료 50,000 석회 구입비 20,000
	회의비	3,483,900	
	결산총회 회의비		
			유공자 감사패 1,500,000 회의 기념품 300,000 중식 접대비 500,000 안내장 및 회의서류 인쇄비 150,000 정기총회 회의비(전년도分) 1,033,900

항 목	집 행 액	내 역
경기단체지원비	17,700,000	
산 신 제(설악동 노인회)	1,200,000	
설악대제(속초시 노인회)	1,200,000	
제등행렬(속초 교육청)	500,000	
농악놀이(각동 13)	2,600,000	동별 200,000
마스게임(설악여중)	900,000	
한마당놀이(기획감사실)	300,000	
등산 행사(설악산악연맹)	2,000,000	
시민노래자랑(예총지부)	1,700,000	
꽃꽂이 전(금연꽃예술회)	400,000	
갯마당 공연(문화원)	600,000	
씨 름(씨름협회)	4,500,000	
그 네(여성단체협의회)	500,000	
궁 도(궁도협회)	1,000,000	
축 구(축구협회)	300,000	

## 《첨부》

## ■ 기탁자 명단

(무순)

기탁자	금액	비고	기탁자	금액	비고
속 초 시	40,000,000		김 길 영	2,000,000	한 일 레 저
김 봉 해	100,000		노 광 복	100,000	
최 택 림	1,000,000		이 영 찬	50,000	
김 종 록	1,000,000		속 초 합 동	100,000	
전 석 규	50,000		김 여 수	1,000,000	
허 펠 성	50,000		춘천재청동우회	100,000	
박 학 성	50,000		고 석 순	100,000	
조 광 수	50,000		박 명 자	100,000	
김 광 수	100,000		최 종 선	800,000	
이 인 철	50,000		김 충 호	300,000	
박 영 식	50,000		농 협 속 초	500,000	
남 상 선	100,000		강 원 여 채	300,000	
현대페밀리타운	200,000		삼 진 건 설	300,000	
동 해 상 사	300,000		박 성 화	100,000	
대 명 레 저	1,000,000		속 초 교 육 청	100,000	
파 월 용 사	500,000		삼 성 건 설	1,000,000	
약 사 회	500,000		명 동 진	200,000	
의 사 회	1,000,000		권 득 수	2,000,000	야시장연합회
계	₩55,250,000				

■ 설악제위원회 위원 명단 ————— (무순)

- 고 문 : 정재철, 한병기, 최정식, 이기섭, 김정신, 김일갑, 이관희, 윤중국, 전상기, 장현영
- 자문위원 : 춘천지법속초지원장, 춘천지청속초지청장, 동우전문대학장, 속초교육장, 속초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장, 속초세무서장, 속초소방서장, 속초우체국장, 항만청 속초출장소장, 설악산관리사무소장, 속초전신전화국장, 속초의료원장, 한전속초지점장, 속초고등학교장, 속초여자고등학교장, 속초상업고등학교장, 신흥사주지, 설악프라자본부장, 한일레저개발 사장, 속초노인회장,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속초방송국장, 문화방송 속초지사장, 강원일보 속초지사장, 도민일보 속초지사장,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이기을, 김태영, 박익훈, 윤덕훈, 이호순, 정종훈, 김용현, 이승주, 백영일, 동문성, 차진환, 박성룡
- 명예위원장 : 한상철(속초시장)
- 위원장 : 김종록
- 부위원장 : 이건석, 김충호, 최용문, 조희순, 임호성, 이유수, 황돈태
- 감사 : 김연진, 박명자
- 운영위원 : 김재섭, 이정현, 윤홍, 김경만, 김정문, 권봉희, 조용남, 이철재, 김옥재, 김강수, 김민식, 박종호, 김일동, 김인석, 고성관, 김봉해, 김영복, 임덕수, 고명환, 최무일, 변경일, 권덕명, 오윤근, 최이권, 김운천, 이인철, 김명자
- 집행위원 : 최준집, 서문종, 김광남, 김희평, 오재환, 권득수, 이무, 한기학, 장규호, 최호영, 곽만복, 임주현, 지인환, 김만영, 김명동, 김명호, 이창열, 윤창열, 김계원, 배태랑, 조경식, 이종욱, 허웅복, 최양일, 서용주, 윤상섭
- 위원 : 노광복, 이영선, 박두성, 김동식, 장창록, 김택송, 고석준, 백영철, 길태주, 김택성, 최택림, 김철한, 정효석, 김철섭, 김연택, 변동만, 김주용, 황수복, 명동진, 박상복, 임창기, 김명수, 정태갑, 서재홍, 이정국, 함영태, 조광수, 김우찬, 박종삼, 박학성, 이광춘, 김운식, 김형락, 이현규, 이원익, 김여수, 최영석, 박경구, 김공수, 윤중호, 김형동, 정재환, 박상호, 남상선, 염주천, 고학재, 이춘복, 김규열, 이동화, 한영옥, 박성화, 최경순, 장관영, 백성호, 오세하, 김명열, 허필성, 전석규, 김광수, 최종열, 양오규, 안경민, 이석기, 김현달, 정석순, 박복길, 김춘웅, 박동진, 하성해, 전상희, 황세영, 이원식, 황원석, 서형원, 박영식, 강원은행지점장, 국민은행지점장, 상업은행지점장, 농협지점장, 한일은행지점장, 조흥은행지점장, 주택은행지점장, 담배인삼공사속초지점장, 속초축협장, 속초농협장, 속초수협장, 설악파크호텔대표

## □논 단□

# 社會變動과 제3의 인생

李 氣 乙

- 경영학박사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동우전문대학 명예교수

### ■차 례

1. 農業社會와 제1의 인생
2. 公業사회와 經濟建設
3. 第三의 人生
4. 情報化社會
5. ISDN의 효과
6. 맷는 말

오늘 날 우리 經濟는 공업사회로부터 情報化社會로 변동하는 틈 바구니에 끼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價值觀이 혼들려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나, 특히 老年層의 경우 적응이 어려워 여러 가지 社會問題를 제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 1. 農業社會와 제1의 인생

저는 人間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는 습관이 있다.

第一의 인생은 1923년에 함경남도 北青에서 태어나, 보통학교 高等普通學校 전문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의 성장 教育期間이다. 이 시기는 전형적인 농업사회이었다.

저의 제1의 인생은 유난히도 길어, 1952년에 延世大學校 경제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30년 간이었다. 그간 일본 제국 주의에 항거한 獨立運動으로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도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 學兵으로 끌려나가 2년간 일본군대에서 죽을 고생을 많이 하였다. 1945년의 광복 후에는 이북의 고향을 등지고 越南하여 서울에서 6·25동란도 겪었다. 이리하여 저의 제1의 인생은 저의 또래의 경우와 같이 受難의 30년이었다.

### 2. 公業사회와 經濟建設

第二의 人生은 대학을 졸업하고 1952년에 韓國銀行 조사부에 입행해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祖國建設의 역군으로서 직접 활동한 開花期이다. 30세의 나이에 첫 職場을 얻었으니,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화려한 출발이었다. 한국은행 調査部는 우리나라 경제의 재정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에리트(elite)의 產室이다. 이곳은 당시 우리나라 유일의 經濟研究機關으로서, 온 종일 자유스럽게 독서와 조사·연구만 해도, 높은 月給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은행원 생활과 동시에, 大學院의 학구생활도 겸할 수 있었다. 얼마나 多幸한 일이었던가, 회상된다.

大學院을 졸업하고 32세에, 저는 延世大學校 상경대학의 전임강사로서 大學教授 생활(그후 1959년에는 미국의 Washington University 경영대학원을 졸업)을 시작했다. 그 당시(1954년) 우리나라는 1인당GNP가 72달러(dollar), 즉 60,000원 정도로서 매우 가난한 後進國이었다. 여기서 GNP란 國民總生產(gross national products)의 약자이며, 한 나라의 국민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산한 財貨와 용역을 市場價格으로 총 집계한 것이다. 이것을 그 나라의 總人口로서 나눈 것이 1인당GNP이며, 국민의 生活水準을 측정하는 指標로서 사용된다.

그러던 것이 오늘 날(1993년) 1인당GNP가 7,466달러(100배)의 中進國으로 발전했으니, 그간 제2의 인생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발전과 變革이 있었다<sup>1)</sup>. 그것은 종래의 농업사회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工業社會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발전단계(Colin G. Clark)에 있어서 產業構造 즉 산업의 구성상태를 크게 제1차산업·제2차산업·제3차산업으로 나누어 본다. 第一次產業은 원시산업이라고도 하며, 농업·임업·수산업·목축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第二次產業은 공업·광업·건설업·전기 및 가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第三次產業은 이

들 이외의 상업·금융·통신·운수·公務 등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1930년의 통계에 의하면 韓民族의 82%가 農業 등 제1차산업에 종사했고, 工業 등의 제2차산업에는 2%, 그 남아지 16%가 商業 및 교통업 등 제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36년의 產業構造를 보더라도 제1차산업이 50%, 제2차산업이 31% 그리고 제3차산업이 19%이었다. 즉 農業社會의 전형이었다.

1944년의 산업구조는 37:37:26이던 것이, 해방 전의 南北間 산업구조의 차이(이북은 鐵山 및 전력자원과 重化學工業 중심이고, 남한은 農業과 경공업에 치중)로 말미암아, 광복 후 1950년대의 再建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는 제1차산업과 제2차산업이 35%와 19%임에 대하여 제3차산업은 46%이다. 이리하여 1960년 이전에는 國民所得 특히 1인당 GNP가 100달러 이하의 後進國이었으며, 1962년에는 87달러, 1963년에야 비로서 1인당GNP가 100달러에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1962년부터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추진됨으로써, 經濟가 부흥하여 제1차산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동시에, 제2차산업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산업구조는 점차 개선되어, 1973년에는 25:26으로 역전됨으로써, 종래의 농업사회는 工業社會로 변화를 보였다.

그후 農林水산업의 比重이 감소하는 반면, 鐵工業은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그뿐 아니라 1인당GNP도 1969년에는 210달러로서 後進國이라는 명예를 벗고 開發途上國이 되었고, 1977년에는 1,028달러에 이름으로써, 新興工業國의 대우를 국제적으로 받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產業革命으로 공업사회에 돌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工業社會는 경제발전단계에 있어서 제2차산업, 즉 제조업·광업·건설업·전기 및 가스업 등이 그 사회의 主軸을 이루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제1차산업에서 제2차산업으로

1) 韓國銀行, 한은정보, 1994-9. p.69.

中心이 옮겨감에 따라 1인당 生產水準이 높아지므로, 공업사회는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은 中進國이나 선진국에서 볼 수 있다.

工業化가 추진됨에 따라 精油工場, 시멘트 공장, 비료공장, 조선공장, 電氣機器工場, 전자공장, 철강공장, 철도, 고속도로, 식품공장 등이 연달라 건설되었다. 이리하여 우리의 所得은 급격히 증가되고, 국민의 생활이 혁명적으로 바뀌어, 이제 웬만하면 自家用車도 물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農業革命이 시작된 것이 기원 전 300년의 三韓時代부터 임으로, 우리나라의 產業革命은 2,300년(BC 300+AD 1973) 래의 大變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社會變動에는 많은 갈등과 쓰라린 진통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더욱이 1986년에는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가 52%에 달함으로써, 화이트칼러(white collar)와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數가 역사 상 처음으로 블루칼러(blue collar)의 숫자를 넘어섰다. 이것은 새로운 變化에의 조짐이며, 많은 컴퓨터(computer)의 도입, 제트飛行機, 관광붐, 피임약의 보급, 이밖에 많은 충격적인 변혁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저는 연세대학교 35년간에 經營學 교수로서, 이러한 혁명적인 變化에 잘 적응하여 살아 남았다. 즉 經營學原論, 경영관리론, 企業金融論, 재무관리론, 은행경영론, 韓國의 經營學 등을 열파 성의를 다하여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써 14권의 著書와 180편의 論文을 발표하였다. 그뿐 아니라 1男 3女를 출생하여 슬기롭게 교육시키고 전부 結婚시켰다.

### 3. 第三의 人生

1989년 3월 1일은 제3의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것은 역사적 現實이며, 피할 레야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3의 인생은 저의 人生行路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남은

餘生을 유유자적하게 즐기는 새로운 出發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생활의 근거이었던 職業이 연세대학교 교수로부터 명예교수의 年金生活者로 바뀌었고, 집도 서울에서 東草로 이사하여, 새로운 出發을 속초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떤 어른은 停年退職하고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한 채, 絶望에 사로잡히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정든 學校를 떠나 一般社會에 첫발을 디디는 것에 강한不安을 느꼈기 때문이다.

칠순 또래는 과거 5·60년 간의 큰 變革에서도, 끄떡 없이 우리나라의 經濟建設을 성공시킨 快傑들이다. 지금의 變化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칠순이 지난 또래께서 만의 하나 失意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社會와 후배들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不當行爲라고 나는 규정한다. 이것이 제3의 人生에 대한 저의 결론이다.

이러한 涡中에서 우리는 工業社會를 맞이한지 불과 30년도 않되어, 새로운 變革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즉 產業構造에 있어서 제1차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어 1993년에는 8%이고, 이 감소된 부분이 제3차산업에 부가되어 64%에 이름으로서 情報化社會가 시작될 조짐을 보인다. 더욱이 1993년의 통계에 의하면 1인당 GNP가 7,466달러(38위), 商品輸出이 822억달러이고, 經濟規模가 3,287억 달러로서 세계 12위권의 經濟力を 갖이게 되었다. 즉 우리의 國家經濟力은 양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12위에 올라 있으나, 1인당 GNP는 지지부진하여 세계 38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의 경제정책이나 社會政策이 경제의 양보다 質을, 그리고 生活의 양보다 생활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4. 情報化社會

어쨌던 정보화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상품

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사회, 즉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이용이 生活化되는 사회를 말한다. 포랫(Marc U. Porat)은 전체 労動力を 농업, 공업, 서비스업, 정보업의 네 부문으로 나누었다.<sup>2)</sup> 그리고 情報部門과 공업부문의 노동력이 같아지는 시점을 정보화사회에 진입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美國은 1956년에, 日本은 1971년에 정보화사회로 집인한 조짐이 보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時期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工業化를 위한 산업주의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고, 갑작이 情報化社會가 오는 것은 아니다. 工業社會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서서히 제3의 물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고도의 工業技術을 지닌 나라는, 낡은 구조의 경제를 비롯한 各制度와 제3의 물결과의 사이에 생기는 충돌을 눈 앞에 두고, 너나 없이 動搖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文民政府의 新경제5個年計劃에 의거하면, 1996년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GNP가 10,716달러로서 先進國의 20,000달러 線에 접근하게 됨으로, 1996년에는 선진국들로 구성된 經濟協力開發機構(Organization for Economic Corpo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는 商品輸出이 1,363억달러로 1993년의 1.7배로 증가하고, 經濟規模는 6,480억달러에 이르므로서 2.0배의 증대를 보일 것이다.<sup>3)</sup> 이 경우 產業構造는 제1차산업이 5%, 제2차산업이 27%, 제3차산업이 68%로 변화함으로써 情報化社會에 접근해 간다. 이리하여 1인당GNP가 1998년에 14,076달러이던 것이 2,002년에는 20,000달러를 넘어 섭으로써, 명실 공히 先進國의 대열에 끼이게 되

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美國이 1980년대에 情報化社會에 돌입(미국 노동인구의 50%가 정보산업에 종사)하고, 10년 뒤인 1990년대에 日本이 정보화사회에 드러섰다면, 우리 韓國은 2,000년대에 情報化社會에 돌입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美國 유럽 日本 등 선진 각국은, 情報高速通信網 건설에 엄청난 資金과 努力を 기울이고 있다. 즉 美國정부는 앞으로 10년간(2,000년까지), 고성능 컴퓨터와 통신망 건설에 170억달러(민간기업은 5,000억달러)를 투입하여 미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情報高速道路(Information Super Highway)로 엮어놓을 계획이다. 日本정부 역시 新社會資本建設計劃을 세웠는데, 2010년까지 45兆円을 들여 전국적인 光通信網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20년 계획으로 전국을 超高速情報通信시스템(Information Super Highway)으로 엮어 나가기 위하여, 2015년까지 448,000億원(공공투자 2조8천억원+민간투자 42조원)을 투입한다. 이 計劃에 따르면 초고속정보통신망은 ①공공기관 연구소 대학企業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主導그룹을 위한 超高速國家情報通信網, ②전국의 모든 家庭에 光케이블을 깔아 국민 모두가 첨단정보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超高速公衆情報通信網, ③이들을 위한 技術開發의 세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에는

제1단계(1994~97년)	16,000억원
제2단계(1998~2002년)	44,000억원
제3단계(2003~2015년)	388,000억원
448,000억원	

이리하여 총 44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綜合情報通信網(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컴퓨터技術의 발전과 光케이블이다. 光케이블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光纖維 한 가닥에 6,000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電送能力을

2) Porat, Marc U., The Information Economy(part 2). 1981. p.7~3.

3) 大韓商工會議所, 新경제5個年計劃('93~'97), 1993. p.182.

가지고 있다. 음성뿐만 아니라, 映像 문자 등 모든 정보가 光케이블에 의하면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 電話回線을 이용하여 팩시밀리(facsimile) 1페이지분을 전송하는데 30초가 걸리지만, ISDN 전설이 완료되면 電送 개시와 동시에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情報化社會가 도래하면 機器와 사용자 사이에서 對話가 가능한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펼쳐진다. 여기서 멀티미디어(multi-media)는 綜合謀體를 뜻하며, 종래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TV, 오디오(전축),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사무기기 등이 하나로 합쳐지고 通信網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각종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기구를 말한다. 예컨대 移動通信은 현재 音聲電話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data) 문자 畫像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送受信할 수 있게 된다. 端末機 가격의 하락과 小型化 경량화로 어린이들도 책가방 속에 휴대電話를 넣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 5. ISDN의 효과

멀티미디어情報를 초고속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면, 사람과 문서의 물리적 이동에 따르는 時間 손실과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즉 行政의 정보화로 民願이 신속히 처리될뿐 아니라,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행정민원). 더욱이 전국적인 行政電算網을 이용해 주민등록, 여권발급, 각종 民願書類 등을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로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전자민원서비스).

交通戰爭을 치르면서 職場에 출근하지 않고서도, 집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 앞에서 執務할 수 있는 在宅勤務가 가능해진다. 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支社를 본사의 大型스크린에 소집하여 情報를 교환함으로써 映像會議를 진행한다. 이들은 컴퓨터와 光通信 高화

질TV 등이 결합하여 연출될 未來像이다.

더욱이 老弱者는 서울의 綜合病院에 가지 않아도, 이곳 자기 집에서 病을 고칠 수 있게 된다. 즉 遠隔의료는 서울에 있는 醫師가 컴퓨터를 통하여 속초에 있는 患者를 진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골의 환자를 로봇(robot)을 통하여 手術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같은 原理는 원격교육, 홈쇼핑, 전자新聞, 전자圖書館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百貨店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멀티미디어 畫面을 통하여 상품을 선택 주문하는 홈쇼핑(home-shopping)이 보편화되는 것이다.

한편 첨단화된 工場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自動化된 기계를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知能型컴퓨터이다. 사람은 이 컴퓨터만 살피면 된다. 鐵山에서는 글착로봇이 캠내에서 작업을 하고, 建設現場에서는 노무자를 대신하여 로봇이 작업을 수행한다. 이리하여 企業에서 일하는 인력은, 대부분이 經營陣과 연구개발팀이다.

집에는 가정부를 대신하는 家家用로봇이 있어, 빨래 청소 요리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집안 일은 모두 로봇이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멀티미디어가 발달하면, 기업활동이나 個人的 생활양식에 일대 變革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즉 제3의 물결은 產業情報화에 의하여 經濟의 기반을 흔들뿐만 아니라, 家庭情報화에 의하여 우리의 家族關係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國家情報화에 의하여 政治體制를 마비시킨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인간의 價值觀과 그 체계가 기준을 잃고 右往左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工業社會의 화려한 경험을 겨우 30년간 맞보고, 이제 情報化社會라는 檀君 아래 4,300년(BC 2333+AD 2000) 만에 콩복기에 비유할 수 있는 大變革을 맞이하고 있다.

情報化社會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물론 그 사회의主人公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격적인 變革期에 우연

히도 運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물결은 그 밑바닥부터 혁명적인 것 이므로, 내가 지금까지 의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모든 假說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짧었을 때의 생각, 종래의 공식이나 도그마(dogma), 낡은 이데오로기(ideology)는 과거에 아무리 유효하고 존경받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노인인 우리의 현실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테크놀로지(technology), 새로운 환경관계,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방식 등의 부딪침 속에서 급속히 그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idea), 새로운 類推, 새로운 분류,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칠순 또래는 내일의 새로운 사태를 과거의 因習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여태까지 傳統으로 삼아왔던 태도나 풍조도 또한 통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과 격동 變化에의 갈등은, 이미 쇠약해지고 있는 工業社會의 물결과 그것에 대처하려는 情報化社會의 새로운 물결이 서로 부딪침으로써 이러나는 相剋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新舊 두 사회의 틈 바구니에서 지금까지의 產業 중심의 社會體制와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情報化社會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혼란과 갈등을極小化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6. 맷는 말

그러면 이러한 社會變動에 대처하여 제3의 人生을 지혜롭게 사는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자기의 人生目標를 다시 정립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諸方策을 강구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서 닥쳐오는 激浪을 타고 넘으면

서, 자기 中心을 세워 굳세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나는 제3의 인생목표로서 幸福의 추구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目標이기 때문에 이것을 否定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幸福이란 心身, 즉 몸과 마음의 요구가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心身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環境에 슬기롭게 적응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째의 과제는 마음(心)가짐의 문제이다. 나는 늘 肯定的인 태도로서 凡事에 감사하고 自己滿足함으로써, 독서와 執筆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變化에 슬기롭게 適應하자, 그리고 自己滿足하자는 것이 나의 첫째 行動規範이다.

둘째로 몸(身)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老衰는 원래 괴로운 것이다. 이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은 탐욕과 몸의 不便에 있다. 따라서 나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하여 우선 쓸데없는 過食을 억제하고, 老化를 방지하기 위한 運動을 계속하고 있다. 小食하자, 그리고 萬步를 걷자는 것이 나의 둘째 행동 규범이다.

나는 老衰를 방지하기 위하여 月 水 金에 골프(golf)를 3시간 정도 즐긴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설악산이나 永郎湖를 컨디션(condition)에 따라 2시간(徒步+속보) 정도 걷는다. 나는 이들의 행동규범을 自信을 가지고 喜喜樂樂하게 실천함으로써 健康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拳鬪選手가 참피온(champion)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自己와 싸우는 것과 같다. 우리 또래는 人生目標와 행동규범을 직히는 自己와의 싸움에 있어서, 最善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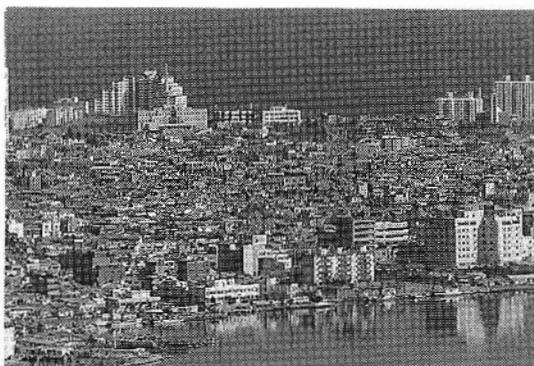
황돈태  
속초시 부시장

### 1. 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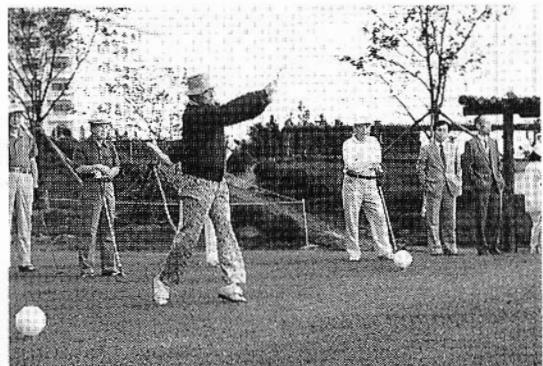
속초시를 비롯한 영북지역은 94년 9월1일 교통부 고시 제1994-53호에 의거 '설악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속초시 전역과 고성군의 토성면, 양양군의 강현면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관광특구라 함은,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일컫는 것이다. 차후 정부 차원의 관광홍보 지원을 비롯, 관광개발에 있어 우선적인 국고지원이 기대되므로,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로써 속초시는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부상(浮上)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셈이다.

관광특구 지정은 이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를 변화시킬 결정적 계기이긴 하나, 이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자세가 좀 더 공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칫하면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회지 자본가들에게 모두 빼앗긴 채, 지역주민들은 사회적 봉괴와 문화적 황폐화만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이 고용기회 증대나 소득향상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실이나, 현지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광 수입의 대부분은 호텔이나 대규모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반면, 관광서비스에 종사하는 운전사 웨이터 청소년등 현지인들에게는 이익이 그다지 돌아 가지 않는다.



◆ 속초시 전역이 '94년 9월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부상될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



◆ 소득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여가 문화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또 소음과 쓰레기 등의 관광 공해는 말할 것도 없고, 밀수 마약 윤락 등 범죄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빚어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 오히려 관광소득을 상쇄하는 경우마저 있다. 순박했던 마을의 젊은이 중 일부는 장사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걸음을 배워 소비성향에 젖어들고 도회지 술집의 짜릿한 분위기에 빠져들어 목돈을 날리기도 한다. 이런 폐해가 관광특구 지정과 더불어 가시적인 현실로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의 도래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 지역을 관광식민지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특구 지정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파괴에 대비하는 대대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경제적 대응책은 다른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이 稿에서는 문화적 대응전략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같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 2. 속초시의 문화환경 변화 요인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시간은 짧아지게 된다. 1일 8시간 근무가 6시간으로 줄고, 일주일에 엿새 근무하면 직장이 주5일 근무제로 전환되며, 나아가 안식년

제라는 개념도 도입되어 일정 기간 근무한 자에게 몇개월씩의 장기휴가를 주는 일도 점차 일상화될 것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국민들의 문화양태는 상당한 변화를 맞을 것이다.

즉 '1일 6시간 근무제'하에서는,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을 오락이나 스포츠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 시간을 이용해 외식이나 쇼핑을 하게 되고, 음악이나 영화감상을 즐기며, 게임이나 도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관광행락이 일반화된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도회지 휴양객들이 전국의 휴양도시들로 몰려갈 것이므로, 전국토(全國土)가 주중(週中) 도시와, 주말(週末) 도시로 이분화 될 것이다. 이미 연휴나 관광철의 우리 지역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주말도시에 콘도미니엄이나 별장 등 가족용 휴양시설을 별도로 확보해 두는 일도 보편화된다. 한결음 더나아가 '안식년제'가 도입되면,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사회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받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장시간이 소요되는 여가행위를 위하여 휴양도시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다.

속초시는 이러한 국민 여가 경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관광휴양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적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우리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차세대에서의 위상 변화이다. 속초시는 동해안의 중심항구이며, 따라서 장차 통일한국시대에는 그 쓰임새가 더욱 긴요해질 수밖에 없다. 북방교역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것임은 자명하다. 현재도 우리 속초와 러시아를 잇는 카페리항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두만강 하구의 러시아 항구도시인 포시에트항과 항로가 개설되면, 중국 길림성의 연길시나 훈춘시와의 교역이 가능해진다. 이들 도시는 백두산과 인접해 있어 이 카페리를 이용해 백두산 관광이나 훈춘시를 방문할 수도 있게 된다. 또 이들 도시와 본격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면, 서울 등 내륙지방과 근거리 육로를 확보해 각종 화물들을 실어나르게 되므로, 국제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탓에, 통일한국시대가 열리거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 가장 먼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금강산과 설악산의 공동개발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시급석으로 우리 지역이 활용될 것이다. 우리 지역은 38이북으로 이른바 수복지구이며, 주민 구성원 중 상당수가 이북출신이어서 이러한 북한과의 교류시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 제주도와의 항



◆관광특구 지정과 더불어 각종 퇴폐문화의 유입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로 개설 등으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관광객들을 직접 유도할 수도 있게 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니, 제도나 시설면에서 다소의 손질이 가해지면, 외국관광객의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북한과의 교류,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역, 외국관광객 증가 등으로, 외국의 문물과 여과없는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한 문화적 보완장치가 뒤따라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외국과의 교류가 잦아지니 독특한 향토문화를 보존 전승해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 3.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 가. 문화환경 개선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향토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중흥정책을 수립하도록 강요한다. 수세적인 측면에서는 퇴폐문화의 유입 방지, 공세적인 측면에서는 향토문화의 관광 상품화 방안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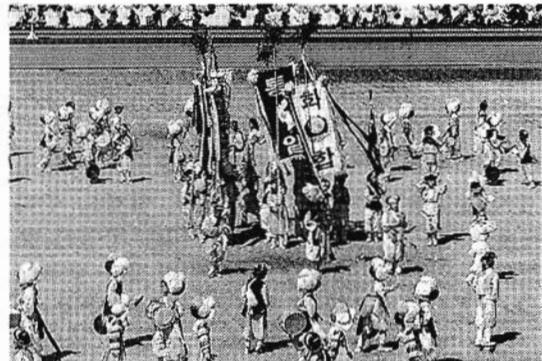
여가 욕구의 증대로 대도시 주민들이 수시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휴양차 체류하게 됨에 따라 대도시 퇴폐문화의 유입이 예상된다. 이들은 일상(日常)을 떠나 여가를 즐기려 왔으므로 당연히 우리 지역 전체를 휴양지로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이곳에서의 체류 그 자체가 유희(遊戲)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오락성이 강한 퇴폐문화가 유입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관



◆관광객과 주민 사이에 일정한 공간적 거리를 설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관광객들의 행동 반경이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

광특구 지정과 더불어, 카지노 등 도박업종이 크게 성행할 것으로 보여지며, 온천밀집 지역에는 터키탕 안마시술소 등 고급 윤락기가 형성되어 성적(性的) 도덕성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도회지 휴양객들의 유희 형태를 우리의 일상과 단순 비교한 나머지, 그런 생활을 맹목적으로 동경하는 가치전도(價值顛倒)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지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퇴폐문화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 혹은 지역주민과의 격리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가 잣아지니, 독특한 향토문화를 보존 전승해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은 자연환경에 의지한 단순관광 상품에만 매달려 왔기에, 인문 관광요소들을 대거 개발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따라 설악단풍축제 등 향토축제의 활성화나 유적 답사코스 개발 등 토속적 볼거리 제공, 해양 박물관 설치 또는 고급 예술이나 격조 있는 스포츠의 유치 등 각종 인문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제공하고, 외래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연계는 필연적인 것이다. 문화의 산업화를 위하여 예술활동의 축제를 꾀해야 한다.

#### 나. 속초지역 문화정책의 방향

관광산업으로 성공한 나라로는 지중해상의 섬 '몰타'를 꼽을 수 있다. 그 성공의 원인으로, 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 관광객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들이 외국인들과 어울려 사는데 익숙해 있는데다, 정부가 관광산업을 확고히 장악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유럽의 민속박물관이나 방콕의 장미정원, 하와이의 폴리네시아센터 등과 같은 주민 고유 문화를 무대화하는 것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이는 관광객과 주민 사이에 일정한 공간적 거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관광객들도 행동의 반경이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교육 등과 같이 규모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나 문화복지에 주력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도 이러한 예에서 문화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양태를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정부라도, 문화적인 수혜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3류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다.

앞에서 밝혔듯이 속초지역의 경우, 관광특구로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 문화



◆인문관광 자원을 확대하여 '문화관광지'로의 특성을 확보해야 한다.

를 산업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아울러 외래퇴폐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 세대의 관광행태에 대비한 계층별 연령별 성향별 대응으로 '관광수입 증대'와 '문화충돌현상'의 극소화가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가치관 상실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문화복지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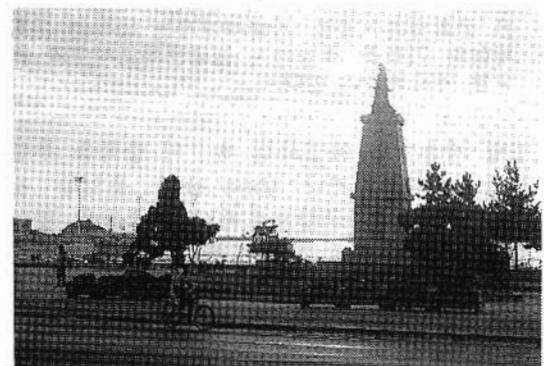
#### 4. 문화적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 가. 문화의 산업화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작가 화가 무용수의 숫자는 80% 증가하여, 같은 기간 모든 직업분야의 성장을보다 3배나 빠른 증가를 보였다 한다. 우리나라의 차세대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문화적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예술분야가 170억달러 규모의 산업인데,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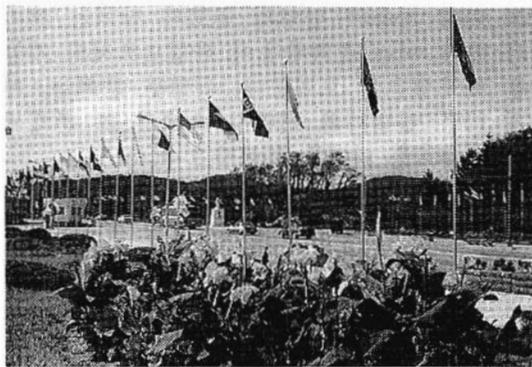
그 나라 자동차 산업의 규모와 맞먹는 것이라 한다. 이는 문화활동이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문화는, 이제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연계는 필연적인 것이며, 문화산업의 파급효과로 관광산업의 중흥을 꾀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문화회관과 수복기념탑, 영랑호와 영금정, 노학동 척산 온천지 일대 등을 문화의 거리화 하여, 지역주민의 정서를 돋고 중앙문화화의 교류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향토축제를 특색있게 꾸미고 이를 이벤트화하는 등 대대적인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 향토축제란 무릇,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場)을 열어줌으로써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생활을 잠시 떠나 삶에 활력과 리듬을 주고 심리적인 유대감과 사회적 단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향토축제인 설악제는 그러한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악제가 향토축제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사종목의 조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향에 대비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축제에도 참여하고 관광도 하고 놀이도 즐기면서 음식도 먹어야 하는 복합적인 만족(滿足)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간파, 이에 걸맞는 행사종목들을 개발하며, 연령별



◆문화를 관광산업화 하여, 지역민에게는 수준높은 문화접촉기회를, 관광객에게는 독특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문화도시로의 면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성별 계층별로 차별화된 욕구의 충족을 부합시키고, 최고이거나 (best one) 유일한 것 (only one)을 추구함으로써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 문화행사와 아울러 음식축제와 놀이축제를 병행하고, 계층별 성별 가족별 놀이마당을 별도로 만들며, 행사 장소도 공설운동장에서 벗어나 좀더 축제적인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발굴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차량 이동권을 감안하여 인근 도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지역적인 특색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설악산의 단풍축제로 기획되었으면,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별명붙은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민들에게는 향토에 대한 자긍심을 강하게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술활동의 축제화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실향민들로 구성된 도시임을 감안하여 ‘이북 5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상설로 실시하거나, 수산도시임을 감안하여 동해안 별신굿 전과정을 몇일몇날씩 해안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북5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장차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동질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지역특산품 개발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수산관련 민속개발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밖

에 전국단위의 특정 예술종목을 유치하여 축제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극예술을 예로 든다면, 어린이 연극제, 청소년 연극제, 강원 연극제, 대한민국 연극제 등을 주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악산이 대표적인 수학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낮에는 명소를 구경하고 밤에는 청소년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 관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 지역을 청소년 수련 활동의 성지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예술활동 축제화는 지역적 특성도 살리고, 지역민에게는 향토애를,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나. 문화관광지로의 정착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온천장을 찾는 관광객과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은 그 질(質)이 다르다. 온천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순수한 위락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이른바 러브호텔과 도박장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은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조용히 사색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기회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의 관광정책은 문화관광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박물관을 설립하거나, 인근 고성 양양 지역과 연계한 문화유적 코스 개발이 추진될 만 하다. 양양지역은 선사문화의 보고(寶庫)로서 이미 선사박물관의 설립 당위성이 입증되었고, 고성지역은 비무장 지대 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어 차세대의 각광받는 관광지로 부상할 것임에 분명하다.

양양의 오산리, 가평리, 포월리 유적 등은 초기신석기 시대의 것이며, 속초의 조양동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것이다. 이를 유물들로 인해 한민족의 이동경로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성립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다. 그뿐 아니라, 양양의 낙산사 진전사 선림원이나 속초의 신홍사 고성의 전봉사 등은 지난날 우리 지역이 문화적으로 변방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예이다. 이런 것

들을 패키지화해 역사적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속초에 해양박물관을 전립하는 문제는 이런 시각에서 아주 시급하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인문관광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선사박물관과 더불어 해양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고기잡이의 역사적 변천과정이나 선박의 변천 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게 하고, 어요(漁謠)의 발굴이나 어촌 민속의 진열, 동해안 어종의 수집, 바닷속 전경의 모형도 제작 등으로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문자원과 더불어, 고성의 비무장 생태계 관광지는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되거나, 혹은 통일한국시대에 이르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산이나, 바다, 호수, 온천, 스키장, 골프장 등의 명소와 연계되어, 그야말로 전천후 관광지로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학동 척산리 인근을 사회체육과 문화예술의 거리로 육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과의 문화 교류의 장으로 삼을 수 있다. 현재 이 일대는 종합운동장이 들어서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 전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 일대는 또한, 온천장과 고급 콘도미니엄 등이 밀집해 있으며, 순두부 토종닭 등 먹거리 탐방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거기에도 설악동과 시내, 미시령과 고성군으로의 진입이 모두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인근에 적절한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두거나 중앙예술단체의 초청 공연을 상설화한다면 외래퇴폐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고급문화를 선별 유입하는 것이 용이해 질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최근 우리 지역에 노년층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분석해보면, 최근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에, 중앙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원로들이 대거 정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경제력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말년을 휴양도시인 우리 지역에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정착한 이들이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든 아니든 이곳이 실버타운(silver town)

화 될 것임을 예고하는 현상이다. 물론 이런 비생산적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지역사회로서는 별로 반길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퇴폐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는 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들로 인해, 중앙의 고급문화가 유입되고 천박스러운 퇴폐문화가 잠시 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문화적 소양을 갖춘 도회지 노년층의 유입으로 인해, 고급스런 중앙문화의 전파와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추진되어야 한다.

여하간 이러한 문화정책의 추진으로 우리 지역을, 단순 위락관광지에서 품격있는 문화관광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정책

궁극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지역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그 납세자에 대한 봉사를 확대한다.

앞서 말했지만, 1일 6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주민들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애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체계적인 문화사업들을 기획해야 한다.

우선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대폭 강화가 적극된다. 각종 취미나 교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 우리 지역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기본적인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에서도 의욕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또 YMCA를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충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교육사업의 활성화는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지방문화행정의 첫번째 과제로서, 그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술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예술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고양시켜야 한다.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예술과 미술 등의 전시 예술이 적극 장려되고, 주민들과 외지 휴양객

들이 공동으로 감상할 수 있는 수준높은 예술활동이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중앙 예술단의 공연이 주기적으로 초청되고, 앞서 지적한 대로 지속적인 예술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의 주장대로 예술단체를 시립(市立)화 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시립 예술단체는 그 속성상 전문성과 자율성을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데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상쇄시켜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늘려 이들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가령 이들이 제작한 공연 입장권을 대량 매입해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층에 배포한다든지, 또는 이들이 매출한 입장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모색될 만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적 근성도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도 추구하며, 타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도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문화도시의 품격 유지에 결실하다. 속초의 경우,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수복기념탑 놀이공원까지 이어지는 현직행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기본축으로 하여, 문화회관에서 영랑호변 도로, 문화회관에서 도서관까지의 도로, 수복기념탑에서 속초등대까지의 도로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디 예술작품을 감상한 이후, 인근의 가벼운 찻집이나 술집에서 그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계기가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실제로 서울의 대학로 주변에는 이같은 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버스 터미널이 교통으로 이전되면, 이 일대를 이런 방식으로 유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색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영랑호변 보광사 뒷산을 야외공연장으로 꾸밀 수도 있으며, 방송국과 도서관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등대 및 영금정과 보광사 일대의 영랑호를 연결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교묘히 접합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도시 전체를 품격있고 짜임새 있게 꾸밀 수 있고, 주민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 5. 結言

관광특구 지정으로 우리 지역은 이제 관광도시로의 미래를 확인받게 되었다. 물론 이에 따른 여러 문화적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 기회를 좀더 진취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지역을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가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중앙의 고급문화나 외국의 새로운 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문화수도(首都)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적 소양이 높은 일단의 휴양객들이 우리 지역을 즐겨 찾고, 그런 휴양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품격있는 문화상품을 제공하며, 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줄 수 있다면,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문화를 관광상품화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풍부하고 수준높은 문화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들에게는 격조있고 독특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문화도시의 면모를 유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주민 문화복지와 위한 시설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하고, 강한 향토애의 유발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문화적 무장을 강화하여 외래퇴폐문화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며, 북한과의 문화교류가 추진될 경우 장차 민족동질성 회복의 중심도시 역할에 대비하고, 문화의 산업화로 인문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걸맞는 관광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은, 문화적 토양이 비옥할 때에만 주민들에게 그 실익(實益)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추후 지역문화행정의 기본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 \* 참고 또는 인용 문헌 \*

1. 전경수, 1994, 관광과 문화, 일신사
2. 황창규, 1993, 문화행사의 마케팅과 홍보, 문예진흥원
3. 임연철, 자치시대 문화행정을 위한 제언, 지방행정 '94. 10월호
4. 김용래, 지방문화행사의 경영수익화 방안, 지방행정 '94. 10월호

## 설악제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

올해로 스물아홉번을 치룬 설악제가 제법 제모습을 찾고 있다.

지난 66년 10월 예총속초지부가 설악산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속초를 국제적 관광지로 가꿔나가기 위해 예술인들이 앞장서 홍보성 축제를 벌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어느덧 30년 가까이 됐다. 그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뿌리내리기에 안간힘을 써온 설악제는 강릉 단오제 영월 단종제등과 함께 지역 향토문화 축제로 성숙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설악제는 8만 속초시민들의 정서며 문화다.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생활문화를 집약 포출해 재연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부심과 우월성이 여지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엔 가도 그곳의 전통문화 축제가 있다. 며칠 몇 날밤을 온통 축제에 묻혀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에겐 축제 그 자체가 곧 문화요 생활이다. 먹고 마시고 춤추며 이웃간의 화목을 다지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마음껏 즐기며 사랑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문화에 갖는 애착과 자존심은 대단하다.

스물아홉번의 설악제를 치루며 우리도 비로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 마련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한다.

비록 양양읍 속초리로 시작된 속초문화는 그 전통의 뿌리가 양양에 속해 있다고 혹자는 말 할 수 있겠으나 속초가 활동해권의 핵심 도시로 또 국제적 관광도시로 부상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속초의 특성만을 살린 전통축제가 29회를 맞았다는 것은 대단한 자긍심이 아닐 수 없다.

이젠 깊게 뿌리내린 설악제가 명실상부한 축제로 무성한 꽃을 피울 수 있게 더욱 다행하고 가꿔나가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설악제를 돌아보고 향후 설악제를 조명해 보는 것도 한닢 아름다운 꽃을 피게하는 밀거름이라 생각한다.

### 설악제의 변천사

66년 10월 1일과 2일, 이를간 설악동에서 도비 10만 원과 약간의 찬조금으로 예총 속초지부가 주관한 첫 설악제는 크게 설악산등산대회와 예술제로 대별된다. 시민들의 축제라기 보다는 예술인과 산악인들의 축제라 할 수 있었다. 주요 행사는 설악산 사진공모전, 설악산 사진촬영대회, 미술실기대회, 미협 회원전, 취주악 경연대회, 음악 및 무용의 밤, 동시백일장, 영화상영, 등산대회 뿐이었다.

산신제와 풍어제 횟불시가행진등 전통문화



## 안 준 현

- 현 : 강원도민일보 속초지사장겸 취재부 국장
- 경력 : 강원일보 문화부차장, 문화부 차장, 문화부 출판부장, 문화부 속초취재부장, 기자협회 도지부장 역임.

와 시민참가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2회때부터. 현재 설악제의 골격을 잡은 셈인데 이때는 북청 사자놀음이 시연되고 축구 씨름등 10종목의 체육경기가 치뤄져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3회때에는 당시 박경원도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저명한 문화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을 초청, 무명·용사·위령제를 지내고 마동령 등산대회를 열어 산악왕을 선발하는등 본격적으로 설악산알리기 행사를 벌였다.

속초시가 설악제 행사에 적극 개입한 것은 4회. 때문에 문화예술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대대적인 산악행사가 주축을 이뤘다. 이때 예술인들의 불만이 표출돼 5회때에는 전야제 종합예술제 시민등산대회 국민학교대항 체육대회를 세분해 개최했고, 6회때에는 신흥사가 참여 보살계 대법회 부도제 봉행등 전통문화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7회때 정부에서 예산문제를 들어 축제 자체를 없애도록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등산대회만 치루는 시련을 겪었으며 8회때 일부 행사가 부활되긴 했으나 예산지원을 받던 문화예술행사는 전면 중단되는 안타까움을 맛봐야만 했다.

현재 어민들이 참여하는 오징어채낚기선단 해상불꽃놀이와 같은 어민행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0회때. 이때 치뤄진 행사는 용왕제

전마선 2km 경주 명태낚시 미끼제기대회 오징어활복대회등 어민생활을 그대로 축제에 도입, 시선을 끌었었다. 이때부터 풍어대회라해 어민 위주의 행사가 매년 종목을 넓혀 치뤄진 반면 예술인들의 참여는 점점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또 14회때는 정부의 소비절약운동과 자연훼손방지 지침으로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불운을 맞았으며 어수선한 정국속에서 15회때 가까스로 등산대회만 부활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여 정부의 지방문화체육성책이 수립됨에 따라 각 시·군마다 문화제를 열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주민화합을 꾀하도록 한것이 81년 16회때부터. 이때는 5백만원의 특별예산을 지원받아 산신제·망향제·풍어제·등산대회 낚시대회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치뤘다. 현 설악제의 완성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때부터 정부의 적극지원 아래 각 시·군마다 문화제를 개최, 명실상부한 시민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러나 시민축제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 쪽으로 행사의 가닥이 잡혀나가며 해를 거듭하자 설악제의 취지가 다소 희석되기 시작해 체육행사와 민속놀이가 주류를 이뤄 현재에 이르게 돼 설악산 행사와 예술인들의 행사는 들러리가 되고 말은 느낌을 주고 있다. 그 예로

는 전통을 자랑하는 산악왕 선발이 89년 24회때부터 없어졌으며,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연극협회속초지부의 연극공연이 고작이다.

또한 24회때 처음 실시한 단풍아가씨 선발 대회도 26회때에는 슬그머니 없어져 행사를 이끄는 주관자 개인의 뜻이 너무 깊게 반영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 설악제에서 드러난 문제점

올 설악제의 총 행사 종목은 24개 종목. 지난해 28회때보다 4개종목이 줄어들긴 했으나 영랑호의 전설을 재현한 신라 화랑도 행진, 농악놀이 경진대회등은 새로운 민속문화 발굴 계승차원에서 주목을 받을 만 했다. 전체적으로 시민 참여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고 행사 내용도 다양하게 짜여졌다는데 평이다. 그러나 29회를 치룬 완숙한 청년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지금까지의 설악제가 그러했고 올해도 반복돼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민속 문화 예술을 총 망라한 지역 시민 축제라기 보다는 특색없는 체육행사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설악제 행사의 주 종목으로 부각 시킬만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자성론도 매년 대두되고 있다.

또한 행사 대부분이 경연종목으로 구성돼 있어 축제분위기 보다는 과다한 경쟁만을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선수들의 자격 시비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설악산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관광지의 명분을 살릴만한 행사도 없을뿐 아니라 관광객들에 속초의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부재도 매년 단골 메뉴처럼 들먹이고 있다.

설악제의 정신적 지주인 설악대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

며, 제례의 규모도 초라해 8만 시민 축제의 서막으로 보기엔 미흡하다. 30종이 넘는 각종 행사도 매년 단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특색이 없다. 저녁 무렵 가족을 동반한 많은 시민들이 찾는 야시장이나 풍물시장도 외지 잡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입맛을 가시게 한다는 지적과 홍미유발요인이 강릉 단오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부실하다는게 전반적인 여론이다. 축제는 축제답게 홍청거림이 있어야 하는데 올 설악제 야시장은 규모도 초라하고 재밋거리가 전혀 없었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올 설악제에는 각 동별로 행사지원금 1천만원씩 1억3천만원을 풀었다고 한다. 설악제 위원회에 지원한 4천만원까지 합치면 1억7천만원이 시금고에서 나갔다. 여기에 시민 찬조금 1천5백여만원을 더하면 2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비용이 이번 축제에 투입됐다. 물론 8만시민들의 대축제에 든 비용치고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다. 문제는 투입된 행사비용 만큼 행사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는데 있다. 각 동별로 출품한 가장행렬을 보면 재미있고, 뭔가는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지난해 그리고 그 지난해에 봤던 그것. 출품하라는 지시가 있으니 대충 어물 뚉땅넘어 가자는 식으로 밖에는 볼 수 없을 만큼 졸작이 대부분이다.

문득 TV에서본 미국 LA교민들이 한국의 날 행사에서 벌이는 가장행렬과 우리의 가장행렬이 비교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모두가 한번 깊히 생각해 봐야겠다.

### 설악제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설악제는 속초문화의 총체적 모습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먼저 속초문화 형성의 특이성을 살펴봐야 한다.

속초문화 형성을 대충 구분해 보면 과거의 농경사회와 근래의 어업사회, 미래의 관광사회로의 전환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여기에 실향민들의 독특한 문화가 가미돼 있다. 또

설악산이란 관광자원으로 인해 전국의 복합적인 생활문화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더욱이 속초는 동서고속전철 서울간 고속도로 건설, 신 국제공항 및 속초~춘천간 항로개설등 활동해 시대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속초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설악제는 속초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민속행사와 산악 어항 관광 문화예술 파트로 크게 나뉘 구상해 봄직하다.

민속행사중 설악제 산신제 용왕제등은 설악제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고증을 거쳐 규모를 확대하고, 마을 단위의 민속놀이 발굴에 노력해야겠다. 을 설악제에 처음 등장한 영랑호 전설을 바탕으로 한 화랑도의 행진은 기발한 창상이었으나 의상만 갖추고 시가행진을 하는 것으로 끝나 아쉬움을 줬다. 즉 흥미를 유발시키는 액션이 없었다는 말이다. 첫 시작인 만큼 보완 연출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함경도 실향민들이 갖고 내려온 북청사자놀이는 설악제 초기에는 시연됐으나 최근 수년간 맥이 끊겨 있다. 기능보유자에 의한 전수가 이뤄져야겠다. 영랑호와 청초호에 얹힌 전설, 농업과 어업에서 우리 조상들이 행하던 민속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실향민들이 갖고 내려온 민속도 속초 것으로 만드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속초에 뿌리내린 많은 실향 2세들에 그들의 문화를 간직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민속을 발굴, 시연하는 자체가 곧 축제다.

제1회 설악제의 취지는 설악산 홍보에 있었다. 그만큼 속초에서의 설악산은 의미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반면 설악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악행사는 점점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올해 치룬 산악행사는 환경보호활동 등반대회가 고작이었다. 첫회부터 시작, 겪변기에도 치루었던 등산대회의 산

악왕 선발은 곧 설악제의 전통이라 할 수 있으나 웬지 맥이 끊히고 말았다.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산악행사가 소공원을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 2회로 단명한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도 부활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산악행사가 다채롭게 치뤄질때 설악산의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짐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불거리와 흥미는 유발하는 전통민속축제와 산악행사 외에 반드시 병행돼야 할것이 문화예술이다. 당초 설악제를 이끌었던 문화예술인들이 요즘와서 설악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매번 연극협회와 연예협회에서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나 각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예술행사가 치뤄져야 한다. 문화예술은 바로 시민들의 정서이자 생활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음악회 미술전시회 무용발표회 사진전시회등 각 협회별 행사가 활기있게 펼쳐질때 설악제가 공히 시민축제로써의 완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악제를 계기로 속초문화를 조명해 보는 학술회등의 개최도 시도해 봄직하다.

축제에는 반드시 홍청거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마당인데 풍물시장 야시장 서커스단 유치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은 잘만 계획 운영되면 설악제 경비조달에도 한몫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방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단시일내에 이뤄지지는 못한다. 때문에 설악제를 위한 연구및 운영단 구성이 필요하다. 설악제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연구운영분과를 구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때 만이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시비 지원금과 시민 찬조금에만 의존하는 비용을 자체조달 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색돼야 할 것이다.

## 청소년과 우리음악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경향에 대해서 '이문열식의 시대 구분'을 빌리자면 1960년대는 것 가락 장단에 막걸리와 트로트, 그리고 전통민요의 문화이고, 1970년대는 통키타 반주와 백주문화라고 한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누구나 제홍에 겨워 부르기 보다는 정형화된 박자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80, 90년대는 어떠한가. 1980년대는 가라오케문화의 유입으로 돈을 주고 노래를 하는 새로운 양상이 생겨났고, 1990년대의 노래방문화의 성행은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듯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노래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어느 자리에서건 홍에 겨우면 어깨춤을 추곤 하던 우리 조상들의 멋이 사라지고 디스코장이나 노래방 또는 락까페에 가서야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풍속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즉 춤과 노래가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자리했던 것이 생활과 유리되고,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음악과 놀이문화도 협소화되어 갔으며, 더구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커졌다.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여유가 없고 견조해진 이들의 정서를 대변해 주듯 1990년대의 대중

음악은 반복되는 가사와 빠른 템포에 기계음향이 강하게 배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멜로디의 부재가 음악의 약점이 될 수는 없으며, 이런 종류의 음악에서 기성세대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독특한 맛과 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과거 정 많던 우리 조상들에게서 불려지던 전통음악이 산업사회의 음악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에게 외면당하고 우리만의 한국적인 정서가 사라질까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놀이문화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도외시되는 점이 염려스러운 게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 조상들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 보기로 한다. 사실 우리 조상들의 그 엄청난 예술의 분야를 운운하기엔 본인에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을 토대로 얘기하고자 한다.

본인은 평소 우리의 전통가락과 민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풍물을 배우고자 모인 '교사 풍물隊'에 참여하여 배우면서 우리 가락을 '가까이 접하게 되었다. 아직 풍물에 대해 아는 바는 적지만 미미한 대로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점점 친숙해질수록 끌리게하는 흡인력이 있다.



## 박 종 성

- 1967년 영월에서 출생
- 1990년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업
- 현재 속초여고 교사로 재직

복이나 장고소리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어깨춤이 절로나고 엉덩이를 들썩이게 되었으니 흥이 저절로 난다. 그 ‘흥’ 풍물은 바로 흥그 자체이다. 꼭 장단이 잘 맞아서 보다는 조금씩 틀리더라도 내 흥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즐길 수 있으면 만족스런 것이 풍물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부뚜막을 장고 삼아 부지깽이를 두드리며 아리랑을 불렀으며 그런 과정에서 한을 풀어가며 살았다. 궁핍하고 고단한 생활속에서도 한바탕 흐드러지게 소리하고, 장단을 메기노라면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저절로 후렴구가 훌려 나왔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소리와 가락은 삶의 일부였고, 순박한 놀이였다. 나뭇꾼은 지팡이로 지게를 두드렸고, 상두꾼은 상여를 메고 무덤 흙을 다쳤으며, 모내기때에도 한번씩 예겨주는 소리에 못줄은 잘도 넘어갔으니 노래와 가락은 노동의 힘을 덜어주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우리의 민요 중에 노동요가 특히 많은 점은 그것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어느 시대의 음악이나 그러하듯 우리의 전통음악에는 우리 조상의 숨결과 정서, 생활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본인은 영화 「서편제」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우리의 소리를 배우고 싶어 열병을 앓았던 ‘서편제 증후군’에 시달린 사람들 중의 하나다. 유봉이 송화의 손목을 이끌고 폐가로 가면서 부르던 사철가도, 눈먼 송화와 동호의 해후가 소리와 장단으로 어우러져 서로 보듬고 가는 모습도 눈물겨운 감동과 오랜 감명을 주었다. 우리 소리와 가락의 아름다움과 깊은 멋의 극치를 보여주는 영화였다. 한편 우리 소리의 맛은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한다. 진도아리랑도 농부가도 또는 다른 많은 소리들도 이렇게 받는 소리에 그 묘미가 있다. 즉석에서 흥을 돋우고 그 자리에 맞게 소리를 하고 가락을 맞추는 판소리는 또 얼마나 매력적인가.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은 고수가 소리꾼의 감정을 알아 장단을 풀고 맷고, 밀어주는 주고 받기식 음악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은 떡 하나라도 나누어 먹고, 힘든 일을 같이 하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잘 반영해 준다.

그러나 소리를 터득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본인은 어렵잖이 느낀 적이 있다. 상청(높은 음)을 지르는 것, 떠는 소리, 꺽는 소리 따위를 조금이라도 흥내내려면 부단한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소리는

가까이 할수록 무한한 깊이와 독특한 맛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번 후련하게 상청(높은 음)을 지르고 나면 그 개운함과 상쾌함 때문에 소리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아름답고 재미있는 가사, 만상을 묘사하는 익살스런 기법은 우리 소리에 대한 흐드러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언제인가 외국의 팝가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하던 중 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 어느 논설위원에 의하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풀어줄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한데서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본인도 이에 동감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본다. 랩음악에 빠지나, 우리 가락에 빠지나 빠지고 몰두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전자의 경우는 반복적이고 빠른 템포와 기계음향의 박제된 소리에서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 반면, 우리 가락은 아무리 빠져도 아름답고, 그 법도가 뛰어나며 생활속의 음악이여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식으로 발현되지 않는 은근한 매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르다.

음악도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다. 암이 모자라면 눈이 좁고 편향되기 쉽다. 옛날 것과 우리 것을 캐캐묵은 낡은 것으로 몰아가는 것도 우리의 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얼마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도록 하고 있는가. 전통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의문을 던져보자. 우리의 음악교육은 거의 부재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또는 교외활동을 통해서도 전통가락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은가. 물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외국의 팝이나 랩풍의 대중가요를 편식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취향의 변화라 볼 수도 있고, 한 세대의 독특한 문화 형성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악을 너무 모르고, 그런 이유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언하건대) 우리 사회가

우리 것을 접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서양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우리가락과 소리가 생활에서 분리된 까닭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이 부분에서 우선 급한대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진 어른들과 교사들의 의욕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실제로 본교에서는 특별활동 부서중에 전통문화반이 편성되어 전통가락과 소리, 그리고 탈춤등을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 학기초부서 편성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또 학교 예술제에서의 풍물공연은 선생님들과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과 호평을 받았다.(조사한 결과임.)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 그리고 접해 보고 싶은 열망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입시교육의 벽에 가리어 여유가 없으며,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접할 기회가 없어 멀게만 느끼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멀지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편으로 현대 음악과 전통의 우리음악을 접목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분명 음악은 어느 것이나 아름답고 우리의 정서를 순화해주므로 음악에 대한 편견이나 고집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그런 점에서 판소리의 장단을 오케스트라에 맞춘다든가, 대중가요를 우리악기로 반주한다든가, 재즈와 풍물의 만남을 시도해 보는 것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만남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조상의 숨결과 정서가 아직 살아있다. 우리사회가 그들에게 우리음악과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우리 조상들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지고, 청소년들의 정서도 함양될 수 있다.

# 中國의 韓國同胞

필자는 지난 8월16일~25일까지 中國을 방문한바 있다. 그중 중국 東北三省에 살고있는 韓國同胞의 실태를 알아보고 느낀대로 적어 보려고 한다.

## 1. 머릿말

중국은 대단히 큰 나라이다. 國土의 넓이는 9백60만km<sup>2</sup>이고 인구는 12억이다. 그러나 중국도 구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의 땅 넓이 2천2백40만km<sup>2</sup>에는 펼칠할 수가 없었고 캐나다의 국토면적 9백92만km<sup>2</sup>에 비하면 32만km<sup>2</sup>과 작은 실정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것 같지만 실제로 과학적 수치로 따지면 중국의 국토의 면적은 지금의 세계에선 3위가 된다. 중국은 국토가 넓은 만큼 行政區域도 台灣省을 포함하여 24個省으로 분류돼 있다.

北京·天津·上海는 중앙정부의 直轄市격으로 독립돼 있고, 21個省과 티베트, 신강위구르, 內蒙古자치구등으로 분류돼 각 省과 自治區들에서는 中央및 省·區의 共產黨의 지도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省·區의 自治政府가 自律權을 행사하고 있다. 自治州의 경우도 自律權은 인정받고 있지만 自治區共產黨委員會의 書記는 반드시 中國人(漢族)으로 補任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실례는 延邊韓族自治州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중국은 黃海에 연한 해안지대가 대체로 평야지대이고 이같은 자연지리적 조건은 東北三省까지 이어 지며 가장 인구가 조밀한 지역은 해안 최남단의 廣東省에서 북으로 福建, 浙江, 江蘇, 江西, 安徽, 山東, 河北, 遼寧, 吉林, 黑龍江省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취락의 조밀지역은 대체로 河北省까지 이어 東北3省부터는 인구조밀지역을 벗어나게 된다.

해안지대에서 서·서북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록 고원 및 산악지대가 나타나며, 사막이 연결돼 인간의 취락형성에 어려운 조건을 주어 해안지방에 비교하면 사람들이 밀집해 살지 않는 곳으로 돼있다. 지금 중국은開放政策의 여파로 貧富의 格差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으며, 天堂과 地獄이 공존하는 사회현실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중국땅이 마치 평야지대와 산악과 사막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 같은 不均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2. 中國內 韓民族의 歷史

中國內 韓民族의 歷史를 살펴보려면 우리나라 移民史를 考察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 董文星

- 東草中, 東草高卒業(3回)
- 中央大法大行政學科 同大學校社會開發大學院 地域社會開發學科 卒業
- 朝鮮日報社社會部記者 역임.
- 江原道民防衛教育素養講師 역임.
- 民主平統諮詢委員(5,6期)
- 大韓民國在鄉軍人會安保專門委員
- 現) 東草市在鄉軍人會長

의 近代移民史는 두가지 類型으로 나눌수가 있다. 그 하나는 未知의 世界로 나가 힘껏 노력하여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外勢의 收奪과 迫害에 못이겨 고향산천을 등질 수 밖에 없었던 비참한 移民史였다는 것이다.

1860년에서 시작돼 1945년까지 계속된 이 민의 역사는 하와이와 南美移民을 제외하곤 모두 日帝의 收奪에 의한 이민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1910년 韓·日合併 이후 國內에서는 政治的 彈壓과 經濟的 動機가 부합, 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매년 2만명에 가까운 韓人們이 두만강을 넘어 間島와 沿海州 지방으로 들어갔다.

1910년~1945년까지 韩人이 滿洲로 이주한 추계를 보면 1백16만1천1백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8·15해방과 더불어 韓半島로 귀국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중국땅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 중국내 韩民族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중국에는 현재 56개 小數民族이 살아가고 있는데 韩民族은 1백80여만명으로 중국내에서 5위에 이르고 있다.

특히 韩民族은 結集力과 協同心이 강하고自治能力을 인정받아 중국공산당이 49년 중국대륙에 통일정부를 수립한 이후 제일 처음 延邊韓族自治州로 자치를 인정 받았던 것이다. 지금 중국에는 티베트, 신강위그르, 내몽고, 回族自治區등 엄청나게 규모가 큰 자치구가 있지만 이들 자치구는 韩族自治州에 비하면 훨씬 뒤에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 3. 韩族自治州와 同胞의 實態

중국내에서 다수의 韩民族이 분포대 살고 있는 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한 吉林省과 遼寧省 및 黑龍江省이다. 초기 이민은 두만강과 압록강에 연한 지역이였으나 1935~1945년에 이르는 후기의 기간에는 만주에 온 이민들은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지역에는 밭을 뜯을수가 없어 북쪽인 黑龍江省으로 올라가 정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최초로 韩人们이 밭을 뜯었던 곳이고 州都인 延吉市를 중심으로 韩民族들 많이 살고 있다. 조선족자치주는 東北3省 중 가운데 위치한 吉林省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길림성은 전체의 면적이 29만km<sup>2</sup>이고 인구는 약2천5백만명으로 省都는 長春(옛地名은 新京)이다. 장춘시는 자동차공장과 기관차공장이 있는 東北地方의 유수한 공업도시이다.

조선족자치주는 白頭山天地에서 북쪽으로敦化를 거쳐 牧園江 상류지역을 구비돌아 安圖縣을 포함 振春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圈域으로 하고 있다. 조선족자치주는 延吉, 龍井, 和龍, 圖們, 玳春, 敦化市와 安圖, 汪清縣 등 6개市와 2個縣으로 구성돼 북한의 豆滿江과 인접돼 있는 지역이다.

조선족자치주는 면적이 4만2천7백km<sup>2</sup>로서 南韓의 절반에 가까운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내의 인구는 2백만명으로 그중 韓民族이 80여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니 中國政府도 韩民族에게 자치권을 부여할 만한 곳이다. 연길시는 인구 30만명중 韩民族이 55% 이상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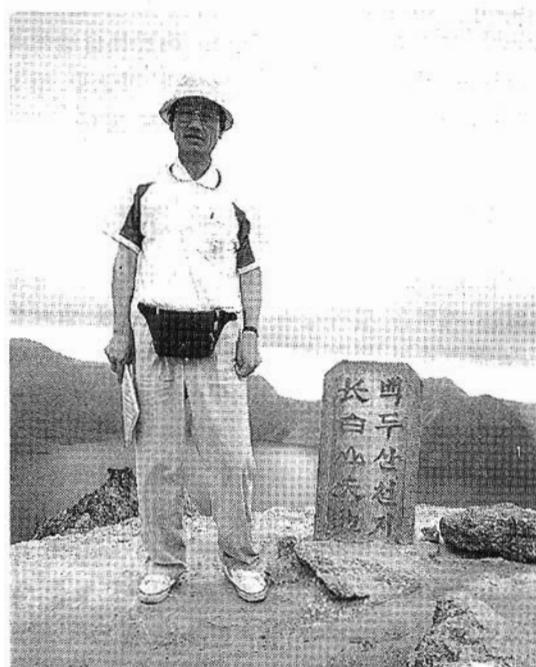
◆ 백두산 가는길에 길옆에 형성된 우리동포들이 살고있는 마을. 초가지붕은 우리의 옛날을 연상케 한다.

용정시도 30만명중 62%가 韩民族이고 훈춘시는 25만명중 조선족이 45%(한족 45%, 만주족 9%, 기타 1%)가 된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조선족자치주내에서 韩民族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선 그 인민정부의 長은 韩民族이 하게끔 하는것을 개방정책 이후 관례화 시키고 있다.

또 자치주에는 49년에 건립한 연변대학등 4개대학과 초·중·고교등 4백74개학교가 열려 있어 우리민족 특유의 향학열을 엿보이게 하고 있다. 우리의 先覺者들이 日帝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르켜야 한다」는 애국의 일념에서 일제하에서 설립했던 光明·大成등 7개의 사립중학교는 龍井중학교로 통합개편돼 있었고 그史料들은 교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었다.

上海에서 항공편으로 長春을 거쳐 白頭山에 등정하는 사람들은 장춘에서 圖們행 特快列車를 이용하게 되는데 9시간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을 달린다. 만주벌판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조선족 자치주에 들어오게되면 플랫홈의 案內版에 한글과 漢文이 함께 쓰여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안내 방송도 우리말이 먼저이고 다음이 중국말이다.

특쾌열차(우리의 특별열차)는 모두 14량으로 편성돼 있는데 1량에는 32인용 침대가 갖



◆ 중국땅 백두산 정상에선 필자. 뒤에 보이는 천지수면과 산봉우리는 북한이다.

추어져 있고 객차중의 8량의 軟臥車는 모두가 한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용하다 싶이 있다고 韓民族 출신 열차승무원季양은 설명해주었다.

6백70km의 열차의 주행구간이 끝날쯤 되면서 나지막한 산들과 구릉이 시야에 들어온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 이삭과 드넓은 벌판에 무르익은 오곡백과는 우리농촌의 모습과 진배 없었다. 얼마전만해도 우리의 농촌에서 볼 수 있었던 초가집과 기와집들 그리고 여유있게 풀을 뜯는 황소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있는 곳에 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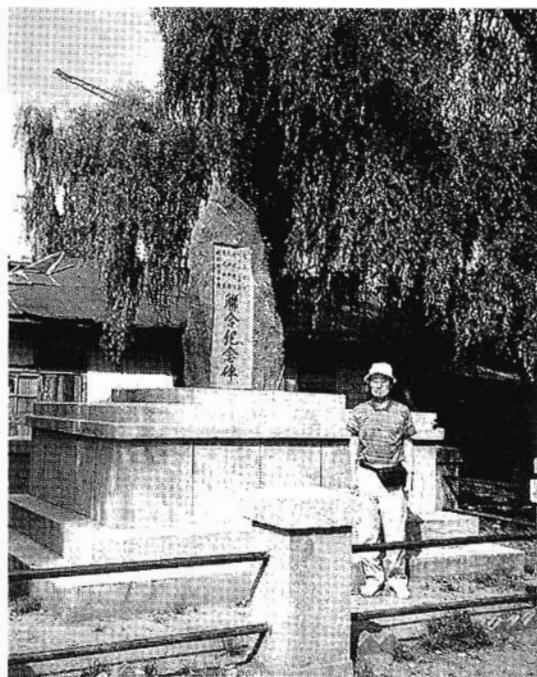
열차가 연길역에 들어오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0년전에 퇴역한 증기기관차 몇대가 수증기를 내뿜으며 입환작업을 돋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만했다. 증기기관차는 나에게는 어릴적에 고향의 모습을 보는것과 같았기 때문이였다. 짐을 챙겨 열차에서 내리니 도문행 열차는 이곳에서 모든 승객을 다 토해낸듯 텅빈듯한 느낌이다. 연길역사 전면에는 우리 글로 「연길에 오시니 반가워요」라는 환영사가 길손의 마음을 훈들었고 마치 서울역에 내린듯한 기분이였다.



◆조선족자치주의주도인 연길역. 「연길에 오시니 반가워요」란 환영사가 한문과 나란히 쓰여져 있다.

#### 4. 白頭山으로 가는 길

延吉에서 白頭山은 서남방향에 위치해있다.



◆1923년부터 1945년 광복이전까지 용정에는 6개의 한국인 남여중학교가 있었다. 광복후 이 학교들은 용정중학교의 명칭아래 모두 통합됐다. 연합기념비 앞에선 필자.

백두산까지 거리는 약 2백60km 龍井市 외곽에서 부터는 비포장도로로서 정상까지는 대개 6~7시간이 걸린다. 두만강은 볼 수 없지만 그 역방향으로 별로 높지 않은 길을 따라 자동차는 달린다. 和龍市를 벗어 나면서부터 우리일행은 타임 머신을 타고 50년 뒤로 밀려온 느낌이다. 백두산에 다가 갈수록 도로 양편에는 퇴락해 허물어진 초가집과 중국사람들의 집모습. 그것들은 현대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들이다. 쇠똥 냄새와 어우러진 시골장날의 모습은 우리가 체험했던 개구쟁이 시절 우리나라의 어디서 보았던 그 모습이다.

78년부터 개방화정책이 추진된 중국은 농촌에서 부터 人民公社制度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방화정책은 도시로 옮겨져 가면서 共產黨統治가 느슨해졌다. 농촌은 자급으로 식량난에서 풀려났으나 도시에 살던 사람들처럼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



◆ 도문에서 훈춘으로 두만강을 끼고 내려가는 국도. 옆에 보이는 시설은 두만강 북쪽의 강안 철책이고 뒤에 보이는 산은 북한땅이다.



◆ 강건너 보이는 마을은 북한 샛별군의 농가들이다. 저녁밥을 지을 때인데도 인기척을 느낄 수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전시용 마을인듯하다.

았다. 그래서 중국의 농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유랑의 길을 떠났다. 집이 폐허가 되고 문전옥답이 쑥밭이 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다. 농촌인구가 80%를 점유하는 중국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딱 부러지게 농촌정책도 제대로 안되고 도시정책도 정확히 안되는게 중국의 고민일것이라고 필자는 혼자 생각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超現代와 古代가 共存하고 있는 곳은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물론 어느 나라도 최상급과 최하급의 비교는 있을수가 있다. 모든 인간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산주의 이상을 내건 중국도 오늘의 현실에는 별도로 손을 쓸 방법은 없는것 같았다. 모든 인민에게 教育의 기회를 열고있다는 현대의 중국에서 전 國民의 6%가 文盲이고 15%가 반문맹이라면 教育부門에서마저 중국은 엄청난 고민을 안고있다고 할 것이다.

二道白河에서 자동차편으로 백두산에 등정하면 산으로 오른다는 느낌이 안들정도로 등정이 시작된다. 長白山이라는 현판이 붙은 전물을 지나 각종 수립대를 지나면 버스가 멎고 그 다음에는 8인승 승용차로 천지 바로 밑에 도착한다. 거기서 약 60m를 걸어서 산등성이에 오르면 바로 천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백두산은 해발 2749m(옛날에는 2744m), 제일높은 將軍峰(일제때에는 兵士

峰)이 높이가 그것이다. 16개 봉우리중 북한쪽에 7개, 중국쪽에 6개, 중간지점에 3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천지수면은 북한과 중국이 6대4의 비율로 중국이 적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해 호수를 내려다 보았을 때에는 겸푸른 호수경계수면 남쪽부근에 몇명의 북한측 초병이 막사밖에서 서성대고 있었으며 또 몇명의 사람들은 북한측 암벽에 무엇인가 가설하는듯한 모습이 쌩안경에 잡혔다. 백두산 정상에 오른 나의 심경은 터질듯 했으나 여기에서는 언급치 않기로 하겠다.

백두산을 내려와 長白호텔(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표기. 연중 9개월동안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서 일박한 우리는 다음날 「선구자」노래의 고장 용정을 거쳐 도문을 옆으로 훈춘시로 향했다. 도문에서 두만강을 따라 훈춘까지는 철도가 가설돼 있었고 철길과 나란히 한 도로는 말끔히 포장돼 있었다. 주먹돌을 던지면 북쪽땅에 떨어질 지호지간인데도 차를 세워 손을 흔들고 목을 놓아 불러봐도 저쪽 사람들은 묵묵부답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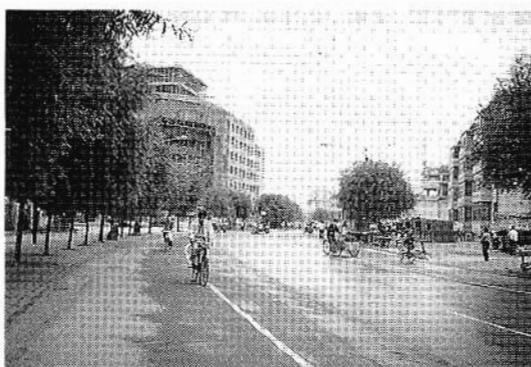
북한의 샛별군의 한 마을이라는 잘 가꾸어진 10채의 농가는 저녁 밥을 지을 무렵인데도 전혀 인기척이 보이지 않았다. 같은 공산주의 友邦國家이며 혈맹의 兄弟國이라는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은 속내를 안보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5. 훈춘에서 생각난 것들

속초시민들은 훈춘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속초시와 훈춘시가 재매결연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밝혀두지만 그것은 자매결연이 아니고 서로간의 뱃길(航路)을 열자함에 있다. 그 구체적인것을 필자가 설악신문 10월11일자(훈춘과의 뱃길은 열리는가)에서 자세히 꾀력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치 않고자 한다.

훈춘시는 두만강 하류의 内陸地方에 위치한 도시로서 최근에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이다. 현재 이도시는 5천2백km<sup>2</sup>의 면적에 25만 인구로 急成長한 곳이다. UNDP(개발계획)가 이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활발한 것 같다. 이 도시는 한개의 都市가 3個國(中國, 러시아, 北韓)에 인접하고있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도시는 주변에 비옥한 농토뿐만 아니라 석탄, 석유, 목재등 자원과 대리석, 화강암등 석재, 철·주석·은등 자원도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석탄을 이용한 대단위 화력발전소는 새로 조성중인 경제특구 60만평에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훈춘시 당국은 이곳에 전자공업, 전자공업, 식품공업, 제약공업등 사업체를 내외의 차별없이 조건만 합당하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철



◆개발붐이 한창인 훈춘시가의 일부. 출근시간인데도 불비지 않고있다.



◆훈춘시 경제개발특구내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모형도를 통해 훈춘의 미래상을 설명하고 있다.

도·도로연결하기로 이미 합의한바 있고, 북한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훈춘시 삼안자~등용(북한)간 5km의 철도부설을 완공하여 98km거리에 있는 북한의 나진항도 외항으로 사용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조선족자치주내 6大都市중 가장 잡자는 도시로 알려졌던 훈춘은 지금 중국동북3성 가운데 가장 개발붐에 들떠있는 도시였다.

올해에는 예년에 없었던 햇볕 탓인지 결실기에 접어든 훈춘들녘은 온통 풍년을 상징하는 황금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누렇게 고개숙인 벼이삭들은 탐스럽기까지 하였다. 農學者들에 의하면 벼는 热帶나 亞熱帶地方이 原產地이고 그것이 차츰 北上하여 溫帶地方까지 米作圈域은 확대 되었지만 通說로는 북위 42도 이북지역에서는 생육은 가능하나 결실은 어렵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통설을 우리 韓民族들은 수십년전에 뒤집어 놓았다. 두만강 이북지역은 물론 북위 50도인 黑龍江省 三江平原에서 까지 벼농사를 해 냈던 것이다. 한대지방에서 벼농사에 대한 도전은 중국동북지방에서의 한민족 승리의 월계관뿐만 아니라 1937년 沿海州지방에서 中央亞細亞의 카자흐와 우주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했던 한민족들도 그곳에서 미작재배에 전념, 원주민의 2배이상의 소출을 낸 사례는 이미 세계미작연구가들에

게 금자탑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슴 뿌듯하게 느껴졌던 것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北京의 고위공산당 관리들이 화중지방이나 화남지방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지 않고 멀리 떨어져있는 조선족자취주에서 한민족 후예들이 피땀흘려 개량한 미질의 우량한 쌀을 가져다 먹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 6. 계속 타오르는 민족의 횃불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延吉땅을 밟았다. 北京까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다. 이곳에는 작년 8월에 문을 연 延邊科學技術大學이 있다. 4년제 대학인 이 학교는 기계공학, 대외경제무역 등 工·商大 5개학과에 2백 명의 학생으로 첫 수업이 시작됐는데 모든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것과 모든 학생이 조선족으로 입학시험에 합격해야만 된다는 민족기준의 엄격한 자격이 있다.

중국국적의 모든 한민족들은 대학입학시험에서 한국어로 답안지를 쓸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데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는 중국어는 교육과정에서 사용치 않는 것이 특징으로 돼 있다. 이 대학은 89년 이후 後援會가 결성, 國內에서는 물론 美國의 뉴욕, 시카고, LA 등同胞社會에서 약 4만명의 후원회원들이 한푼·두푼의 성금을 모아 약 40억원의 거금을 만들어 延吉市에 30만평의 대지위에 5층건물의 대학본관과 학사·기숙사·식당 등 현재 중국에

서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오는 97년까지 1백50억원을 더 들여 의대·간호대 등을 신설,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킬 원대한 꿈을 안고 쾌주하고 있다. 高句麗인들이 원대한 기상을 펼치며 中原을 압도했던 우리들의 古土, 勃海人們의 역사의 숨결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곳, 近代史의 험악한 사태들이 한반도에 몰려들어 우리민족을 잘기갈기찢어 놓았을 때 나라를 잃은 우리지사들과 독립군들 그리고 재산을 수탈당하고 농토마저 빼앗긴 동포들이 조국땅을 등지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가슴에 맷힌 한을 새기던 이 땅에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民族大學을 세웠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들인가. 땅은 비록 남의 땅이지만 우리는 이곳을 중국에 살고 있는 2백만 韓民族의 教育의 聖殿으로 대를 물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비행기가 연길상공에 떠올라 비스듬이 회전하면서 北京쪽으로 기수를 돌릴즈음 연길을 내려다 본 필자는 멜레야 멜 수 없는 꾏줄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가는 것처럼 아쉬운 마음이 뭉쳤다. 그리고 저 두만강변에서 훈춘으로 내려갈 때 강가에서 버스를 멈추고 남녘의 북한 사람들을 향해 소리높이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던 그 무표정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통일은 말과 이론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

## 사물놀이의 虛와 實

주지하다시피, 國樂은 우리의 음악이다. 우리 오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조상들의 얼과 넋이 담겨 있는 음악으로 國語와 마찬가지로 아끼고, 사랑하고, 잘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할 매우 소중한 음악인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開化期이후 '음악의 서구화가 곧 선진화'라는 엄청난 착각에 사로잡혀 서양 음악을 배우고 따르는 데만 모든 것을 투자한 결과 우리 國樂을 개밥의 도토리만도 못한 異邦 음악으로 전락시키는 愚를 범하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國樂의 해'란 것이 다 제정되었을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즉 옆드려 절받기식의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國樂을 살려보려고 애쓴 분들 덕분에 다행히도 國樂의 전망은 점점 밝아지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개편되는 음악교과서에서는 國樂의 비중이 40%로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음악 교사 임용고사에서도 國樂이 필수가 된다고 한다.(지금까지는 명주실 놓고 가야금줄도 모르는 國樂 무식쟁이도 피아노나 잘 치고 모차르트나 베토벤만 제대로 알

면 음악 교사로 임용되었다.)

또, 내년도('95학년도) 음악대학 국악과의 신입생 모집도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우리 日常에서 차지하는 國樂의 위치와 비중은 크게 달라진게 없는 것 같다.

환골탈태하려는 음악 제도와 구태의연한 음악 생활이 여전히 同床異夢의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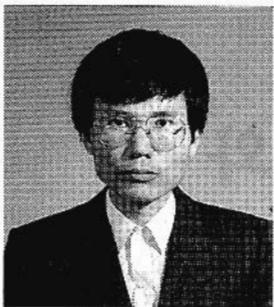
다만, 사물놀이 음악 만큼은 예외인데 國樂의 불모지인 강원도, 그 중에서도 또 불모지인 우리 속초 지역에도 사물놀이패는 多數가 있을 정도로 國樂 무대접이란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내 某여학교에서는 특활부서에까지 사물놀이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무척 큰 인기라고 한다.

속초 문화원 부설 문화학교에도 사물놀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사물놀이는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네 종류의 타악기로 연출하는 형태의 음악으로 農樂의 판굿이 무대화된 것이다.

이러한 사물놀이는 서양의 헤비메탈 음악에 비유될 수 있겠는데, 팽과리와 징에서 울려나오는 강렬한 금속성의 음향, 그리고 天地가 개벽될 때나 들을 수 있음직한 육중하고



## 임 수 철

- 속초고 제23회 졸업
- 강원대 음악교육과 및 경희대 음악대학 대학원 작곡과 졸업
- 제1회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신인 음악평론상 수상
- 한국작곡가회 및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원

요란한 비트(beat;拍)등 음향적인 면에서 볼 때 실제 헤비메탈 음악적인 속성이 매우 강한 음악이다.(新세대가 아닌 분들을 위해 헤비메탈 음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한다.)

헤비메탈 음악은 묵직한 拍과 電子 장치에 의한 금속성의 音을 특징으로 하는 로큰롤 음악의 일종으로 청소년층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양의 대중 음악이다.)

그래서, 사물놀이는 짧은 연륜의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팝세대인 청소년층에게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사물놀이패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결성된 것이 겨우 16년전인 1978년의 일....)

지난 10월6일, 설악제 경축 행사의 일환으로 속초문화회관에서 국립국악원 순회 공연이 있었다.

그 공연에서 사물놀이를 비롯하여 궁중 음악 壽齊天, 궁중 무용 佳人剪牧丹, 창작 국악 沈香舞 등 다양한 레퍼터리가 무대에 올려졌는데, 역시 가장 큰 박수를 받았던 레퍼터리는 사물놀이였다.

사물놀이는 외국인들에게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물놀이가 강렬한 리듬의 原初性

이라는 인류 보편성을 지닌 超國籍的인 음악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강렬한 리듬은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음악학자는 '太初에 리듬이 있었다'는 학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원래 四物은 징, 북, 팽파리, 장구가 아니라 불교 음악에서 나온 것으로 木魚, 雲板, 法鼓, 梵鍾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언급한 바와같이 징, 북, 팽파리, 장구 등 네 종류의 타악기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악기는 日, 月, 星, 人 즉, '해·달·별·사람'을 각각 상징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물놀이 음악은 곧 宇宙가 담겨 있는 음악에 비유되기도 한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는 느낌도 들지만 정말 그럴싸한 비유같다.

필자의 拙著인 國樂入門書 'OK 國樂'에서도 주장한 바와같이 사물놀이가 이처럼 인기가 있는 음악이라면 디스코텍 대신 사물놀이 텍이란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으로 양성화시키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四物 중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씩 들고 신명나게 한 바탕 두들겨대면 아마도 백년 묵은 스트레스도 한 순간에 풀릴 것이다. (스트레스도 좀 주체성, 있게 풀어야하지 않겠는가.)

또, 외국에 나가도 사물놀이텍을 만들어(이른바, 외국 분점 설치) 외국 청소년들을 끌어들인다면 外貨도 벌어들일 수 있고, 國樂도 홍보할 수 있을 터이니 이거야말로 一舉兩得이 아니겠는가.

國樂 활성화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주체성 차원의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개방되는 국제화의 거센 파도속에서 죽느냐 사느냐하는 兩者擇一의 진박한 생존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음악적 身土不二가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사물놀이텍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필자의 주장을 결코 말장난이 아니다.

만약, 사물놀이텍이 외국에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우선 사물놀이에 필요한 악기 수출에서부터 상당한 外貨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최근, 사물놀이 붐이 일어나면서 악기 기술자들의 수입이 아주 좋아졌다고 한다.)

정말 진지하게 사물놀이텍의 현실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고도 냉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음악적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사물놀이가 아무리 인기 있는 음악이라고 해도 國樂의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물놀이는 國樂의 수많은 장르 중 지극히 작은 장르에 속하는 支流的 음악일 뿐인 것이다.

더욱이, 사물놀이는 글자 그대로 놀이(遊戯) 음악이지 예술 음악이 아니다.

國樂에서 본격적인 예술 음악은 與民樂이나 靈山會相과 같은 正樂, 그리고 散調나 雜歌와 같은 民俗樂이다.

우리 國樂은 文을 숭상했던 선비의 나라 음악답게 느리고, 넉넉하고, 한가하면서 대륙적인 호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물놀이처럼 야단스럽고, 요란하고, 번잡스러운 것은 사실 國樂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사물놀이가 너무 인기가 높은 음악이 되다보니 마치 國樂의 전부이며 眞髓인양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물론 심지어 전문 음악인들 중에서도 國樂=사물놀이, 사물놀이=國樂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이 있다.

이것은 잘 팔리는 책이 곧 좋은 책이라는 인식 만큼이나 그릇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사물놀이가 본격적인 예술 음악이 아니라 는 것은 외국인들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사물놀이 음악을 들려주면,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음악에 대해 웬만큼 상식이 있는 분은 그렇지 않다.

물론, 세계 타악기 경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사물놀이페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교적 차원의 음악으로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지 예술적 차원의 음악으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아무튼, 사물놀이가 그 동안 우리 國樂을 홍보하고 붐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급부적인 폐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느 國樂은 완전히 제껴놓고 오로지 사물놀이 음악만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된다면 가라오케 음악을 수출하는 일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바하나 모차르트 음악을 주로 수출하는 클래식 음악의 나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우리나라가 진정한 음악의 나라가 되려면 正樂이나 散調와 같은 예술 國樂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물놀이를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나 배우는(배우려는) 입장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한다.

溺愛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다.

사물놀이 음악에 대한 虛와 實을 제대로 알고서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이 사물놀이 음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 국립공원 설악산(10)

~ 고성산(古城山)과 공양왕유적지(恭讓王遺跡地) ~



박 익 훈

## ■ 약력

- 전직 교육자
- 현 속초시 노인학교장
- 속초도서관 주부교실 한문교양 강사
- 속초시 문화상 교육상수상
- 서훈 국민훈장 목련장, 동백장 수상
- 저서 「5분교양」

우리 친산회원(親山會員) 일행이 고성산을 찾아 간 것은 1994년 1월 5일이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산에는 흰 눈이 곳곳에 쌓여 있고 길은 초행(初行)인데다가 빙판이 많아 7,80되는 고령(高齡)으로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공양왕의 유적지를 찾는다는 꿈에 부풀어 간 성에서 10리 남짓한 산길을 걷고나니 건강이 좋지 못한 몇분은 고성산 밑에서 주저앉게 되고 나머지 몇사람 만이 가파른 눈길을 더듬어 290여 미터되는 산정(山頂)에 올랐다.

이 조그마한 산마루에도 만여평이 넘는 넓은 분지(盆地)가 있다니 하고 모두 놀란 표정들이다. 이곳은 거란(契丹)의 침입을 비롯해서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란을 겪은 피란지였음을, 아니 격전지(激戰地)였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넓은 평원(平原)에 샘물까지 솟아나고 있으니 수성(守城)에 좋은 조건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특히 이 고성(古城) 산은 이 고장 수복에 없어서는 안될 군사요충지(軍事要衝地)였고 또 인민군이 후퇴할 때 이곳을 거점(據點)으로 이용한 곳이기도 하다. 옛 성은 허물어져 성을 쌓았던 돌멩이들이 산 기슭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고 근간(近間)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참호와 군사훈련장 들이 지난날의 일들을 영상(映像)이라도 비추어 주는 듯 옛 님들의 호국충정(護國衷情)을 가슴깊이 느끼게 한다.

산성 서북쪽에 오석(烏石)으로 만든 표석(標石)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 “고성금수리 산성

古城金水里 山城”

1217년(高麗 高宗4) 契丹(거란)의 무리 侵入(침입) 官民(관민)과 싸워 수백명이 散華(산화)한 護國(호국)의 얼이 깃든곳

1984년 고성군수”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옛성이 있다해서 고성삭이었는데 금수산성이라고 표석에 쓰여진 뜻은 이 산이 고성군 간성을 금수리(高城郡 杆城邑 金水里)에 있는 산이라해서 그 지방분들이 금수산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361년 전인 1633년(仁祖 11) 간성 군수(杆城 郡守) 택당 이식(澤堂 李植) 선생이 썼다는 간성지 고적조(杆城誌 古跡條)에 고성이 두곳에 있는데 한곳은 간성남산 위에 있고, 다른 한곳은 열산현에 있다. 처음 성을 쌓을 때는 모두 석축이었으나 지금은 자취만 남은 빙터이다(古城有二 一在杆城南山上 一即烈山縣 古城 初皆石築 今有遺墟)’

고성산 서남쪽에 있는 광대바위라고 부르는 관대암(冠帶岩)이 말없이 서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일행은 산에서 내려와 고려 마지막 임금 공양왕(恭讓王) 유배지(流配地)라고 전해오는 수타사(壽陀寺 또는 水陀寺)로 찾아갔다. 고성산 밀동북쪽 개울가 언덕바지에 초라한 4층석탑이 눈에 뜨인다. 석질(石質)이 좋지 못하고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에 시달려 마치 왕모래를 과다하게 섞어 만든 인조석이 낡아진 것처럼 불상사나운데다 6·25전쟁때의 것으로 보이는 총탄의 흔적이 군데 군데 남아있다.

수타사는 언제 누가 세웠는지 알수는 없으나 전해 오는 말로는 고려시대의 절로서 공양왕(恭讓王)이 유배(流配)되었던 절이며 이 절에는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절 기둥 벽 할 것 없이 빈대투성이어서 스님들이 견디다 못해 절을 불태워버리고 인제방면으로 가 버렸다는 것이다. 표지판 하나 없으니 혹시나하고 두번이나 찾아갔지만 근거될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 아쉬움만 남겼다.

고려사(高麗史)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이성계(李成桂)가 1388년(王14) 5월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하자 6월에 우왕을 폐하고 王子 昌을 책봉(冊封)하고 12월에 최영(崔瑩)을 죽였는가 하면 다음해 11월에 임금이 된지 1년도 못되는 창왕을 쫓아내고 정창군 瑤(定昌君 瑤)를 책립(冊立)했는데 이분이 바로 고양왕이다. 1392년 4월에 유배중인 우왕과 창왕 두 부자를 신돈(辛曄)의 자손인 신(辛)씨라 하여 공양왕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고려 마지막 보루(堡壘)였던 충신 정몽주(鄭夢周)마저 제거하고나니 고려는 이성계의 손에서 요리되게 되었다.

1392년(恭讓王 4…太祖 1) 1月17日 李成桂는 왕위(王位)에 오르고 恭讓王은 원주로 유배되었다 끈이어 간성(杆城)으로 이배(移配)되어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봉(降封)되고 2년이 지난후 다시 삼척으로 옮겨져 죽었다는

내용이다.

1990년 원성군(原城君)이 발간한 년감(年鑑)에 의하면

“손곡리는 옛날 임경업 장군이 탄생한 곳이며 고려 공양왕의 유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위실이라는 지명이 생겼고 한편 이달과 허균이 공부하던 곳으로 손곡이란 이달의 호도 여기에서 연유된다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다.”

로 되어있다.

1986년 10월20일 발행(發行)된 고성군지에는 “고려말엽 공양왕께서 1392년 7월14일 이 성계가 왕위에 오르자 공양군으로 강봉되어 원주로 추방된 뒤 다시 간성으로 피하여 수타사에서 2년동안 있다가 1394년(太祖 3)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로 재유배(再流配)되었다고 한다”로 쓰여있다.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宮村里)는 「바르셀로나」을 릴픽 마라톤왕 黃永祚(황영조) 고향인 초곡리(草谷里)와 인접한 마을로써 국도변 바닷가에 있다. 陵(릉) 입구도로변에 공양왕 陵(릉) 있는 곳이란 표지판이 서 있고 차안에서도 陵이 보인다. 陵外에 묘(墓)들이 있고 陵앞에 시멘 콘크리트로 포장된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묘역(墓域)에 비석같은 석물(石物)은 없지만 잡초 하나없는 잔디로 곱게 다듬어져 있다. 陵부근에 사는 고로(古老)의 말로는 옛날에는 陵(릉) 부근에 사는 동리 사람들이 8月추석이 다가오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벌초(伐超)를 했는데…벌초를 잘하면 그 집안은 물론이고 그마을 전체가 1년동안 아무탈없이 고기도 잘 잡혔는가 하면 벌초를 하지않으면 동네에 재난이 생긴다고 동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지금은 근덕면에서 벌초도 하고 제사도 올린다는 것이다. 4,50대 되는 지방유지 몇분을 바다가에서 우연히 만나 공양왕릉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제주에 사는 왕씨들이 종종 찾아와 왕씨문중에서 비석을 세울 계획이라면서 원주에도 공양

왕릉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강원일보사에서 발간한 태백의 읍면 근덕면편 “왕석묘조에 宮村里 고돌치에 왕석묘가 있는데 고려 공양왕의 장자인 정성군으로 1837년 이조 현종3년 가을에 부사 이규현이 개축했다. 이 묘는 완전하여 세청 공양왕릉이라고 하나 공양왕릉은 경기도 고양군 동십리 대자산에 있다.”고 되어있다. 정성군은 정창군(定昌君)의 오기(誤記)이고 장자가 아니라 공양왕 자신인 것이다. 마을이름도 이왕릉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양왕릉이 원주에 있으니 고양군에 있으니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고 공양왕이 죽을때 많은 王氏들에 죽었다는 기록을 보아 원주, 고양에 있는 무덤들은 왕족들의 무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疑懼心)이 생기기도 한다.

이병도(李丙燭), 이선근(李瑄根)박사 책임하에 엮어진 이야기 한국사에는 부사 함부림(咸傅霖)과 서울서 온 정남진(鄭南晋) 그리고 부사가 거느린 나졸(羅卒) 서너명이 삼척으로 공양왕을 찾아가 함부림이 王의 전지(傳旨…어명이 적혀있는 글)를 읽고나니, 공양왕은 억울한듯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씨 임금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다. 나의 죄가 무어란 말이냐!”

“나라를 잘못다스린 죄라 합니다.”

“고양지고……”

이때 함부림이 나졸들에게 임금을 죽이라는 눈짓을 했으나 나졸들은 참아 덤벼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부림은 “어서, 어명을 실행하렸다!”하고 큰 소리로 호통치자. 나졸들은 그제서야 공양왕과 세자 왕석(世子 王奭) 그의 아우 세 사람을 함께 밖으로 끌고 나가 죽였으니 한날 한시 같은곳에서 공양왕 3부자는 천추의 한을 품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공양왕은 이성계가 세운 임금이건만 우둔

하고 어리석다는 굴레를 씌워 나라를 잘못다  
스린 죄로 죽였으니 죄목치고 어린아이도 웃  
을 죄목이다.

공양왕은 고려와 자기목숨을 보존하기 위  
하여 귀양중인 우왕, 창왕부자를 죽여야 했고  
심지어 이성계와 의형제를 맷고 사이좋게 지  
내자고까지 애원했지만 공양왕 재위(在位) 4  
년만인 1392년 7월17일 왕건(王建)이 건국한  
지 475년만에 폭풍앞에 촛불처럼 나라는 사  
라지고 자신도 50세의 나이로 아들 두형제와  
함께 궁촌해변가에서 외로운 고혼이 되었건  
만 그의 무덤엔 비석은 고사하고 안내판조차

없으니, 왕릉치고 이런곳이 또 어디있는지…  
당시 벼슬을 마다하고 치악산에 숨어 살던  
원천석(元天錫)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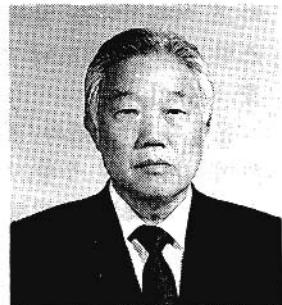
“홍망이 유슈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백설이 자자진 골에 구름이 머흐메라 반  
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엇는고 석양에 홀  
로 서서 갈곳 말라 하노라.”

어찌 이 두분뿐이었겠는가…….

# 東草中學校



교장 정 두 교

解放以後 38線 以北에 속하였던 東草는 共產治下에 들어가게 되고 6·25動亂以後 1951년 修復 허가 된 이 고장에 共產治下를 증오하여 피란나온 以北의 피란민 등 이 地域住民이 학심하여 子女들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一念으로 1951년 10월16일 東草中學校를 設立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領北地域의 第1의 名門校로 發展하게 되었다.

그概要是 다음과 같다.

## 1. 學校現況

가. 교훈：“나날이 지혜롭게 살자”

나. 교목：소나무

다. 교화：철쭉

라. 연혁개요

- 1951. 10. 16 속초중학교 설립인가(3학급)
- 초대 이철우 교장 부임
- 1961. 9. 8 학급 증설 인가(24학급)
- 1986. 3. 1 학급 변경인가(21학급)
- 1988. 12. 10 교사이전(교동 657 교동 776-1번지)
- 1991. 3. 1 정두교 교장 부임(17대)
- 1994. 2. 16 제43회 졸업식(345명) 계 14,330명
- 1994. 3. 1 학급증설 26학급 인가
- 1994. 3. 2 '94학년도 입학식(402명)
- 1994. 6. 1 교사이전 32개 교실(보통교실24 특별실4 관리실4)

마. 교직원 현황('94. 9. 1 현재)

구 분 인 원	교 원					일 반 직					총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소계	6급	7급	기능직	임시직	소계	
인 원	1	1	11	42	55	1	1	4	3	9	64



바. 학교현황('94. 9. 1 현재)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계
학급 수	9	9	8	26
학생 수	398	433	383	1214

## 사. 시설현황

## ○부지

구분	교사 부지	보건장	계
면적	13,494m <sup>2</sup>	18,276m <sup>2</sup>	36,770m <sup>2</sup>

## 2. 영북지역 유일의 '축구'육성교

1984년 축구팀 창단

주요전적

## 가. 강원도 대회

- 90년 7회 도지사기 우승
- 91년 8회 도지사기 우승
- 92년 8회 태백곰기 우승



- 92년 9회 도지사기 우승
- 93년 9회 태백곰기 우승
- 93년 10회 도지사기 준우승
- 94년 14회 협회장기 초·중·고·대학별 축구대회 우승
- 94년 강원도 소년 체육대회 우승  
전국 소년 체육대회 출전(광주) 강원도 대표팀

#### 나. 전국대회

- 91년 제10회 KBS배경 제21회 전국 춘계 중·고 축구연맹전 3위
- 92년 KBS춘계 16강
- 92년 KBS추계 중·고 연맹전 8강
- 93년 KBS춘계 중·고 연맹전 16강
- 94년 KBS추계 중·고 연맹전 16강

#### 다. 국제대회

- 한, 일 친선 축구대회 '92. 12. 24~28 장소 : 일본 우승
- 한, 일 친선 축구대회 '93. 12. 24~28 장소 : 일본 우승

※'94년 9. 1 현재 축구지도자

감독 : 심용철 강원대풀 할렐루야 축구단 은퇴

코치 : 김정태 관동대풀 삼익악기 축구단 은퇴

### 3. 藝體能 및 其他

#### 가. 綜合實技大會 市·郡豫選大會 7. 19

- 문예 : 산문 \_\_\_\_\_ 금상
- 음악 : 바이올린 \_\_\_\_\_ 금상
- 미술 : 판화 \_\_\_\_\_ 금·은상  
    조소 \_\_\_\_\_ 금·은상  
    구성 \_\_\_\_\_ 금·동상  
    道大會판화 \_\_\_\_\_ 금상(1), 은상(1)

#### 나. '94 江原道 少年體典 4. 9~4. 12

- 육상 : 투표환 \_\_\_\_\_ 금1
- 유도 : 65kg \_\_\_\_\_ 금1, 동1
- 근대2종 \_\_\_\_\_ 금1, 동1
- 축구 : 우승(속초중 : 황지중 3:2)

## 다. '94 科學 競進大會

## (가) 市·郡 豫選 大會

- 科學箱子組立(綜合部) \_\_\_\_\_ 금
- 科學箱子組立(主題部) \_\_\_\_\_ 금
- 라디오組立 \_\_\_\_\_ 금
- 學生探究事例 \_\_\_\_\_ 금

(나) 道 競進大會 \_\_\_\_\_ 장려

## 라. 축구

- '94 江原道少年體典 \_\_\_\_\_ 우승(4. 9~4. 12)
- 제14회도 協會長旗大會 \_\_\_\_\_ 우승(6. 30~7. 2)

## ※ 體育育成種目現況

구 분	축 구	육 상	카 누	계
인 원	30	10	4	44

## 4. 이 고장을 이끌어 가는 장한 사람들

'94. 2. 16일 제43회 졸업식 년인원 14,330명 속초 지역은 물론 영북 지역등 여러 곳에서 중추적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6.25사변으로 폐허가 된 속초를 이제는 전국 제1의 관광지로 번영 발전시켰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 시킬겁니다. 이 지역에 많은 인사들이 있지만 줄여서 몇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번호	성 명	졸업회수	최종학력	현 직 업
1	최 창 연	3회	고 졸	속초시 의회 의원
2	장 동 희	"	"	"
3	동 문 성	"	대 졸	재향군인회 속초시 지회장
4	황 돈 태	4회	"	속초시 부시장
5	차 진 환	5회	"	동우실업 대표
6	김 용 현	9회	"	(주)연우컴퓨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7	김 명 동	11회	고 졸	속초 농협 조합장
8	김 상 락	14회	대 졸	단국대 천안분교 교수
9	김 두 만	"	"	항공대 교수
10	조 승 남	18회	고 졸	속초시 의회 의원
11	장 정 용	21회	대 졸	강릉대 교수
12	황 윤 구	26회	"	변호사

# 東草女子中學校

\* 교화 : 목련 · 교목 : 향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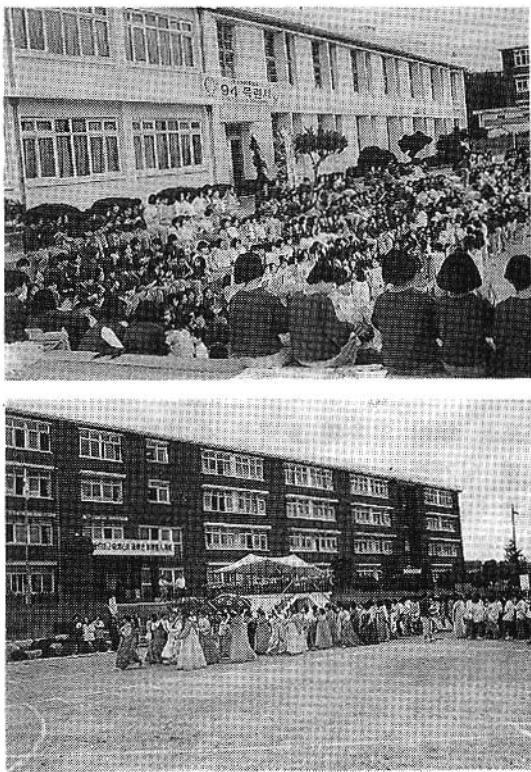


교장 김 봉 길



속초시 금호동 625-37에 소재하고 있는 본교는 1955년 3월27일 3학급설립 인가를 받아 4월20일 유장열 초대 교장 선생님의 부임으로 업무가 시작되었다. 5월24일 개교이래 현재까지 40년의 역사를 지켜온 관내 여성 교육의 전당으로, 94년 2월16일 제39회 졸업식을 가짐으로써 총 11,095명의 졸업생을 배출

했으며 현재 1,174명이 재학하고 있다. '94년 3월1일자로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26학급이 인가되었으며 제11대 김봉길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셨고 김진각 교감 선생님을 포함하여 총 61명의 교직원이 즐거운 학교, 참된 여성, 부지런한 학생을 교훈으로 하고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 육성」이라는 강원교



육의 지표아래 「애국 애족 정신이 투철한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건실한 한국 여성을 육성한다」고 하는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와, 바르고 조화로운 생활인 육성, 밝고 슬기로운 실력인 육성, 국제화·개방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인 육성, 강건·정결한 전장인 육성, 과학·기술인 육성이라는 교육의 구체목표 구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출선수법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신감에 찬 학습지도를 하며, 사랑과 이해로 학생들과 대화하여 문제발생 요인을 원천 제거하여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환경 정화에 노력하며 봉사·실천하는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시설현황으로는 정규교실 25교실을 비롯하여 과학실, 가사실습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실, 컴퓨터실, 체육실, 양호실, 상담실, 방송실, 교사휴게실등 바른 교육을 위한 제반 시

설과 교재 및 교구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특히 1991, 1992년에는 교육부 지정 교육방송 연구학교로 지정 받아 교육방송의 효율적인 교과과정 편성·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였으며 관내 교육방송 중심 학교로 교과별 방송수업 교재를 다양하게 비치하여 필요시에 교실 수업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경험의 축적으로 각종 교내외 행사를 비롯하여 음악방송 등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방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 모니터 등 기자재와 10평의 스튜디오, 5평의 기계실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책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바르고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위해 도덕성 함양 6운동 애향3운동, 기본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기초교육에 충실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보건-체육교육의 충실, 즐거운 학교조성을 역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기초과학 교육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며 과학 실험실을 개방하여 필요시나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실례로는 학교 예산을 공개하는 등 학교 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크고 작은 교직원에 관계된 제반 업무를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수업시수 확보, 교과 협의회 및 학년 협의회 조직 운영, 공정한 평가관리 및 학력관리에 힘쓰며 연2회 이상 동료 장학을 실시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한편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내에 신고함 등을 설치하여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생 폭력행위등 학생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며 자율적인 학생회 운영으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걸 스카웃, 청소년



연맹, 해양 소년단, RCY등 봉사단체 활동과 각종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전국 규모의 학생 야영·수련 활동을 비롯하여, 강원도단위 활동, 학교단위 활동등 1993, 1994년 2년동안 연인원 교사 51명, 학생 1,497명이 야영·수련 활동에 참가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협동심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였으며 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호연지기를 길러 정서문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직원 복지 및 인화단결을 위해서 각종 직원씨클 활동을 권장, 지원하여 서로 신뢰하고, 생동감 넘치는 교사상 정립에 힘쓰고 있으며, 교장실을 개방하여 학교장과 교사의 격의 없는 대화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함으로써 교사-학생간의 제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교의 '94학년도 특색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장력을 기르고 하루의 일과를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이고 건전한 생활태도를 갖게 함과 동시에 학급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어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학급별 일기장을 비치하여 매일 한 명씩 윤번제로 「학급 문예일기」를 쓰게 하여 협동심과 이해심, 창의력과 사고력, 문장력을 기르며 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학급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94년 10월25일부터 27일까지는 1년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준비·제작된 미술작품 902점, 가정·가사 738점, 문예 940점, 과학 30점등 학생작품 2,610점과 교사·학부모 작품, 그 외 찬조 작품 50여점, 국화 100분을 전시하였으며 교내 백일장, 합창 경연대회, 무용 발표회, 피아노 독주, 나의 주장 발표등 종합 작품전시회(제1회 목련제)를 열어 뜻있는 지역 인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궁지를 심어주어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시발점으로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장 발전시켜 한해의 교육활동을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해볼 수 있는 종합예술제를 열어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수재배출의 명문교 설악중학교



교장 최상덕



본교의 개교는 경제 개발 및 교육열의 확대로, 1967년 6월 5일 9개 학급으로 시작되었다.

1971년 속초 고등학교에서 분리,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게 된 설악중학교는 그 후 몇 차례 학급 수가 증가해 지금은 3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25개 학급 규모로 발전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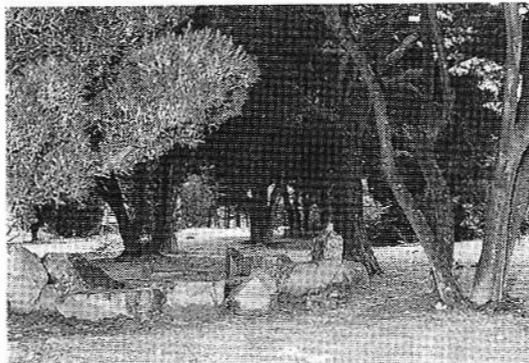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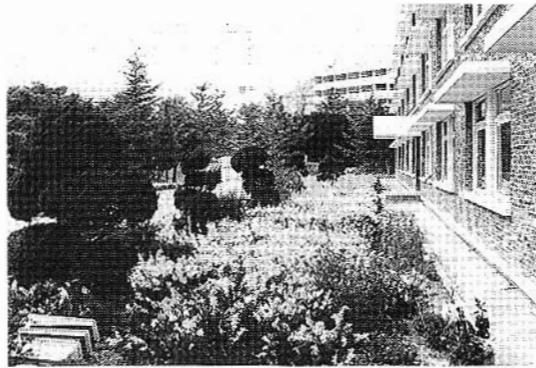
1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군으로 이바지하였다.

본교는 속초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4만 여평의 넓은 부지에 구교사와 신교사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 단풍나무와 소나무등이 어우러진 정경은 설악산의 조그마한 숲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 소공원으로,

학생과 선생님들의 피로해진 심신을 달래고 꿈과 낭만을 키우며 사색과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아담하고 깔끔하게 단장된 화단에서 여름철엔 사루비아가 그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고 가을엔 국화의 정갈함이 거칠어진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주며, 더불어 넓은 운동장은 학생들의 심신과 체력 단련의 장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넓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1200명 가까운 학생들은 배움에 힘쓰고 심신을 단련하며 선배들의 전통을 더욱 빛내고자 노력하여, 94학년도 고등하교 입학 선발고사에서도 속초고등학교에 수석, 속초상업고등학교에 수석 및 속초고등학교 10위권 내에 7명이나 들어 학교의 실력을 새삼 과시하였으며, 또한 운동부 학생들의 땀흘린 훈련의 결과로 94



강원소년체전에서 금2, 은8, 동7(계 17개)의 메달을 단일 학교로서는 처음으로 획득하였고, 특히 권투부 전 체급에서 금, 은, 동메달을 휩쓸었으며 94년 교육감배 육상경기대회에서 김수용(2학년)군이 800m 강원 신기록을 냄으로써 제2의 황영조 탄생을 기대하는 꿈을 갖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전 권투(플라이드 미들급)부분에 강원 대표로 참가한 김기주(3학년)군은 속초로서는 전국 규모에서 처음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 속초 체육발전의 미래를 밝게 해주었고 또한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 금메달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역인사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야구부를 재창단하게 되어 후년쯤이면 학교의 자랑거리가 또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제11대 교장으로 93년 3월1일자로 취임하신 최상덕 교장께서는 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95학년도 제6차 교육과정도 연구 시범학교로 만들어 전 교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연구에 몰두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1년차인 금년에 교직원의 중지를 모아 특별활동 시간을 전일제 특활로 바꾸어 3주째 토요일은 학생들이 책 가방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음껏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조사, 개선, 보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별활동 부서의 제한성과 교사들의 특기 개발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새로운 경영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학교의 노력은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까지 새로운 것에의 실험의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 성과는 벌써 94 강원도 퍼스널 컴퓨터 경진 대회에서 두번의 은상 획득,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각종 글짓기, 그리기, 독후감 공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활부서중 일부 부서는 우리 고장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식물 생태 조사, 영랑호 및 청초호 오염조사 및 보존을 위한 연구를 통해서서 애향심을 배양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외 활동으로 책읽기가 대표적인데 사고력과 창의력에 역점을 둔 새로운 교육목표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학급별 50권이상의 도서를 ('95학년도는 100권 정도) 도서보관함에 비치하게 하고 도서 대여 및 독후감 공모 등의 방법과 독서와 연결되는 행사를 통해 독서 장려에 힘쓰고 있다. 도서 담당교사가 틈나는 대로 권장도서 목록 배부로, 책

은 많으나 청소년이 읽을 책은 적은 심각한 현실에서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량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교통질서 의식의 고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활지도 중의 하나이다. 본교에서는 봉사활동 및 생활지도의 하나로 매일 교통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승용차 및 화물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옆에 위치한 탓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교통정리를 하는 한편 교통 안전 교육실시에도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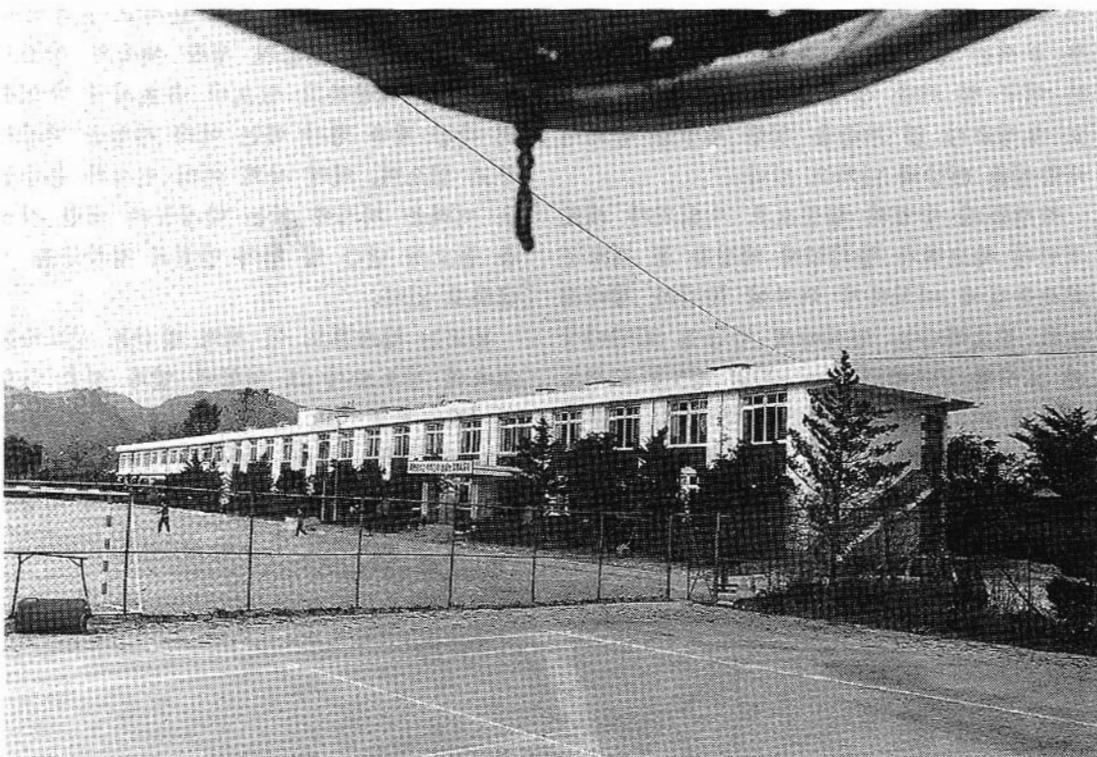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 관계도 돈독해서, 학교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 체육의 장소로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속초시내 주민들의 각종 체육 행사 때는 여러 시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지역 사회 여러 인사와 동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자 년간 일 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교는 앞으로도 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창조·협동·근면의 교훈에 입각하여 올바른 심성을 갖춘 조화로운 민주 시민으로서 개방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 설악여자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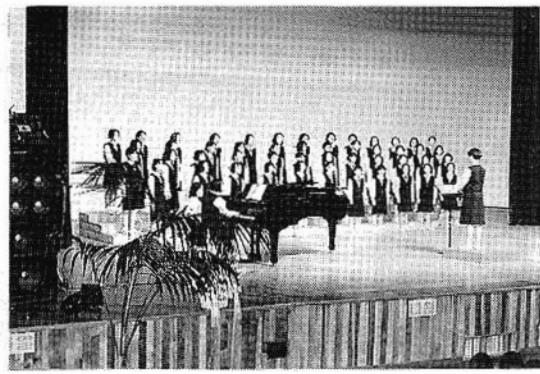


교장 이 용 선



“설악의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교가(校歌)로 교사(校舍) 주변의 정경을 묘사할 수는 없으리라. 설악산 산등성이의 절경이 병풍처럼 교사 주변을 둘러쳐져 있으며 훤히 트인 동해바다의 시원스런 모습이 앞길라잡이처럼 교문 입구에 펼쳐져 있는 설악여중!

‘깨끗하고 성실하며 지혜롭게 살자’라는 교훈 아래 1971년 9학급으로 개교하여 94년 2월 16일 제21회 졸업식을 거행, 올해 431명의 졸업생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총 6,46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비록 타 학교에 비해 그 역사는 짧다하나, 늦게 시작한 만큼 내실을 탄탄히 하기 위한 노력은 남달랐다.



교목(校木)은 곧고 아름답게 자라서 정직과 맑은 정서의 표상인 은행나무요, 교화(校花)는 누구보다도 일찍 피어,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삼라만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개나리로, 지역사회와 나아가 이 나라의 올곧은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상을 담은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맹위를 떨쳐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 지역적 추세로 교사 주변에 주택과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초창기 시절 황량한 벌판에 교사건물만이 헥大棚그렇게 있었다. 하여 중학교 배정시, 설악여중에 배정을 받으면, 학생들이고 학부형들이 태산같은 걱정으로 눈물 흘리며 오기를 꺼려했었다. 지금이야 교통편의상 가장 좋은 지형적 조건이지만 개교 초기엔, 교통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허허벌판에 교사건물만이 놓여져 있어 학부형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다른 곳으로 배정받기 위해 교육청이고 학교로 하소연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다.

또한 신생학교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전통 면에서나 시설면에서 기존 학교들만 못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지역사회에서 외면하는 고립성을 탈피하고자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기도 하였다.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학교, 당당히

인정받는 학교로 만들어야겠다는 굳은 각오 아래 초창기 시절,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고군분투로 드디어 짧은 시간내에 두드러진 실력 향상을 보여 강원도내 명문고의 입학률이 높아졌다.

한편, 학생들은 학교가꾸기의 애교심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본교는 짧은 역사를 지닌 학교이지만 기존학교 못지 않은 내실을 기해, 당당히 기존 학교들과 어깨를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만큼 부상하게 되었다.

그 시절 선생님들의 혼신적인 노고와 더불어 다부진 각오로 따라준 학생들의 애교심이 아니었다면 지금에 이르진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백리길을 갈 사람은 세끼 밥만 준비하면 되지만 만리 길을 갈 사람은 석달 양식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학부형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의 안목도 한몫 했으리라 사려된다. 이렇게 지난 한 과정을 겪은 본교는 현재 이용선(李溶善)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교감선생님과 47명의 선생님, 8명의 서무과 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1971년 9학급으로 출발, 현재는 24학급 총 1,112명의 재학생이 있는 큰 규모에 이르렀다.

본교는 『민주시민 정신이 투철하고 미래사



회를 슬기롭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력을 지닌 밝고 건전한 여성을 기른다.』는 교육목표아래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특색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학습방법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지적 수준의 향상은 물론, 현대 물질문명사회에서 자칫 간파하기 쉬운 ‘바른 예절교육’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운말 쓰기’, ‘공손하게 인사하기’, ‘단정한 용의 갖추기’등의 실천과제를 설정, 담임교사의 일일 훈화교육, 명상의 시간 운영 및 주1회 예절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비디오 상영등 시청각 자료 이용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바른 예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개교 초창기부터 각종 체육대회 및 강원도 종합 실기대회에서의 입상 실적이 우수하여 타학교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체육 육성종목은 농구와 육상이다. 지도교사와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높은 입상 실적을 올려 학교와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했다.

농구부는 93년도와 94년도, 강원도 소년 체육대회에서 각각 3위에 입상하였고, 육상부는 93년 7개의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권에 다수 입상한 바 있다. 94년도는 현재까지 4개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특히 강원도 소년 체전 800m부문에서 2위에 오르는 우수한 실적을 쌓았다. 그러한 결과 본교의 학생이 전국 소년체전 육상부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문예, 무용, 미술, 음악분야의 약 17개정도의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수상실적을 올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특히 강원도 종합실기대회에서는 93년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1개, 94년엔 회관에서 개최, 그 동안의 갈고 닦은 학생들의 기량을 펼쳤다. 매년 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행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음에, 청초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로서의 ‘청초호 주변 쌍천 다리부근의 환경 가꾸기’에 학생들의 환경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원재활용의 시범학교로 쓰레기 분리 수거와 우유팩 모으기(1달에 1회수거, 수거분 6,000여장, 휴지 600개와 교환)는 오래 전부터 생활화 되었다.

또한 날로 심각해져가는 인간성의 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덕성 회복의 기초가 되는 양서(良書)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급당 60여권정도의 학급문고가 배치되어 있고 매주 2시간씩 독서시간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독후감상문을 모집하여 시상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독서의욕이 향상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인사 및 단체들의 장학금 지원(연간 9백여만원정도)으로 매년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해내고 있고, 지난해에는 속초여고 수석합격을 배출해 낸 경사가 있었다.

학교는 모름지기 지역사회 기둥의 양성소요, 지역사회발전의 모태가 되는 곳이기에 열

악한 환경을 딛고 지역사회와의 발전적 연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날로 번창해가는 학교 규모에 비해, 학교부지가 협소하고, 부대시설등이 미비한 관계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속초여고 옆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동문 및 현재 재학생들은 그동안의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이어서 서운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큰 용지의 미래의 주인공들을 키우기위해 보다 더 나은 환경에 마련되어야 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

속초관내에서 타 학교보다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감내해야 할 불편도 많았던 바, 그렇기에 동문들의 애교심과 학교를 위한 노력이 각별했다. 해마다 거르지 않고 학교행사에 참여하여 후배들의 밀거름이 되어주었고, 어려

운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의 학비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의 미담 어린 노력들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내년에 학교의 신축건물 이전을 앞두고 교사, 학생, 동문들의 마음이 서운하면서도 설레인다. 아마도 재도약을 위한 크나큰 각오로 임하고 있으리라 본다. 처음엔 다소 어수선하고 미비한 점이 많을지라도, 처음의 늦깍이로 서의 고생 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전보다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설악’이라는 명성만큼이나 그 값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문 및 학부형,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질책과 애정 없이는 학교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늦깍이의 대기만성을 위해 많은 성원을 바란다.

■ 창작시

# 올 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누나가 밀어주는 세발자전거로 학교 다니는

남진이,

12색 색연필로 매일 줄긋기를 해도

여전히 빼뚤게 금 그어놓고

웃어대는 상호,

전교생이 애국조회 서는 월요일 아침

창문턱에 올라서서 제 박자 맞춰

애국가 부르는 영자가

꽃밭에 잡초를 뽑고 있다.

박선생님이 몇번이고 알려주건만

자꾸만 봉숭아, 분꽃을 잡초라고 뽑아내는

7학년 3반 아이들.



채 재 순

어젯밤 내린 장대비에

옆으로 누워버린 과꽃 줄기를

뇌성마비로 뒤틀린 손과 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남진이 이마에

송글송글 맷힌 땀방울.

올 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 \*약력\*

- 강원 원주 출생
- 춘천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국문과 졸업
- 설악문우회 회원
- 현) 청호국민학교 근무

■ 창작시

## 어머니의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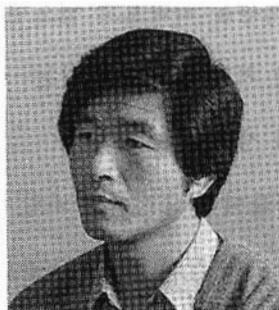
어머니의 잠을 보았습니다  
산맥을 거느리지 않은 산  
그 산처럼 고단하여  
일어나지 못합니다.

부엌문 뒤란문 열어 제키고  
텔레비전 형광등 켜놓고  
잠드신 어머니  
숨소리 젖가슴께로 모아서  
그 출렁거리는 젖가슴도  
방바닥에 내려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잠은 깊은 숲 속  
아무도 헤집고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면  
내 잠을 혼들지 않고  
편하게 옮겨주시던 어머니는  
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깨어 계시던  
잠드셨어도 반쯤은 깨어계시던  
잠들줄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문 죄다 열어놓고 주무십니다.

참고 견뎠던 어머니의 졸음이  
풀씨처럼 작아서  
그것이 졸기를 뗀고 잎을 벌리는 동안  
들판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어머니의 잠을  
눈치 채지 못합니다.



김 춘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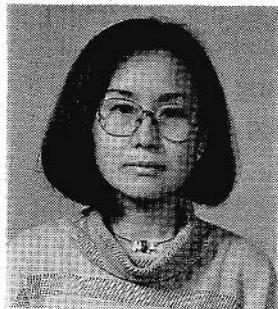
### \*약력\*

- 강원 고성 출생
- 관동대학 행정학과 졸업
- 한국 문인협회 회원
- 현) 고성 초계국교 근무

■ 창작시

## 새들은 꿈꾸고

광산 별판을 바라보고 있으면  
등지만 치고 돌아오지 않는  
새들이 생각난다  
소나무들끼리 술렁이는 바람 속  
뒷배경으로 물러앉은 아스팔트길에  
진부령 새벽을 희끗희끗 묻힌  
자동차들이 달린다  
별판을 노부모 품에 맡긴 채  
논밭을 가르고  
황홀한 네온의 허구 속으로 달릴 때  
도시로 먼저간 새들은 이 들녁을 꿈꾸리라  
찌든 벌레를 쪼아대던  
짧은 부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선잠 든 듯  
봄꿈처럼 쏟아지던 별빛을 받는 양  
헛날개짓 하다가  
이 별판 위로 이미 날고 있으리라  
저녁마다 붉은 그림자 드리우는  
이 등지 위로



지 영 희

### \*약력\*

- 1957년생
- 설악문우회 회원
- 현) 고성 광산국교 교사
- 주소 : 속초시 금호동 서울대  
명2차APT 2동1009호

■ 창작시

## 한계령 지나며

한계령 오르는 무거운 버스의 차창에  
후드득 빗방울 듣네  
대청봉 잔설로 질기게 남은 겨울  
휙어이 휘어이 물러서라고  
누군가 한 줌 움켜 후드득 내 뿌리네

이제 막 딱딱한 등결 안에서  
곱은 손을 꺼내 펴는 잎들  
어깨 한껏 움츠려 진저리치더니  
제 물 만난듯 왁하니 터져 나온 초록  
참말 창창하구나

오래도록 그리 아무말 않더니  
누군 갑갑증이나  
불쏘시개 장작 끄트머리처럼  
까맣게 타버릴 동안에도  
신선처럼 견디더니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  
초록 연두 만으로 이룬 산 숲의 장관  
굳은 혈관이 부풀고 어디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  
이 골짜 젊은 땅꾼의 아낙  
맨발이 밟고 간 자리에  
내 마른 콩 한 알 떨군다.



김 영 미

### \*약력\*

- 1965년 강원도 출생
- 춘천교육대학 졸업
- 현) 상평국민학교 재직,  
설악문우회원

■ 창작시

## 그녀는 4벌식 타자기를 두들긴다

나이 스물 아홉

공인 일급 타이피스트

워드 컴퓨터활자가 먼저 뽑혀 나가는

민원 서류처럼

쉽게 지목되는 여자들 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자



서 귀 옥

그녀는 4벌식 타자기를 두들긴다

두건의 이혼 소송 접수 후

풀린 먹끈

떨어져 나간 받침 활자

구판 타자기의 오랜 혼들림을 바로 잡고

나서면

컴퓨터 부분처럼 복사 잘 된

\*약력\*

여자들 옆에

• 1966년생

키 큰 그림자가 따라 붙고

• 설악문우회 회원

잊혀지는 공인 기록처럼

• 현) 법무사에 재직중

작아지는 그녀 옆에는

키를 맞출 수 없다고 지나치는 사람들 뿐

넘어가는 해를 밟고

그녀는 여전히 일자결음을 걷는다.

■ 창작시

## 연(鳶)

아이들이 창가에서 연을 날린다.

먼 훗날 자기를 자꾸 날려 보낸다.

목쉰 내 노래 소리 들리던 창가에

내가 날리던 연은

어디쯤서 혼자 떠 있을까

도시 하늘 낯달로 멀고 있을까?

잉잉 대는 전선꼴 맨발 피리불고 서 있을까?

청봉 푸른 솔가지 깃발되어 펼력일까?

열여섯 비망록에 새긴 약속들이

놓쳐버린 새가되어

종일 내가슴 속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창가에서 연을 날린다.

슬픔처럼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을

자꾸만 날려 보내고 있다.



권정남

### \*약력\*

- 설악문우회·산까치시인의 집 동인
- 시집 「속초바람」
- 주부
- 주소 : 속초시 교동 럭키설악타운 APT 1동507호
- 전화 : 33-8847

## 雪嶽圈觀光特區指定에 따른 後續措置等 對應方案



김 희 철

- 속초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속초지역개발연구소 총무이사
- 속초시민협의회 사무총장

### 1. 問題點 및 實態

- 우루과이라운드 妥結은 우리國民들에게 적지않은 繫迫感과 衝擊을 던져준것이 事實입니다. 先進國의 經濟專門家들은 世界가 90年代 접어들면서 國民經濟의 開放化, 世界化를豫測하고 이에대한 徹底한 對應策을 講究하고 있었던것도 事實입니다.
- 及其也是 7年間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끝에 빠르면 오는 95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帆하게 됩니다. 지난 1947년 탄생된 關稅 및 貿易에 대한 一般協定(GATT)은 상호관세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自由貿易環境을 위해 노력하여왔고 그러한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맺어준것도 事實입니다.
- 더욱이 WTO출범으로 韓國經濟의 國際화가 政府의 保護壁을 基調로 하였으나 國際化는 그러한 保護壁이除去된 基調위에서 無限競爭속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유럽경제권(EU), 북미경제권(NAFTA)과 함께 東北亞에도 經濟協力體制가 構築되어, 우리나라, 中國, 日本, 러시아등 環東海圈에 속하는 4個國間의 地域協議體가 構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經濟 및 社會가 本格的으로 글로벌化하고 있어 이제 競爭은 단순히 經濟問題뿐만 아니라 社會全體를 포괄하는 競爭체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 특히 江原道는 지리적으로 휴전선과 접경을 이루고 있고, 지형적으로 道面積의 82%가 산지를 이루고 있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도 전제 江原道面積의 約 56%를 차지하는 山林保全地域을 포함, 自然 園法 및 문화재 관리법등 규제에 둑여 江原道의 개발 가능면적은 約 13%선을 상회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리한 환경적 여건을歎息만 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지난 94년 8월31일 속초시(전역 : 104.9km<sup>2</sup>), 고성군(신평, 인홍, 용촌, 봉포, 원암 : 42.2km<sup>2</sup>), 양양군(강현일부, 낙산도립공원 : 1.5km<sup>2</sup>) 3個市郡 都合 148.6km<sup>2</sup>가 觀光特區로 指定되었습니다.
- 東草의 觀光特區指定은 雪嶽圈을 中心으로한 東草圈이 國際的 觀光地로 跳躍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영동북부지역은 바다, 산, 호수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엄청난 제약과 규제때문에 효과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2. 向開發方向

- 관광특구 지정으로 정부의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天佑神助로 지난 94년 10월21일 미국과 북한간의 핵 협상이 서명됨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 설악권과 금강권을 연계한 개발에 관한 종합 적이고도 실효성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또한 '94년 7월에 제시한 環東海圈 카르텔구상의 실천으로 94년 11월8일 강원도와 중국길림성, 日本 둇도리현, 러시아연해주등 환동해권 4개국의 지사가 참가하는 지방정상회의가 이곳 東草에서 열리게되어 環東海時代의 交易 및 觀光의 中心地域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관광특구지정이 속초지역과 고성, 양양 일부지역이 포함되어있어 영북지역을 1

個圈域으로 묶어 廣域圈 綜合開發 計劃을樹立, 시군단위 개발에 따른 증복투자와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國際化時代에 따른 競爭力 있는 國際的 觀光地로 開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3. 向後期待效果 및 後續措置

### 1) 金融機關與信運營規程 緩和 展望

#### (1) 實 態

- 政府에서는 92년 2월21일 숙박업소에 대한 「여신운영규정」금지대상 확대로 한정된 금융자금을 생산부문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당면 과제인 產業全般의 競爭力強化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 건평 100m<sup>2</sup>(30.3평) 또는 때지 330m<sup>2</sup>(100평) 초과 대중음식점(단;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제외)

#### • 주점업

-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업과 여관업 및 콘도미니엄(단; 제주도소재 업소와 대전EXPO 지정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임)

○ 1994년 4월및 6월2차 전의

#### (2) 緩和展望

- 交通部는 지난 94년 8월말 지정고시된 「설악권」등 5개관광특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를 지역내 토지매입을 비롯, 오피스텔, 스키장, 유원지 건설또는 매입, 국민 및 가족호텔업, 콘도미니엄

○ 건평 100m<sup>2</sup> 또는 대지 300m<sup>2</sup>를 초과하는 영업장(식당업, 숙박업, 전자오락실, 헬스클럽등)에 대한 여신규제를 오는 95년 1월부터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또한 정부는 94년 1월 국내관광 산업진흥을 위해 국내 11대 기업군까지 관광시

설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한데 이어, 95년부터는 나머지 10대기업군에도 이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어서 95년부터 골프장, 스키장, 오락 씨 비스업 및 관광 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에 진출할 수 있고 이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취득도 가능하게되어 대기업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 1) 綜合的인 陸·海·空 交通網 構築展望

#### (1) 展望 및 實態

○政府에서는 社會間接資本(SOC)시설에 대한 「民間資本誘致促進法」이 94년 11월 16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설악권으로 접근하는 교통망건 「속초신공항건설」, 「동서고속전철」, 「북부고속도로」등이 국내 중견 건설업체들의 「SOC권소시움」이 형성되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외에 인제, 홍천을 경유한 미시령 도로의 4차선화 및 터널화, 속초-포항고속도로건설, 항만개발과 속초-춘천 해운항로 개설, 설악산 모노레일 건설등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 3) 설악권의 관광시설을 대폭확충

○설악권의 관광시설을 대폭확충하고,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등 3개시군을 한데묶어 광역화하여 스위스 선진국형 케이블카, 해양 박물관, 산악민속촌, 산악박물관등을 건립하여 산과 바다를 연계한 이벤트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4) 관광세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함

#### (1) 추진이유

○정부에서는 국토7개광역권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원도는 국민여가지대로 선정

○국토7개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강원도의 국민여가 지대에 대한 개발방향과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

○도내 관광자원에 대해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기위해서는 재원조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현재로서는 정부개발 우선순위에서 도내 관광개발이 밀릴 우려성이 있음.

○따라서 현안사업중 가장 중요한 접근도로망 확충 및 충분한 휴식공간 마련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관광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인 관광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 (2) 추진전망

○내무부에서는 지난 '94년 10월12일 지방세정을 일대 쇄신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민세, 면허세등 정액세를 물가에 맞추어 연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등 10대 개혁대책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과세도 포함 추진하며

○그동안 강원도 및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제기해온 관광자원세를 지방자치시대의 재정확충을 위한 신세원 개발차원에서 지방자원세를 지방세목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5) 제주도와 같은 「개발특별법」 제정 시행이 시급

#### (1) 제정이유

○속초시의 전체면적이 104.9km<sup>2</sup>로 지극히 협소한 면적이면서도 53%에 해당하는 55.8km<sup>2</sup>가 국립공원에 속해있어 개발가용면적이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공원법」에 묶여 절대적 개발이 불가합니다.

○동법이 공원법등 타법에 우선하여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 국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나 지

역주민의 우선고용, 보전지구선정등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적법절차를 밟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 6) 설악권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할 후속조치사항.

(1) 설악권 전역을 청결하게 정리, 정돈해야 하며, 친절, 질서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2) 청소년 유홍업소 출입금지등 업소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천노력해야 합니다.

(3) 「음식」에서부터 「관광상품」에 이르기까지 특색있게 개발하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야합니다.

(4) 중앙정부의 홍보대책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자체홍보물을 제작하고, 제반간판을 정갈하게 국

제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설악권 시가지를 깨끗하고 꽤적하게 정비해야 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이 없는 친절한 관광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6) 구수한 향토색이 짙고 호감이 가는 관광지, 인상적이며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 이미지를 갖도록 전주민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7)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경찰업무 폭주가 예상되므로 자율방범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설악권의 관광특구 지정이 이 지역 발전도약의 전기를 마련, 전주민들의 총체적 슬기와 힘을 결집하여 사치스러운 말보다는 실천적 행동이 앞서는 자세로 자신들의 의식구조를 일대 전환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 東草의 아바이와 또순이



李泰亨

- 前 高城高等學校校監,  
東草教育廳獎學士,  
江原道民防衛隊精神教育講師
- 現) 東宇專門大學 講師,  
東草文化院 理事,  
嶺北地區咸北道民會理事

1950年 10月 “白頭靈峰에 太極旗를 펴고 豆滿江水에 戰勝의 칼을 찢자.”라는 北進統一의 口號를 絶叫하면서 北進한 國軍에 依해 自由를 찾은 咸鏡道民들은 殘酷한 共產虐政에서 벗어나 歡喜에 찾지만 그해 11月末 中共軍의 介入으로 因해 勝共統一의 祝祭를 눈 앞에 둔채 作戰上 臨時後退라는 當局의 命令에 따라 눈보라가 휘날리는 12月 下旬興南埠頭를 비롯하여 各海岸 一帶에서 家族까지 남긴채 單身으로 大型 輸送船에 또는 帆船에 몸을 싣고 겨울의 萬頃蒼波와 싸우면서 自由를 찾아 南으로 南으로 南進을繼續하였다. 멀리는 巨濟島에 釜山과 慶尙道 그리고 江原道 南部海岸 等地에 臨時定着한 그네들은 낯선 他鄉에서 추위와 배 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다. 一行中 青年들은 自進國軍에 入隊 反共戰線 出征 하였고 壯年들은 軍屬으로 敵陣에 浸透하며 敵情을 探索하는 等 크게 獻身하였다. 1951년 戰勢가 好戰되자 그네들은 저마다 自己人生의 모진 曲折과 波瀾을 겪으며 風浪속에 휩쓸린 풀잎 처럼 들볶이던 끝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故鄉에 먼저 가겠다는一念으로 北進하는 國軍의 뒤를 따라와 定着한 곳이 바로 이곳 東草인 것이다. 故鄉하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이곳에 恨많은 避難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다. 戰亂으로 荒廢化된 이곳 青草湖 砂州 모래 空間에 板子집을 짹째이 짓고 아바이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 잡고 또순이들은 生鮮수레를 끌고 밀면서 삶의 터전을 알뜰히 닦았다 헝그리(hungry) 精神을 發揮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쉴사이

없이 비지땀을 흘린 그네들은 언젠가는 相上의 灵魂이 숨쉬는 故鄉에 統一의 波濤를 타고 갈것이라는 굳센 信念이 서있었기에 6·25의 痛恨, 참기어려운 望鄉의 苦痛等 갖은 逆境을 克服하면서 收復地區再建에 온갖 精誠을 쏟았던것이다. 素朴하고 勤勞를 重要視하는 아바이와 또순이 精神이 바로 이곳 市民精神으로 升華되어 東草開發의 에너지 供給源이 된것이다.

赤手空拳 땅으로 無에서 有를 創造한 그네들은 폭 協調的이고 奉仕精神이 旺盛하다 그래서 東草市는 그네들이 原住民과 易地思之하면서 脣齒之勢로 한데 凝集하여 이룩한 協力體制의 값진 共同作品이라고 東草市史는 評價한다. 情緒와 浪漫이 잘 調和되어 아름답게 展開되는 이곳 青草湖畔에 安住의 터전을 닦은 아바이들은 남달리 教育熱이 높다. “물 장사 하면서까지 子息을 工夫시킨다”는 咸鏡道의 傳統的慣習에 따라 徹底하게 後世教育에 온갖 精誠을 投資함으로서 現在 그 後孫들은 良質의 教育을 받아 各分野에서 各已誠實하게 所任을 遂行하고 있다.

언제이던가?

가을 丹楓이 곱게 들 무렵 東草公設運動場에서 市內 國民學校 蹴球大會가 있었는데 어린學生들이 뛰는 場面보다 應援戰이 더 재미 있었다. 특히 青湖國校 應援團이 觀衆들의 눈을 끌게 되었다.

學父母들의 一系不亂한 應援姿勢 잘 지켜지는 秩序. 이날만은 모든 일손을 놓고 모여든 아바이와 또순이들 모두 손에 손에 들고온 各種 飲食物 참 흐뭇한 光景이었다. 青湖國校팀의 優勝이 確定되자. 天地를 震動하는 喊聲 “이겼지비. 이겼지비” 童心으로 돌아가기뻐하던 그 模習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는 그날 어쩐지 氣分이 좋아 아바지親友와 늦게까지 燒酒마시면서 시원하게 懷抱를 풀었다. “아득한 千里길 故鄉은 먼저 저녁에 우는 鐘은 처량도하다. 나그네의 외로운 燈불가에는

그리운 내 故鄉에 그리운 내 故鄉에 가고 싶구나.” 望鄉의 노래를 눈물섞인 목소리로 부르면서 가슴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 “青湖國校가 이겼다지. 아바이 2세들 억세지. 아바이들은 北에서 나올때 억센아들을 만드는 機械를 밑에 달고 나온것 같애”라는 酒店의 토박이 할머니의 구수한 弄談으로 더욱 餘興을 듣우면서 말이다.

아바이와 또순이들은 이곳에 進取의 開拓精神만 심어준것이 아니라 咸興冷麵, 明太, 통심및 오징어 순대等 咸鏡道의 食品文化를 傳 함으로서 市民과 觀光客들의 嗜好食品으로 脚光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인가? 아바이 마을잔치에서 큰 나무함지에 담은 찰떡을 식칼로 굽직굽직 베어서 주는 찰떡 맛이 야말로 정말 逸品이었다. 진짜 故鄉의 떡맛이었다. 어느해 가을 아바이 마을에 先輩님(李太極學兄)을 찾아간 일이 있다. 그때 가는 途中 門을 활짝 열어놓은 조그마한 板子집 房을偶然히 바라보면서 놀란일이 있다. 그것은 壁에 아무렇게나 붙어있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뚱배가 많은 사람을 싣고 浦口에서 손을 흔드는 老人네들의 作別을 받으며 떠나는 場面의 그림이 아니겠는가! 바로 50年 12月 아바이와 또순이들이 老父母를 남긴채 모두들 눈시울을 적시며 白雪로 덮인 咸鏡山脈을 뒤로 南으로 南으로 自由를 찾아出帆한 그 悲壯한 場面의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문득 美國畫家인 “보든”이 그린 “메이플라우어號의 歸帆”的 名畫가 머리에 떠 올랐다. 1620년 12월 102명(巡禮始祖)의 英國清敎徒들이 自由를 찾아 新大陸에 갔지만 餓餓와 疾病 인디언들의 襲擊等으로 많은 사람이 失踪되었으며 특히 女子 18名中 2名만 生存하게 된 切迫한 狀態에 이르자 1621年 4月 메이플라우어號의 船長은 亡命客들에게 本國으로 돌아가자고 懲懲하였지만 그네들은 頑強히 拒否 함으로써 不得已 그 船長은 배머리를 들려 가슴의 痛症을 먹누르

면서 歸國하였는데 그때 浦口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배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드는 그 슬픈 作別의 光景을 그린 그림이 바로 “보든”的 名畫 “메이플라우어號의 歸帆”이다. 그後 그네들은 萬難을 克服 素朴하고 禁慾의 이며 勤勞를 重要視하는 進取的 開拓精神으로 오늘날 美國의 國基를 다진 巡禮始祖라는 것을 우리들은 文化史를 通해 잘 알고 있는 史實이다.

美國의 “필그림 파더즈”와 같이 아바이와 또순이 들도 不遇한 逆境을 슬기롭게 克服하면서 비지땀이 배인 作業服을 입고 주야로 뛰고 또 뛰었기 때문에 오늘날 東草의 開拓者로 推仰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7月8日 金日成 死亡의 特報를 들은 이곳 아바이들은 “아바이, 아바이 이제는 故鄉에 가겠지비. 가겠지비.” 서로 慰勞하면서 드높게 祝杯를 들었다. 40余星霜 이미에 깊이

파인 주름살을 펴면서 환히 웃고 있었다. 素朴하고 부지런하고 眞率한 그네들 反共前哨基地의 徹底한 把守兵으로서의 그네들에게 하루속히 統一의 波濤를 타고 신나게 北으로 北으로 航進할 날이 다가오기를 祈願한다.

지난 50年 12月 그네들은 帆船에 몸을 싣고 추운겨울의 눈보라를 헤치고 自由를 찾아 南下하였지만 이제는 確固한 經濟基盤을 生活環境이 潤澤해진 그네들은 帆船, 代身 發動船에 越南 2世와 3世들을 그리고 自由의 賦物을 가득 싣고 꿈에도 잊지못할 故鄉으로 힘차게 航進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故鄉의 봄”을 즐겨 부르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장한 그대들! 그 高貴한 精神으로 後孫들에게도 挑戰과 克己와 可能性을 심어주소서 언제나 좋은날만 되소서. 그리고 각家庭마다 福祿壽의 榮光이 가득 하소서.

■ 특별기고 ■

## 그리운 내 고향 종성(鍾城)



오 윤 근

- 속초시 교육청 장학사
- 속초고등학교 교감
- 속초문화원 이사

나는 누구냐고 나에게 고향을 물어오면 고향 이름에 부연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곤한다. “우리 나라 최북단, 두만강 변에 위치한 내 고향 종성은 조선조 세종 임금 때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김종서 장군이 6진을 설치한 곳이라고…”

종성이라는 고장이 우리 나라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함경북도 도청 소재지인 청진에서 기차로 험준한 부령고개를 넘고 구렁이 틀고 앉은 뼈리처럼 꾸불 꾸불 돌아가는 뼈리 굴을 지나 2시간 가량 북으로 가노라면 왜정때 일본군 제2 비행 사단이 있어 군사적 요충지이며 미인으로 소문난 회령읍에 이르게 되는데 회령읍을 지나 두만강을 원편에 끼고 1시간 가량 계속 북으로 달리노라면 내 고향 종성에 다다르게 된다.

두만강 변에 자리잡은 조그마한 고을 종성은 회령군과 온성군 사이에 놓여있으며 두만강을 경계로하여 만주와 접하고 있는 한만 국경 지대의 소도시이다.

원래 종성은 옥저의 땅이였었는데 고구려가 세력을 빼쳐 영토를 넓혀가던 광개토대왕때 고구려 영토에 편입되었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들어선 후로는 발해의 땅이 되었었다. 발해가 멸망하면서 통치의 공백이 생기되자 여진족이 몰려와 살면서 수주(愁州)라고 불렸다. 고려 말기에는 금愧천호(金牌千戶)라는 여진 벼슬아치가 인근

의 동전산성(潼巾山城)에 응거하여 이지방을 다스렸다고 한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북방정책에 따라 세종 임금때 함길도 절제사로 제수 받은 김종서 장군이 여진족을 두만강 전너로 내몰고 부령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등 두 만강 유역의 6개 마을에 6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는 영호남지방에서 학식있는 양민을 이주시키면서 납세와 병역면제의 특혜를 주었었다.

1895년 고종 32년에 실시된 지방관제 개정으로 시 군으로 개편되어 함경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북괴는 6·25사변 이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종성군을 없애 버렸으니 지도에서 그 이름조차도 찾아 볼 수 없게되었다 무슨 까닭에서인지 북괴로 6개년으로 편성되어 있는 종성군을 갈기 갈기 조개어 인접한 4개 군에 나누어 편입시켜버렸으니 고향을 두번 잊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내 고향 종성에는 두만강을 가로질러 만주로 연결되는 철교가 놓여 있어 왜정때부터 북간도로 들어가는 관문 구실을 하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종성은 겨례의 울분과 한숨으로 얼룩진 슬픈 역사를 지닌 고장이기도하다.

일본 놈들의 수탈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는 살길을 찾아 무턱대고 미지의 땅 북간도로 보따리를 이고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끌어 수많은 우리 겨례가 이 다리를 건넜었고, 빼앗긴 국권을 되찾아 보겠다고 항일투쟁을 벌이던 많은 독립 투사들이 일본 경찰에 쫓겨 이 다리를 건너 기약없는 망명길에 올랐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민족적 비운을 깨닫기에 너무 어린 철부지들에게 두만강은 더 없이 친근한 벗이며 즐거운 놀이터이며 활력과 꿈을 불어 넣어주는 생명의 원천이였다.

여름엔 혜엄을 칠 수 있고, 배를 타며 즐길 수 있고, 고기를 잡고 물 놀이하며 뛰놀 수 있었으니 두만강은 가히 어린이들의 낙원이

였다.

해가 뉘엿 뉘엿 서산에 기울면서 저녁 놀이 붉게 물들 무렵이면 강 바람에 하늘거리는 벼드 나무 사이를 밀어를 속삭이며 다정하게 거닐던 젊은 연인들에게 두만강은 낭만과 꿈의 요람이였다.

겨울이 되면 겨울대로 두만강은 스릴있고 활기 넘치는 활동의 무대가 되어주었다.

널 쪼각에 굽은 철사를 박아 만든 스케이트며 썰매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넘나들던 일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의 한 토막이다.

12월만 되면 강은 꽁꽁 얼어 붙었고 그 위를 마차며 자동차가 오르 내리며 짐을 나르는 광경은 한 폭의 풍경화라 하는게 적절한 표현이리라.

여름이면 혜엄을 쳐서, 또 겨울이면 썰매를 타고 자유로이 드나들던 만주땅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던것은 만주가 그 옛날 우리 땅이였기 때문이리라.

내 고향 종성의 특산물로는 삼베를 꼽을 수 있다. 집집마다 삼 밭이있어 8월초만되면 9척 같이 높이 자란 삼을 베어 단으로 끓은 다음 가마에서 쪄내어 개울 물에 담궈 놓고는 껌질을 벗기느라 온 마을이 부산을 뗈다.

추수가 끝나고 초겨울이 되면 아낙네들은 안방에 모여 앉아 삼을 삼으며 밤 새는줄 모른다.

건 껌질을 벗겨낸 긴 삼을 입에 물고는 이빨로 그 끝을 잘 다듬고 손톱으로 가늘게 쪼개어 무릎에 대고 비벼서 실을 만드는 지루한 일을 겨울내내 되풀이한다.

모내기가 끝나고 초여름이 되면 집집마다 사랑채에서는 베를 매느라 법석을 냈다. 베실을 물레에 자아서 실타래와 실꾸리를 만들고, 늘어놓은 날줄에 풀을 먹인다음 바디에 퀘어서 도투마리에 감느라 부인들의 손길이 바빠 움직인다.

헛간에서는 남정네들이 베틀을 차려 놓느라 분주히 들낙거린다. 두개의 누운다리에 앞

다리와 뒷다리를 맞춰서 세운다음 움직이지 않도록 가랫장이로 단단히 고정시키느라 쟁기 소리 시끄럽다.

차려 놓은 베틀에 도투마리를 올려놓고는 잉아를 걸어서 말코에 걸어놓으면 베짱 준비는 끝난다.

아침 설걷이가 끝날 무렵부터 마을에 베틀 소리가 울려 퍼진다.

부엌일을 끝낸 부인들이 혀간에 차려놓은 베틀의 앓을깨에 걸쳐앉아 부티를 허리에 두르고 베를 짜기 시작한 것이다.

베틀신대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베틀신을 발에 신고 앞으로 끌어 당기면 용두머리가 “뻑”하고 돌아가며 눈썹끈을 당겨준다. 당겼던 베틀신 끈을 풀어주면 용두머리는 제자리로 돌아가며 “꺽”하고 울어댄다. 치켜올려졌던 눈썹끈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뻬꺽” “뻬꺽” 울어대는 베틀 소리 사이 사이로 실꾸리가 들어있는 북은 날줄사이를 쉘새없이 번질나게 드나든다. 북이 드나들 때마다 “철꺽” “철꺽” 내리치는 바디소리 조화를 이루어 오수에 젖어드는 농촌의 정막을 사정없이 깨뜨린다.

이와같이하여 수없이 많은 잔 손질로 공을 들여 짜낸 11새 고운 베로 셔츠며 반바지를 지어 입고 기뻐하던 일이 아득한 옛날의 딴 세상 일처럼만 느껴지는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다.

종성은 인심 좋은 곳으로도 소문이 나있다. 순박하고 성실함은 그 특유의 사투리에서도 느낄 수 있으리라.

종성 지방 사투리의 특징중 하나는 자음 “ㄷ”과 “ㅌ”이 구개음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천(天)”을 “하늘 턴”으로 “따 지(地)”를 “따 디”로 발음하니 처음 들으면 꽤나 우습게 들린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독특한 어미(語尾)를 들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를 “안녕하심둥?”으로, “그렇습니다”를 “그령스꾸마”로, “빨리 오십시오”를 “빨리 옵씨”와 같이 …등, …스꾸마, …찌등의 함경북도 회령 이북 지방의 독특한 사투리는(여진족의 영향이라는 설도 있으나 확인되지않음) 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친근감을 주는 말투인데 월남한 이후로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하여 아쉽기만하다. 6·25 때 북진을 계속하던 유엔군과 국군이 청진을 지나 부령고개를 넘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후퇴하게되어 부령이북 지방에서는 월남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리라.

나는 고향 생각에 마음이 울쩍할때면 곧잘 고향 마을을 머리 속에 그려보곤한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흐려져가는 고향의 모습을 기억속에 불잡아 두고싶은 애절한 마음에서 생겨난 버릇이리라.

사실인즉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는 부모님이며 동기간의 모습마저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으니 분단의 40여년 세월은 우리 실향민에게 너무도 길고 견디기 힘든 시간임에 틀림없다.

내가 고향을 마지막 본것은 1950년 1월2일, 그러니까 6·25가 나던 해의 설 다음 날이다. 당시 학생이던 나는 보름간의 짧은 겨울방학을 고향에서 보내고 1월4일부터 시작되는 신학기 수강신청을 위하여 고향 집을 떠났었다. 그해 6월에 6·25가 터졌고 인민군에 끌려 가지않으려 함흥에서 이리 저리 숨어다니다. 10월에 국군이 북에 진주하게되니 이제 통일은 시간문제며 고향에 찾아갈 날도 멀지않았다고 기뻐하다가 난데없는 중공군 개입으로 국군이 후퇴하게되자 국군을 따라 12월에 피난 길에 올라 월남함으로서 실향민이되어 한 평생 고향을 그리며 사는 신세가 되었다. 24세의 젊디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났었는데 벌써 70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낀다. 망향의 한을 품고 살아온 긴 세월동안 나는 어느 한 순간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 잔 뼈가 굵었고 젊은 날의 꿈과 낭만을 키워준 그 포근한 품을 못내 잊을 수 없음은 고향을 그리는 모든 실향민들

의 공통된 심정일것이다.

넉넉잡고 석달이면 돌아 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떠나온 고향, 눈보라가 세차게 물아치던 추운 겨울 날 물밀듯 밀려 가는 피난민 대열에 미련 없이 끼어 들었던 피난 길이 44년이 되도록 돌아 갈 수 없는 단절의 길이 되고 말았으니 운명의 작난치고는 너무도 가혹하다.

전쟁이 치열하던 피난 초에는 조금만 참으면 고향에 돌아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그 모진 고생과 수모를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분단은 고착화시키는 휴전으로 전쟁이 끝나게되자 나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허탈감에 망연자실하였다. 빨리 통일이 되어야 고향에 계시는 할머님을 생전에 볼 수 있을 텐데하고 바라던 기대가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부서져버리는 그 아픔을 겪어 보지 않고는 해아릴 수 없을 것이다.

겨울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떠나 오던 날 차부에 전송나오셔서 내 손을 꼭 잡으시고는 놓지못하시던 할머님, “겨울방학이 왜 이리도 짧은고?”하시며 눈시울을 적시시던 할머님 모습이 지금도 생생이 떠오르며 제손을 잡으셨던 할머님의 따스한 체온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있다.

세월은 헛되이 흘러 할머님의 생존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때 나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터질것 같은 텅 빈 마음을 가다듬어 좀 더 느긋하게 통일을 기다리자고 스스로를 달랬었다. .... 아무렴 부모님 생전에야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겠지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망은 아랑곳 없이 세월은 무심히 흘러 44년이 지났으니 이젠 부모님 마저도 이 세상 분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지금 나는 남은 마지막 소원에 기쓰고 매달려있는 것이다. -내 죽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고향 산천을 밟을 수 있었으면 하고 말이다.

칠천만 겨례가 그토록 갈망하는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이 과연 어떻게 생겼기에이다지도 허물기 힘들단 말인가? 이념의 장벽인가? 아니면 체제의 장벽인가? 남들은 이념이나 체제의 벽을 쉽게 허물고 통일을 잘도 이루는 데 우리는 언제 이 분단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인가?

지난날 우리는 결핏하면 입 벼룩처럼 이렇게 말해 왔었다.-김일성이만 죽으면 통일의 실마리는 쉽게 풀릴거라고....

어느 풍수학자가 예언하였듯이 김일성은 갑작스레 죽었는데 갖가지 추측만이 무성할 뿐 통일이나 변화의 별다른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터져 나오니 안타깝기만하다.

김일성 장례에 조문단을 보내야 한다느니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해야 한다느니하며 떠드는 무리가 있었으니 말이다.

김일성 분향소를 차려 놓은 대학마저 있었더니 나는, 아니 500만 실향민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것이다.

8·15해방 직후 북한에 들어온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저지른 갖가지 만행을 똑똑히 보아온 실향민이기에 그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이다.

불법 무법 탄압 인권침해 학살등 그들이 저지른 죄과를 새삼스럽게 거론 하는 것은 오히려 진부하겠기에 접어두고 6·25를 일으킨 김일성이가 전쟁의 와중에 저지른 처참하였던 사건 한가지만을 적어 보기로하겠다. 그것만으로도 김일성의 잔악성은 충분히 입증될것이다.

1950년 9월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과 국군이 3·8선을 넘어 파죽지세로 북으로 밀고 들어오니 북괴는 후퇴하지않을 수 없었다.

정신없이 후퇴를 서두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마을마다 미리 작성하였던 요시찰인 명부에 따라 소위 반동이라고 멋대로 분류한 죄없는 사람들에 대한 예비검

속을 시작하였다.

마을마다 적게는 몇십명, 많게는 몇백명씩 체포하여 가두었다가는 그들이 마을을 빠져 나가던 전날 밤에 모두를 무참히 학살하였다.

국군이 마을에 들어오던 날 학살이 저질러 전 장소를 나는 우연히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

바닷가 솔밭의 폭격 구덩이에서 사람들을 쇠줄로 묶어 놓고는 삽, 풍등이, 칼등으로 살해한 그 현장은 도살장을 방불케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였다.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할것없이 자칫하면 나도 저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어찌 정든 고향인들 버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김일성의 죄음을 애도하고 추모하자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절대 권력을 거머쥐고 “인민”위에 군림하며 하늘을 이고 도리질하던 김일성으로서 죄음만은 피할 수 없어 황천객이되고 말았으니 북한 사회에도 모름지기 변화는 오고야 말것이다.

스탈린이 죽고난 후의 소련이 그러하였고 모택동이 죽은 중국이 지금 무섭게 변하고 있으니 북한의 변화도 시간문제 일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그 날이 바로 40여년간 못견디게 그리워 몸부림치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 특별기고 ■

## 아름다운 삶



백 운 화

### 美感

人間이 지니는 보람과 價値世界에 가장 貴하고 所重한 것 중의 하나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微笑지어 주고 차분함과 즐거움과 따스함을 느끼게 한다.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音樂의 멜로디를 들을 때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설 때 우리는 흐뭇한 滿足感을 느끼고 순수한 喜悅의 感情을 經驗한다. 美는 一種의 快感이다. 快感은 無關心한 滿足의 感情이다. 맛있는 飲食은 食慾을 滿足시키는 感覺的 快感을 느끼고 疲困한 몸은 끝 쉬일 때 平安한 快感이지만 모두 慾望을 滿足시켜주는 快感이다. 그러나 美的 感情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直接的 理解關係를 떠난 純粹한 快感이요 滿足이다. 그 自體가 하나의 즐거움이다.

道德과 宗教는 내가 나하고 싸우는 生活이요 내가 나를 이기려는 努力이다. 그러나 美와 藝術의 世界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世界다 善美의 對象에 陶醉하므로써 나는 나를 잊을 수 있고 現實의 醜와 惡에서 벗어날 수 있다.

美의 世界는 多彩多樣하다. 산들바람에 하느적거리는 한 포기의 연약한 국화꽃의 優美에서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서 散散이 조각나는 莊嚴의 美에 이르기까지 美의 種類는 豐盛하다.

이 고장 名勝地 雪岳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당시 이런 에피소우드가 있다. 某人士는 偉容한 그 絶景에 魅了되어 自

己도 모르게 溪谷의 물속을 옷을 입은 채 텁벙 뛰어들어 讚美의 詩人이 되었다고 한다. 偉容의 美는 자랑하고 優美는 좋아한다. 端雅한 몸가짐 洗練된 教養 맑고 깨끗한 精神의 美를 지니는 人品의 美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香氣를 發散케 한다. 이것은 外形에서 생기는 美가 아니고 內面精神世界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다. 오랜 刻苦를 通해 얻어지는 優雅하고 高貴한 아름다움이다. 篤實한 教育者 學者 참된 宗教人 卓越한 藝術家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다.

### 美感의 差

美學에서는 美感의 差異가 있다고 한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程度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美感에는 낮은 것과 높은 것으로 나뉘어 있는데 낮은 美感은 部分만 보는 데 利己의이다. 높은 美感은 全體를 把握한다. 調和를 이루고 所有權이 없다. 나무를 캐는 것 꽃을 캐어 가져오는 것은 낮은 美感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보고 느끼는 場所(職場이나 公園)의 꽃을 몰래 훔쳐다 自己집 방안에 꽂거나 花壇에 심어 혼자 즐기는 心情은 낮은 美感 때문이다. 언젠가 TV畫面에서 본 일이다. 이웃 日本의 職場女性들은 自己집 꽃을 會社內로 가져와 美化에 한몫을 하는데 우리는 그와 正反對 現象이라고 한다. 清掃한다고 방안 쓰레기를 바깥에 내다버리는 行爲車內 꽁초나 먼지를 아무데나 버리고 터는 行爲洗車污水를 마구 버리는 것은 自己美化에만汲汲대는 利己의 美感 때문이다.

이곳 雪嶽山은 四季節 登山人口가 끊임 날이 없다. 봄에는 賞春客으로 더욱 봄빈다 한데 稀貴種인 에델바이스가 누구의 손에 의해 마구 採取되어 減種의 危機에 直面하고 있다. 또 일부 下山客中에는 高山植物을 탐내어 배낭(룩작)속에 숨겨가져온다. 良心의 失踪이다.

親知 K씨는 下道門 入口에 位置한 荒蕪地開墾하여 樹木圈을 만들어 行人들의 休息處로 提供하여 주기도 한다. 側面에는 各種 꽃

을 심어 놓아 더욱 아름답다. 이것도 잠시 뿐 군데군데 뽑혀 나갔다. K씨는 말 한다. 移植된 꽃들이여 시들어 죽지 말고 다시 한번 활짝 그리고 곱게 피어 나라고 나 혼자 즐기는 快感 보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成就된 感賞意識이 아쉽다.

### · 美의 可塑性

個體가 힘을 받아 形態가 바뀐것이 그 偉力은 없어져도 본디 모양으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는 現象을 塑性이라 한다.

얼마전 이곳에선 道體典行事가 치루어졌다. 街路를 말끔히 整備하고 要所要所엔 수많은 꽃 箱子가 陳列되고 꽃타도 세워졌다. 荒廢된 곳도 산뜻이 丹粧되고 多彩로운 懸垂幕이 물결치고 市民의 秩序意識도 한층 높아졌다. 깨끗하고 親切한 거리만들기에 앞장선 自願奉仕隊의 活躍도 成功體典의 雾圍氣造成에 한몫을 했다. 너도 나도 한마음의 善意志였다. 環境의 아름다움 秩序의 아름다움 人情의 아름다움은 市民의 稽持였다. 이 아름다운 情景이 一時的 現象으로 받아 넘기기엔 너무도 아쉬움이 많다. 부디 이대로의 모습 아니면 좀더 나은 모습으로 뿌리내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 懸切하다.

그로부터 얼마간 지난 우리의 모습은 果然 어떠한가 整然했던 秩序意識은 行方이 묘연하다. 市中心을 좀 벗어나면 信號燈 無視하기 일쑤고 전널목 車線조차 안지킨다. 人道에 駐車하는 암체들이 늘어나고 不潔한 環境에 厥症마저 느끼게 한다.

또 아침 散策길에 나서 보면 湖水가엔 낚시꾼들이 모여 들어 忙中閑을 즐긴다. 邑가엔 附帶施設을 設置해 놓고 閑暇로 이 休息을 取하면서 깊은 思索에 잠기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론 狹小한 道路를 占領한 채 各種 車輛들이 無秩序하게 停車되어 步行에 不便을 주고 散在된 쓰레기는 湖水 美觀을 害친다. 여기저기선 방뇨의 惡臭가 코를 찌르고 路上一角에선 짚은이들이 아침 화투놀이가 벌어지고 술타령도 곁들인다. 몇몇은

아예 네 활에 퍼고 누워있기도 한다. 懶懶한 눈빛이 아침 햇살로 가려진다. 天惠의 아름다운 湖水絕景이 그들에겐 어떻게 비춰지길래 간직함이 없이 汚染을 自招케 하는 것일까? 아마도 눈이 어두워 寶具를 寶具로 볼 줄 모르는 것 같다. 아름다움의 追求는 希望일 뿐期待는 말아야 할 것인가 어제의 우리와는 判異한 모습들이다. 요즈음 들어 깨끗한 湖水 아름다운 湖水 만들기 한 목소리로 行政當局이 警告文 標示以後 平穩을 되 찾아 물새들의 樂園이 이루워졌다. 健全한 雷저文化 定着이 아쉽다.

### 三寶의 敎訓

老子는 나에게 세가지 寶物이 있다고 했다. 따뜻한 마음 儉素함 잘난척 하지 않음이다. 같은 文化圈에 屬해 있는 우리도 固有의 멋을 은근과 素朴에서 찾았다. 은근은 참이요 誠實이다. 情이요 따스함이다. 조용하고 고요함이다. 誠과 情과 靜이 一切되어 은근의 美를 이룬다. 素朴은 꾸미거나 거짓없이 생긴 그대로를 말한다. 걸치래 걸모양 않는다. 없으면서 있는척 모르면서 아는척 별것 아닌데 잘난척 하는 外華外飾함이 없는 것이다. 誠實은 人間關係의 아름다운 原理다. 誠實의 德은 他人의 人格을 尊重하며 所重히 對하고 남에게 따뜻한 말을 던질 수 있고 愛情的 關心을 기울인다. 남의 운命에 對해 깊이 理解하고 남의 不幸을 슬퍼하고 幸福을 祝福해 준다. 남을 속이지 않으며 害치지 않는다. 이것은 對人關係에 가장 아름다운 秩序요 當然한 姿勢이다.

只今도 社會 곳곳에선 따스한 정 서로 나누며 오손도손 보람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살아가는 主人公들이 아름다운 사연은 誠實의 열매인 것이다. 情이란 나눔의 德이 아니고 生命의 敎務라고 어느 篤志家는 말한다.

廉素함 이란 성철 스님을 따를 수 없다. 이 쑤시게 하나로 三個月 썼다고하니 過消費에 젖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또 한 예로 改新敎 元老 한경직 牧師도

只今껏 옷 한벌로 지낸다고 한다. 어찌다 새 옷 생기면 다음날엔 어김없이 他人의 손에 넘기곤 했다. 猥富들이 홍청대는 醜雜한 모습과 달리 儉素함과 나눔의 精神美는 우리에게 示唆한바 크다 어느 特파원 이야기론 잘 산다지만 英國에선 都市전 시골이건 곳곳에 카부츠세일 架設 市場이 열리는데 집에서 쓰다 버릴때가 된 中古物 外套 숟가락 食品 TV 라디오 藥音機 電蓄 等을 販賣한다. 新婚夫婦나 中年夫婦나 自己몸에 맞고 必要하면 형편에 따라 즉석에서 산다 분수에 맞게 카부츠 장터 찾는다 현 物件이나 내게 必要한 것이라면 서슴없이 다시 使用하는 알뜰살림精神이 生活화 되 있다고 한다. 또 하나 特異한 것은 비록 호주머니는 가벼워도 劇場을 즐겨 찾아 오페라와 연극 公演 鑑賞 한다. 東歐圈 나라들도 產業은 落後되도 文化水準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들은 文化를 모르고 藝術理解하지 못하면 先進國이 아니라는 觀念에 차있다고 한다. 우리도 자주 이런 機會를 接할 수 있지만 普遍化 되기엔 아직 이르다.

이제 우리도 思考方式과 價值를 變化시켜야 한다. 돈만 가지면 敎養이나 매너는 없어도 文化人이요 인테리로 둔갑되는 認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物慾보다 道德倫理와 文化에 對한 깊은 關心을 갖자 富의 蓄積도 不勞所得이 아니고 勤勉과 誠實 節儉에서 얻어야 한다.

謙遜은 自己卑下 만을 뜯하지 않는다. 남의 마음을 살피고 집어보는 것이다. 어디서나 淺薄함이 없이 虛勢 嬌態 부리지 않는다. 恒時自己不足을 느끼며 공부하는 모습이다. 國際競爭에서도 謙遜이 모든活動에 根幹을 두어야 한다. 自慢에 빠지면 落伍者가 된다. 혼히 21世紀를 情報化 時代라고 한다. 情報란 技術이나 機密에 屬한 部分만을 뜯하지 않고 人間關係 開祖改革도 말한다. 情報는 나도 가지고 너도 갖는다. 서로 交換이 이루어워져야 價值上승 하는데 人間關係가 圓滿하지 못하면 어렵다. 關係改善에는 무엇보다 謙遜한 姿

勢가 切實하다. 家庭教育에서부터 謙遜한 마음 갖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

### 아름다운 行步

집을 나서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간다. 짧은총은 脚線美라도 자랑하듯 짧은옷 즐겨 입는다. 그들이 거리를 潛步하는 모습은 늠늠하고 씩씩하다. 쭉 펴진 兩다리線美 발의 방향도 곧다 팔이 움직임도 自然스럽다. 洗練된 모습이 아름답기만 하다. 하지만 一部老年層 行步는 이와 다르다. 짧은 下體 휘어져 버려진 다리를 하고 갈짓자 걸음을 한다. 온전한 걸음으로 볼 수는 없다. 패션모델의 걸음걸이는 아니라도 좀 흥한 모습이다. 곧고 바른行步는 멋을 느끼지만 굽은 다리로 휘청대는 갈짓자 걸음은 모양새 좋지않다. 이같은 形象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느껴야 하나 近代라는 各分속에 拙速의 愚를 凡했고 事故도 유발했다. 原則에는 適當主義가 기승을 부리고 無定見한 欲求充足도 表出됐다. 結果에만 執着된 나머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式의 變則的 思考가 合理로 僞裝되기도 했다. 自己矛盾에 빠졌다. 이같이 흐틀어진 行步가 온전한 걸음이 아님을 깨닫게 된

다. 굽어진 오형 안짱다리로서는 美의 競演大會 조차 나갈 수 없다. 美의 饗宴에 參加하려면 資格要件이 必要하다. 단순 經濟票만 가지고는 幸福한 人生劇場 들이 갈 수 없단 중용票가 提示되야만 入場이 可能하다. 이것 또한 精神健康 記錄票 同時提出로만 發給된다. 精神과 物質 經濟와 道德이 균형과 調和를 이룰 때 健全한 生活 健全한 社會가 된다. 무릇 균형과 調和를 이루는 狀態 중용이라고 일컫는다. 중용은 萬物이 最高의 德이다. 아름다운 行步란 順序 지키고 기달릴 줄 아는 秩序意識 高價의 物件만 선호하지말고 自己 분수 알고 節儉하는 生活態度 學究의 精神姿勢 文化에 對한 깊은 理解 따뜻한 마음씨 謙遜한 人間性 우리함께 나누워 갖자 秩序의 아름다움 精神의 아름다움 藝術의 아름다움 心情의 아름다움 人品의 아름다움은 가꿀 수록 더 아름답고 幸福해 진다. 外形의 美 容貌의 美는 쉬 허물어 지지만 優雅한 人品의 美 高貴한 精神의 美는 결코 退邑되지 않는다. 美는 永遠한 기쁨이라고 英國의 키이츠는 노래했지만 美는 神祕의 女神이요 恍惚과 陶醉의 어머니요 기쁨과 滿足의 샘이다.

# 나비와 형수님



金 正 祐

## ■ 약력

- 大浦 공립보통학교 졸업
- 경향신문사 영북지구 주재기자
- 속초의 노래(신 강원도 아리랑) 작사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상에는 수만가지의 생물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생물체에는 각기 특유한 생명과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그중에는 영혼을 지닌 물체도 있는데 우리들 사람됨이 바로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자기의 존재가 자기만을 위함보다 남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의 소유자가 된다면 그것 이야기로 올바른 사람됨이라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우리인간은 귀중한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차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평생토록 자식을 보살펴 주시며 자식된자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것이 우리들의 인간 삶의 도리인 것이다. 남을 위하여 봉사함은 우리들의 진정한 인생을 꽂피우게하는 기초적인 단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모두 생각해보자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는가? 또한 자식이 부모님께 효행의 길을 걷고 있는가? 모름직이 인간은 자기가 커서 자기의 자식을 슬하에 두고 봐야 비로소 親子간에 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母情은 자기자식을 참되게 기르고 보호하는것 이외에 자식이 골백살 먹어도 우물가에다 내 새워논 갓난 아기모양 자식에 대한 관심은 항상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글을 여기에 엮어보기로 한다.

나에게는 四寸 형수 한분께서(80歲) 현재 동명동에 살고계시는데 슬하에 아들두분 따님한사람을 두었었다. 나이 많으신 시부모님과 남편을 모시고 안락하게 살아오던중 민족의 비극 6·25의 수난으로 남편을 잊고 큰 아들마저 이북땅에 빼았기게됐다. 그때부터 형수님은 홀홀단신 나이 많으신 시부모님과 어린 둘째아들과 딸을 보육하고 노시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며 살림을 꾸려나가자니 일상생활이 힘에겨운 일이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며 살아오던중 시아버지(필자의 샛째 막내三寸)께서 30여년전 돌아가시고

형수님은 그로부터 수년간 홀로되신 시어머님 모시고 어린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무척 애쓰며 살아오셨다.

그후 고등학교를 마친 아들은 군에 입대하고 외동딸은 시집을 보냈다. 이때부터 생활터전으로 쓰고있던 큰가옥을 여러개로 방을 만들어 방세를 받았고 조상 전답에서 약간의 소작료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자 급하게 서둘러 결혼을 시켰다. 마침네 형수께서는 자손을 보게되었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세번째도 또딸 손녀딸만 3형제를 두었다.

며느리된 자부는 아들을 못낳아서 미안하였지만 더이상 자식을 임태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남편은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술을 자꾸마시고 안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을 자주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집안에 남편과 같이 있으면 말다툼만 하게된다며 자부는 영랑동에 소재한 어떤 식품 가공공장에 나가겠다고하여 남편의 만류도 물리치고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남편은 술마시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고 형수님은 젓 먹이 손녀를 돌봐야만 하였다. 집안은 평안하지않았고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보다 정신적으로 집안에 낙오자가 되고 돈벌이 한다는것은 오징어철에 돈좀 만져보는것이 고작이었다.

그돈도 살림보탬보다 술값으로 소비되고 안사람과 잣은 말다툼에 남편은 점점 술만더마시고 잔소리가 심하게 되었다. 급기야 막네동이 젓먹이딸과 국민학교 다니는 두딸을 시집에 둔채 며느리는 가출을 하였다.

남편은 이때부터 폭주가 계속되고 처가집에 자주 찾아 다니며 안사람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아내의 행방은 알길이 없었고 형수님은 집안꼴을 한탄하면서 당시 입장으로서는 어린 젓먹이 손녀를 며느리대신 거둬야하

고 두손녀를 학교 보내랴 나이 많으신 시어머님 시중들랴 하루 하루가 바쁜시간이요 괴로웠다.

그러던 상황중에 시어머님마저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되셨고 시어머님 병시중에 홀애비가 된 아들, 비위맞추랴, 형수님은 참으로 괴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남편없이 외로운삶도 역겨웠었는데… 그런것 뿐이라면 그럭저럭 팔자 한탄하며 고생되는것 참고 살아야 하겠는데 결국 술타령만하는 아들도 중풍으로 쓰러지게되었으니…….

형수님은 참으로 기가막혀 자신의 八字 한탄을 안할수가 없었다. 한꺼번에 기동못하는 두환자! 직접 이런일을 당해본 사람외에는 형수님의 심정을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아름답지 못한말로 시어머님 용변 받아내랴 아들 화장실 출입을 부축하랴 고달픈 삶이였다. 그런 와병중에서도 아범(아들)은 빨리 자신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 한탄하며 “나같은 못난인간 살아서 무엇하리요”하며 병고칠생각은 하지도 않고 술만 찾았다 술을 마시면 곧 정신을 잊고 쓰러지곤 하였다. 시어머님께서는 7년여간 병환에 시달리다 마침 92년에 93세로 생을 마감하셨다.

시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가신지 일년남짓되던 금년도 늦은 봄 어느날 형수님께서 그렇게도 애써 아드님 병을 고치시려고 노력했는데 백약이 무효로 끝내 아드님도 눈을 감고 말았다.

친척들과 이웃사람들이 형수님을 위로 하였으나 그분은 칼로 가슴을 도려내듯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병신이던! 방구석을 지키던! 좀더 살아서 “세딸(손녀)을 출가시킬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형수님이 방바닥을 치며 통곡과 오열로 슬픔을 이기지 못했었다. 나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나비와 형수님이란 줄거리로 이야기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형수님은

아들 장례 3일장을 치렀고, 어릴때 어머니 없이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큰 손녀(18歳) 둘째(16歳)가 책지에서 직장생활하다 아버지 부음받고 집에 돌아왔고 막내손녀(中1)가 언니들과 함께 아버지를 추모 애도하여 우는 이들의 곡성은 발인날 밤공기를 흔들었다. 장의(葬儀)날이 밝았다.(실은 필자 문중 선산이 보광사에 있지만 공원 토지대로 묶여있어 산소를 쓰지못함)

영구차에 시신을 모시고 화장터로 운구되어 棺은 소각실에 모셔졌고, 아버지의 시신이 불에 타고 있는 동안 딸 삼형제는 젓상 앞자리에서 다 함께 합장하고 마지막 가시는 아버지 명복을 빌며 기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노란색 나비 한 마리가 상주인 큰딸 머리에 날아와 잠깐 앉았다가 둘째딸 머리에… 또 셋째딸 머리위에 차례로 날아와 앉았다. 이것을 본 친족들이, 이상도하다! 아마 너희 아버지 혼백이 나비가되어 애도하는 너희들을 위로하나 보구나!하고 말을 하니까 세 따님들

은 그자리에서 그런말을 듣는순간 털썩주저앉아 서로 껴안고 울음보를 터트린다. 이때에도 나비는 날아가지 않고 애통해하는 딸들 머리위를 훨훨 맴돌고 날아다녔다. 필자도 목격한바다. 장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일행이 형수님 집에 돌아왔을때 집에 계셨던 형수님이 조문객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필자를 보고 “아주버니! 아마 아범이 죽어서 저세상에 가 나비가 되었나봐요!” “화장터에서 나비가된 아범이 딸들을 찾아와 슬퍼하는 그들 머리를 쓰다듬고 갔다면서요!” “제발 그렇게 나비라도 되어서 바깥출입 못해 애태우던 한을 훨훨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온세상 마음껏 날아다녀보라지요! 마누라도 찾아 만나 보았으면 좋겠어요…”하며 또한번 한 맷인 통곡을 하신다.

필자는 형수님의 그말씀이 내 머리속에 묻쳐서 필자가 살고 있는 농장에 날아 다니는 나비를 대할때 조카의 장의날 화장터에서 있었던 그때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 '94束草文化院 業務紹介

지방문화원 진홍법시행으로 사단법인 속초문화원을 '94. 8. 27 해체하고 특별법인 속초문화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설립취지와 목적이 뚜렷하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의 결의도 확고 부동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우리문화 발굴 보존사업등을 활발히 벌여 시민들에 보다 많은 고급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생활화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 왔었다. 본원은 '94년을 전통문화 기틀 확립의 해로 삼고 향토문화학교 육성에 치중하면서 국악의 보급 확대와 생활화에 힘쓰면서 왕성한 의욕으로 문화유적 탐방사업을 펴왔다. 본원은 도내에서도 타문화원의 성공사례를 받아들이고 월간1회의 업무평가회를 가져 반성할점은 과감히 시정, 시행착오 예방에 노력을 경주해 도내에서도 우수문화원으로 평가되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94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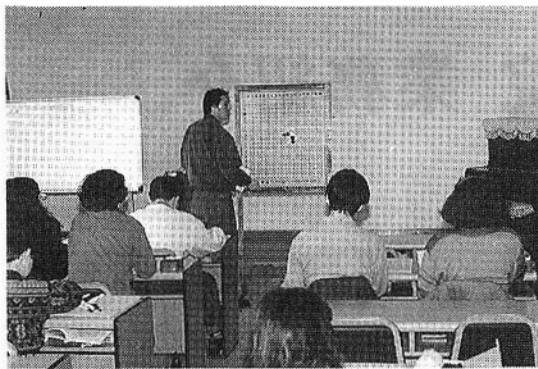
## 1. 향토문화학교 2기생 입교

'94.1.18 2기생 입교식을 문화사랑방에서 가졌는데 과목은 ①서예반(초급반), (고급반) ②꽃꽂이반 ③한국예절과 전통다도 ④바둑교실 ⑤수지침교실 ⑥여고생을 위한 「전통민속교실」 ⑦풍물놀이교실 ⑧청소년 창작교실등에 2백35명이 입교 하였고 강사 선임은 다음과 같다.

▲서예반=지웅준(설악서예학원장) ▲꽃꽂이반=박원혁(전직 강사) ▲전통다도=박원혁 ▲바둑교실=허정원(아마4단) ▲수지침교실=이철한(수지침학회 속초지부장) ▲전통민속교실=이경란, 남은숙(이상은 속초여고교



사), 송승경(극동무용학원장) ▲풍물놀이교실=천성필(설악프라자·랜드 근무) ▲청소년 창작교실=최용문(문화원장), 제2기생들이 '94.



6. 27~30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서예, 꽃꽂이 작품전과 다도 강습회를 가졌다. 이 전시 기간중 서울 구연회(회장=김구연)에서 꽃꽂이 자격증 심사에서 본원 수강생 김경자씨가 2급, 남춘자씨등 6명이 3급자격증을 취득했고 '94. 10. 26에 서울에서 한중서예교류전(주최=한중서화부홍협회)에 본원 수강생들이 출품한 결과 특선에 김정옥씨, 입선에 정석섬씨, 한명희씨, 주정숙씨, 조득분씨, 조복순씨등이 영예를 안았다.

## 2. 제14회 대보름 민속놀이 경연대회



1994년 2월26일 오전10시반 수복탑 옆 매립광장에서 속초시 후원에 속초시신협과 속초시축협 협찬으로 열렸다. 종목은 연 멀리날리기(방패연, 가오리연), 제기차기, 육놀이대회, 널뛰기대회가 각동 대항으로 1백40여명의 선수들과 5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옛풍속을 재현하기 위한 대보름 잔치는 갯마당 풍물패의 축하공연이 현장에서 걸들어 축제분위기는 드높았다. 이날 행사는 속초 신협이 윷놀이대회를 맡아 진행과 시상을 맡았고 속초 축협은 각동대항 널뛰기대회 진행과 시상을 담당해 주어 전통민속 진흥사업에 기관 단체간의 협조와 단합을 과시해 시민들로부터 찬사와 격려가 쇄도했다.

### 3. 속초여고생 전통문화반 개설

1994년 3월 19일 속여고 이경란, 남은숙교사 담당에 지도강사 송승경 극동무용 학원장의 지도로 장구, 팽과리, 북, 징등 사물놀이 악기로 전통음악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까지 1시간여동안 가르친 결과 11월 현재 대외 연주까지 할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어 학생들은 학교특활시간에 흥미와 자부심을 갖게 되고 우리 국악의 진수를 만끽하게 되어 청소년지도에 밝은 앞날을 제시하는 성과를 얻게되었다. 학교측에서도 문화원과 제휴, 학생들의 취미생활이 전전하게 유도되면서 보람을 얻게되어 계속 장려하는 방향에서 배려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으로 있다.



### 4. 제29회 도민체전 전야제 참가.

1994년 6월 15일 저녁 太白에서 채화된 성화가 속초시로 봉송되어 시청광장에 안치되

는 체전 개최 전날에 개막된 전야제 축제에 본원소속 갯마당 풍물놀이패 25명이 2백만원 들여 새로 맞춰 입은 풍물패 단복을 입고 1백만원들여 추가로 보완한 장구등 새악기로 축제 굿놀이를 벌여 속초시를 비롯, 도체육관계자, 선수, 외국인 참관자들에게 우리국악의 참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을 흥분과 축제의 열기를 불어넣어 환호와 환성을 연발시켜 체전 잔치기분을 고조시킴으로써 갈채와 환영을 받아 전야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이바지했다.

### 5. 제2회 서예, 꽃꽂이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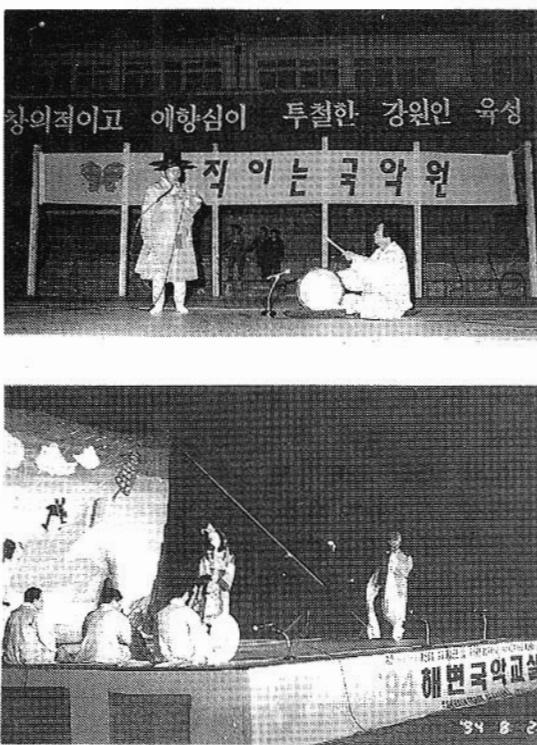
1994년 6월 27일~30일까지 본원주최로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서예반에서 32점, 꽃꽂이반에서 19점을 출품하여 작품전을 열었다. 서예반은 지응준 설악서예학원장의 지도로 전시된 솜씨는 추사선생의 경지는 미치지 못하나 문화가족들이 깜짝 놀랄정도로 발전하여 감탄과 격려가 쇄도해 서예붐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했다. 꽃꽂이반은 박원혁선생의 지도와 서울 구연회의 도움을 받아 예술성, 창작성, 조상들의 맥을 잇는 전수성등을 고루 갖추게 되어 황홀함과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 문화학교의 업적을 대변해 주는 꽃의 대향연을 방불케 했다.

### 6. 도리원 농악대 창단계획



본원은 전통 농악대를 창단하여 이고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백이 끊어진 농악대를 재현하기 위해 1994년 7월4일 속초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본원은 단원 45명 규모로 영동 제일의 농악대 창단을 계속 추진중에 있다. 이 계획은 95년도 사업으로 이월, 94년도에 이루지 못한것을 아쉬워 하고 있다.

## 7. '94해변 국악교실 개최



1994년 7월31일~8월5일까지 속초해수욕장에서 본원을 비롯, 국립국악원, 속초시 공동 주최로 오전10시~12시까지 봉산탈춤강습이 있었다. 강사는 무형문화재인 이홍구, 국립국악원 안무단 5명이 4일간 1천8백20명에게 봉산탈춤의 기본동작에서 안무까지 전수시켜 주어 각계의 반응은 대단했다.

○국악공연은 8월1일~4일까지 연 6천여명이 참관했는데 저녁 7시~8시40분까지 해수욕장 백사장을 꽉메운 인파속에서 무형문화

재 45호 서용석씨가 대금산조, 경기민요는 무형문화재 57호 조경희, 이금미씨가 출연, 고수는 무형문화재 59호인 김청만씨가 맡았다. 판소리는 무형문화재 5호인 박동진옹이 출연해 환호와 박수가 진동했다. 그리고 살풀리는 전국 무용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남혜정씨가 열연했고 국립국악원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물놀이패가 관중들을 매혹시켰다.

## 8. 임시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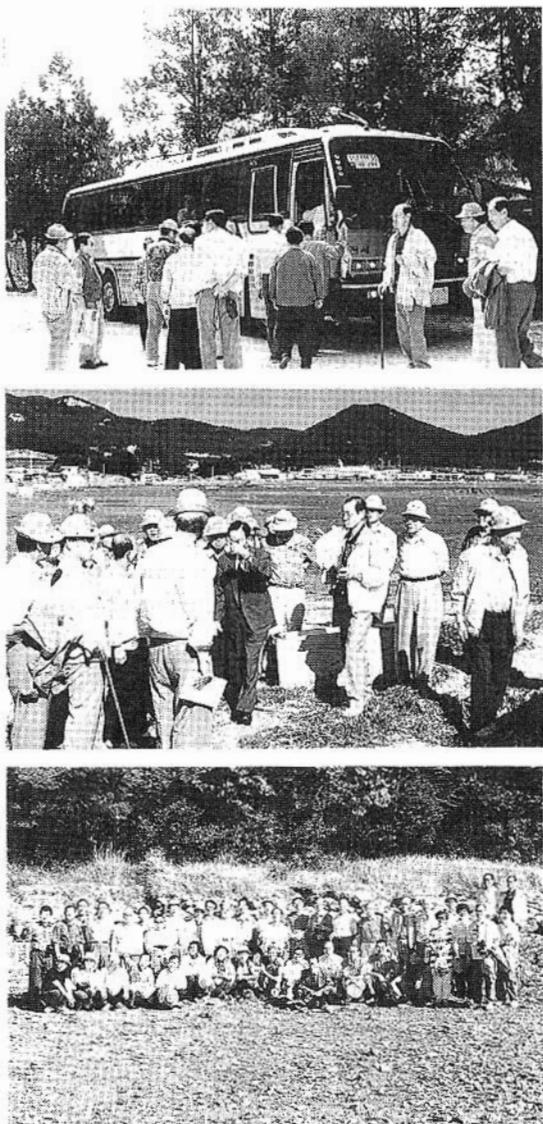
지난해 구립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1994년 7월8일시행됨에 따라 사단법인 속초문화원을 해체하고 그 업무를 승계한 특별법인 속초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 '94. 8. 27 문화사랑방에서 총원 160명중 103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속초문화원 임원 명부

1994. 8. 27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비 고
				근무처	자 택	
원 장	崔 龍 文	390505-1279229	東明洞 250-5 5/4	33-3969	33-3233	대일레미콘會長
부 원 장	李 仁 鐵	230505-1279611	校洞780-118 15/4		33-2177	嶺北지구 咸北道民會長
이 사	李 榮 亨	210801-1279219	東明洞523 10/3		33-3618	동우전문대 교수
"	吳 允 根	230803-1261919	校洞656-5 13/2	32-5357	33-8817	청운독서실 代表
"	全 錫 圭	240505-1332815	大浦洞33-1 3/1		635-5679	전·교장
"	金 鵬 海	250210-1279221	東明洞450-39 4/2	33-2021	33-3411	合同文化인쇄소社長
"	金 雲 天	280107-1279619	校洞 현대 1차 APT104 동 202호	33-3120	31-0448	전·속여고교장
"	金 光 洙	300915-1280111	道門洞1628-14 1/2	635-3366 635-3388	635-3377	속초자동차학원장
"	尹 淑 子	310305-2279612	校洞627-42 19/5	33-4014	33-4014	설악유치원장
"	金 磻 應	331217-1279211	東明洞250 5/4	32-1231	33-3674	文化院 事務局長
"	全 福 植	350301-2347919	校洞 삼환APT108동1004 호	(02) 407-9520	31-7130	雪嶽山 대우장會長
"	安 東 變	351119-1279218	蘆鶴洞619-5 2/3	30-2208	32-0909	東草市 文化公報室 長
"	金 鍾 圭	360130-1279201	東明洞72 2/4	31-1173	33-4472	문화회관 관리소장
"	崔 敬 順	370907-1279314	中央洞496-55 1/4	33-3668	32-6590	화신상회 대표
"	董 文 星	371129-1279217	東明洞450-22 4/4	33-2425	33-3721	東草재 향군인회장
"	朴 相 福	391017-1279407	校洞627-130 20/2	31-6290	32-3888	의료보험 代表理事
"	金 喆 變	401012-1279315	校洞 현대 1차 APT103 동 1103호		31-2292	속초신협理事
"	盧 光 福	430510-1010814	東明洞468-142 1/2	32-8907	32-9014	장안슈퍼 代表
"	洪 成 萬	500924-1279211	校洞 청초APT102동1501 31-4900	33-4026		다경피혁 代表
"	金 基 明	520202-1279211	青鶴洞482-72 1/4	33-3936 33-5592	32-8518	東草프로스팩스社 長
"	趙 東 龍	520626-1019027	校洞 현대 1차 APT104 동 205	635-2185 635-2186	635-2670	변호사
"	朴 政 基	520707-1280113	道門洞177-1 4/5	34-7667	34-8738	基子유통상사社長
"	金 一 洙	520911-1279211	東明洞530-1 13/4	32-1555	32-1555	東亞서점 代表
"	姜 哲 勳	550111-1279112	永郎洞163 5/6	31-5675 33-2088	32-0188	건축업社長
"	崔 顯 植	570413-1279612	校洞664-164 2/2	-	012-391 -8275	전·신길칠강社長
감 사	崔 泓 舜	280401-1279218	東明洞469-33 9/2		33-3671	형정동우회부회장
"	金 亨 鎭	390801-1279311	中央洞 478-83 3/2	33-4441	32-8859	平和洋行 代表

## 9. 장보고 유적지 탐방



본원이 연차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사업으로 94년도엔 9.13~15(2박3일)까지 전남 완도군 청해진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남해와 서해를 제诰하고 해상왕국을 세워 당나라와 일본과 활발한 해상교역으로 국위를 크게 선양한 장보고 유적지를 탐방, 조상들의 슬기와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다시 읊미하는 역사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참가 회원은 45명, 귀로엔 전남 장성에 있는 보해양조(주)의 최신기계 시설과 제품을 보는 산업시찰과 변산반도의 국립공원도 견학하고 귀가했다.

## 10. 제29회 설악제경축 제1회 풍물큰잔치



설악제를 경축하면서 93년 3월16일 본원소속으로 창단한 깃마당 풍물놀이패(대표·천성필·설악프라자 랜드 근무)가 본원의 후원으로 육성, 성장하여 도내 제일의 풍물놀이패로 발전하게되고 속초시의 각종 경축행사에 출연하여 시민들과 같이 웃고 즐기는 풍물놀이패로 사랑을 받고있다. '94.10.4 오후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평소 연마한 솜씨로 첫 공개 공연을 가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시민들이 박수로 격려하면서 7백여명이 일제히 축하해주었다. 95년도 사업을 위해 문예진 홍기금을 '94.10.15 3백만원보조를 신청했다.

## 11. 문화학교 수강생 문화탐방

수강생들의 출석률제고와 사기진작, 수강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 서울 경복궁의 민속박물관, 진시황 서울전등을 관람하기위해 '94.10.14 수강생 30명이 서울나들이를 했다. 수강생

들은 민속박물관을 살피고 조상들의 의식주 생활 양상, 외침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나라사랑정신등을 배우고 모두 크게 감명받았다. 또 근대사를 재조명하는데도 보람을 찾았고 2천 3백년만에 헛빛본 진시황 유물전에 참관, 고대역사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참가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화학교에 입교한것을 큰자랑으로 알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것을 다짐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 12. 속초문화 제10호 발간

종합문예잡지인 속초문화 10호발간을 위해 전회원들이 투고로 참여한 가운데 4·6배판에 화보는 원색인쇄로 3천부를 발간하여 시내 기관 단체를 비롯, 전회원, 전국문화원이 배부하고 있다.

속초문화엔 서예가를 비롯, 시인, 평론, 속초발전을 위한 진단과 방향제시, 문예창작, 문화원, 속초예총소개등 다양한 내용으로 편집되어 각계로부터 수준급이라는 평을 받게 되어 회원들의 문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결론을 얻은 셈이다. 이 잡지의 짐필은 속초 출신으로 국한된것이 특징이요 자랑이다.

# 장보고 유적지를 찾아서

董文星

속초문화원은 올해 제4회 국내문화탐방행사를 「장보고 유적지」를 순례하는 것으로 정했다. 지난 9월13일 오전7시 속초문화원에서 출발한 탐방단(45명)은 미시령을 넘어 인제, 홍천을 거쳐, 지평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내려가 중부고속도로를 통해 유성(대전)에 도착했다. 유성에서 점심을 든 일행은 다시 버스(대청관광)에 올라 호남고속도로를 달려 장



◆장보고유적지 순례를 위해 시찰단 일행이 문화원에서 출발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장도에 있는 청해진 유적지 발굴조사를 알리는 안내판

성, 함평, 나주, 영암, 강진, 해남을 거쳐 해남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완도(莞島)에 도착했다.

워낙 먼 길이라 12시간이란 오랜시간이 걸렸다. 천지장여관에서 여장을 품 일행들은 저녁을 들고는 긴 여행의 피로에 지쳐 모두들 정해진 방에 들어 남해의 싱그러운 바다바람을 피부로 느끼면서 타향의 하룻밤을 맞아들였다. 여행이란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것이며 더욱 일반적 개념의 여행이 아니라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우리일행의 모습은 자못 진지하기까지 하였던듯 하다.

완도에서 일박한 일행은 완도문화원 사무국장의 안내로 장보고가 1천여년전에 해상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청해진(淸海鎮)으로 출발하였다. 청해란 말은 완도(莞島)의 옛지명인데 장보고시대에 신라조정에서 1만명의 군사를 내려 해로의 요충에 진(鎮)을 치게



◆유적지앞 마을에 도착한 일행들이 장도를 향해 들어가고 있다.



◆장도 섬주위에 장보고가 박은것으로 확인된 통나무 머릿부분을 관찰하고 있는 순례단원들

했다하여 청해진으로 불리우게 됐다고 한다.

청해진이 위치한 완도군은 모두 2백1개의 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55개이다. 행정구역은 3개읍과 9개면으로 상주인구는 11만8천명이다. 장보고가 청해진의 중심을 이루었던 곳은 완도읍에서 약 4km 떨어진 장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면적은 3만7천9백43평으로 조그마한 섬이다.

간조때에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만조가 되면 배없이 섬으로 들어갈수가 없다. 장보고는 우리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상활동을 전개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인데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워 나라를 지켰던 을지문덕이나 이순신과 같은 장수들처럼 우리의 역사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각종 사료(史料)들에 의하면 장보고의 출생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의 사망년

대만 서기 846년(?)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번 순례행사에서 확인된 내용(완도문화원 자료)은 장보고는 완도읍에서 약 2km 떨어진 장개리마을에서 장백익씨의 큰아들로 태어났다고 보고된 사실이다. 장보고는 15세에 당나라 서주(徐州)에 건너가 무예를 익혀 무령군소장(武寧君小將)이 되었으나 신라에서 잡혀간 노비들의 비참한 처우에 분개하여 사직하고 귀국했다.

당시 남해안 일대에서 해적들에 의해 횡행 하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1만명의 군사로 청해진을 설치하고 가리포(加利浦)에 성책을 쌓아 항만시설을 보수하여 전략적 거점을 마련하고 청해진대사(青海鎮大使)가 되었다. 대사가 된 장보고는 휘하 수병을 훈련하여 남해안 일대에서 준동하던 해적소탕에 개



◆섬주위에는 일정하게 통나무가 박혀져있다. 외적에 대한 방책인지 선박들을 위한 편의 시설인지는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가를 올렸다.

서기 837년(僖康王 2년)에는 왕위계승·다툼에서 밀려난 우징(祐徵: 神武王)이 청해진에 도움을 청해오자 이듬해에 우징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839년 민애왕(閔哀王)을 죽이고 우징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장보고는 감의군사(感義軍使)가 되었으며, 신무왕이 죽고 문성왕(文聖王)이 즉위하자 진해장군(鎮海將軍)이 되었다. 문성왕 2년(840년)에는 일본에 무역사절을 당나라에는 견당매물사(遺唐賣物使)를 보내 삼각무역(三角貿易)을 했다.

그뒤 845년(문성왕 7년) 장보고는 자기의 딸을 문성왕의 차비(次妃)로 되게 하려다 군신들의 반대로 좌절 되었으며, 신라왕가와 귀족들은 장보고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불안을 느껴 846년 청해진에 자객 염장(閻長)을 보내 장보고를 살해 함으로서 그는 일생을 마쳤다.

장보고는 해상활동중 홍덕왕(興德王 826년 ~836년) 때 산동반도 적산촌(赤山村)에 법화원(法華院)을 세웠다. 당시 산동반도와 강소성(江蘇省) 등지에는 신라인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신라인들의 집단거주지가 있어 이곳을 신라방(新羅坊)이라고 하였으며 거기에 세운 사찰을 신라원(新羅院)이라고 하였는데 적산촌의 법화원은 유명한 신라원이였다.

신라원은 당(唐)나라에 거주하는 신라인의 신앙의 의지처인 동시에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예배처였다. 법화원은 이 외에도 당과 신라와의 연락구실도 하였고, 당나라로 전너가는 신라승려는 물론 일본의 승려들로 이곳을 거쳐가며 도움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 일본 천태종(天台宗)의 승려 엔닝(圓仁)이 그 예로 손꼽히고 있다.

장보고는 9세기 전반기에 중국 산동반도의 남해안 일대의 화하(淮河) 유역의 여러도시에 널리 펼쳐져 있던 수많은 신라상인들의 상업기지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하여 서해상에서 한반도와 중국·일본사이의 이룬바 삼각무역을 지배 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장보고의 전성기인 838~847

년간 중국 해안일대를 여행한 일본의 구법승(求法僧) 엔닝(794년~869년)의 일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장보고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이제까지는 거의 물려진 채 발굴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장보고에 대한 연구로는 1935년 진단학보(震檀學報)에 발표했던 김상기씨의 논문과 1955년 미국인 라이샤워교수, 1975년 해양대학문집에 기고된 이영택씨 논문등이 고작이였다. 앞의 논문중 우리에게 주목을 끌게하는 것은 라이샤워교수의 주장이다.

케네디대통령시절 주일본(駐日本) 미국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라이샤워박사는 엔닝의 기행문을 면면하게 연구 검토한 결과 이 청해진 세력을 「상업제국(商業帝國)이라 명명 했으며, 그 지배자인 장보고는 바로 상인군주(商人君主)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학계가 장보고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때 해외학계에서 그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여 과감하고 적절한 표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일행이 장도 현지를 돌아보았을 때 물이 빠진 갯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섬주위 땅속에 박은 통나무의 윗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이 나무들은 당시 장보고가 해안방어용 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았던것이 아니면 많은 선단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 설치했던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청해진을 가지고 있는 완도 그곳 사람들은 장보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았다. 청해진에 정부차원의 장보고 유적을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되고 국내학계에서 그의 발자취가 학문적으로 더욱 규명될때 우리는 우리가 미처 발굴해 내지 못한 후손으로서의 죄책감을 다소나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로의 버스에서 되뇌어 보았다.

## 제20회 韓中서예교류전

속초문화원(원장·崔龍文)의 향토문화학교 제2기 수강생들이 한중서화부홍협회(서울·서초구 반포2동 경남상가2층 25호)가 주최하는 제20회 한중서예교류전에 출품한 결과 특선 1명, 입선 7명이 입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본원의 서예반은 池應準강사(속초 설악서예학원장)의 지도로 주3회씩(화, 수, 금 오전 10시~12시) 문화사랑방에서 서예를 연마했다.

이 입선작품들은 95년 1월20일~28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고 자유중국에서는 95년 2월1일~6일까지 대북시 국부기념관에서 전시된다. 입선된 수강생들은 모두 대만에 초청되었다. 본원 향토문화학교가 개강된지 2년만에 한중서예교류전에 입선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 문화학교 운영에 밝은 전망이 엿보이고 있다.

입선한 수강생은 다음과 같다.

### ◇특선

▲池應準강사(설악서예학원장) ▲金貞玉수  
강생(속초시 동명동 5통4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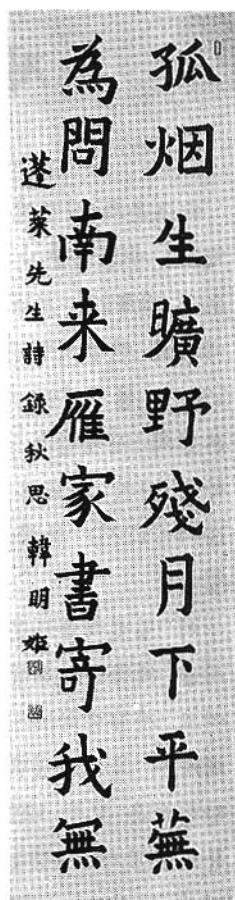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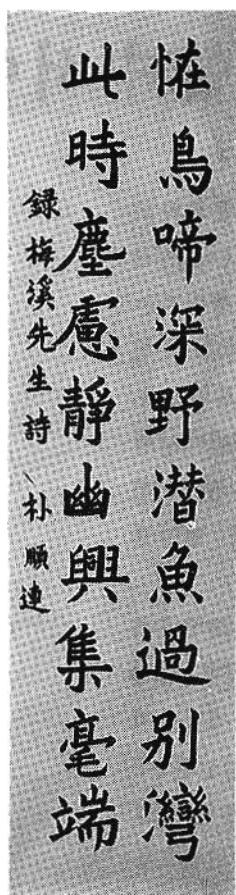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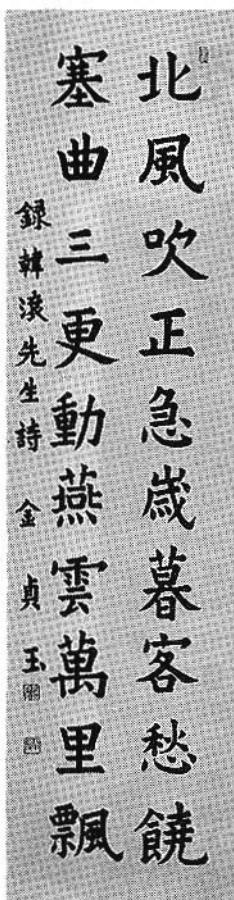
### ◇입선

▲朴順蓮(교동 현대APT) ▲朱貞淑(교동  
설악현대APT) ▲趙福順(교동 로얄2차APT)  
▲曹得粉(교동 현대APT) ▲鄭石蟾(교동 668  
-8) ▲韓明姬(노학동 624-12) ▲元來淑(조  
양동 한신APT)

조로외서판는동일  
국우모완담두불찌  
코리래성백려다기  
리돌벌을으움시아  
아의판향로이한시  
여마에하세없번아  
깨음길여개고귀의  
이이왕팔가미지황  
나인지율조리는금  
소도양벌각는날시  
서되는리조높에절  
는곳는각이니에  
고국무곳갈처는빛  
트비그한지라를동나  
동방비동려하성지린방던  
한퍼의지곳의동  
자저맑양지밝풀  
유나온는식은의  
의기호곳은빛하  
천논롭진자이나  
국생이실유되였  
으각굳의스리던  
로과어깊립라코  
내행진은고마리  
마동습속줄음아  
읍으관에다에그



지 응 준



특선 · 김정옥



입선 · 박순연



입선 · 한명희

白雲橫里落松竹自成籬  
遙望極清絕居人應未知

錄道中記所見  
鄭石塘

清夜坐虛閣秋聲來樹間  
水明山影落月上露華溥

錄梅溪先生詩 曹得勳

四月綠陰多山禽終日語  
驚人不遠飛又向西山去

錄東川先生詩 藝津趙福順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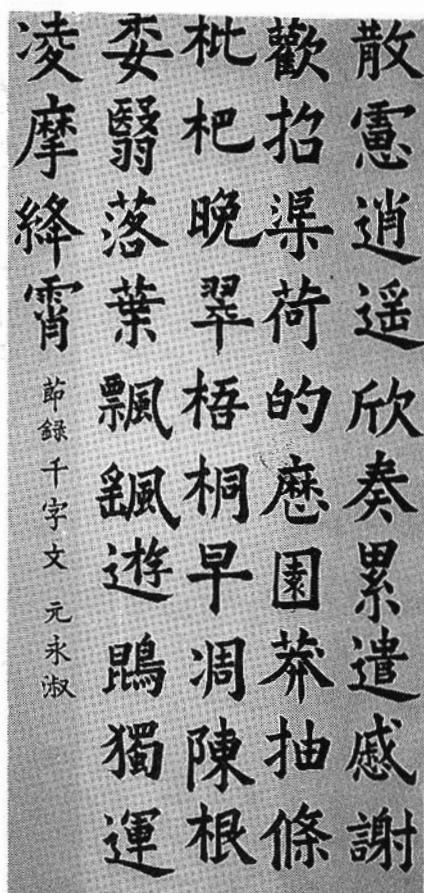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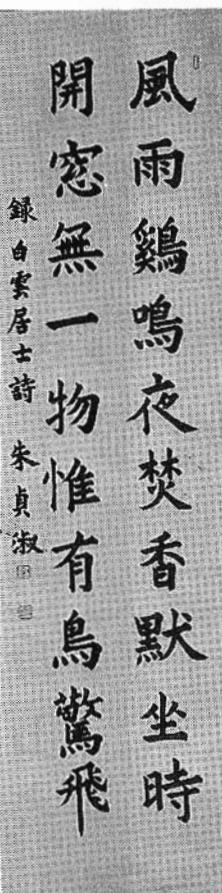
임선·정석설



임선·조득분



임선·조복순



입선 · 주 정 숙



입선 · 원 영 숙

# 예총속초지부 '94년도 주요업무 소개

## ■ 연극공연(약장수)

'94년 1월4일~6일까지 속초신협 4층 강당에서 속초연극협회가 연극공연 '약장수'를 오후 4시, 7시 연6회 공연을 하였다. 오태석 작장규호연출, 김귀선이 주연을 맡았으며 지은 미가 고수를, 국악지도는 극동무용학원장 송승경 원장이 지도했다. 연 관람인원은 200여 명이었다.

## ■ 연극공연(약장수)대명콘도공연

속초신협 공연에 연이어 1월8일부터 18일 까지(11일간) 대명콘도에서 "약장수"공연을 하였다. 출연진은 신협공연때와 동일하며 관객은 타지방에서 지역 관광을 온 객실 이용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 ■ 제4회 학생예술상 수여식

김영복 예총지부장은 2월5일 및 2월16일 각기 한해동안 문예부문이 뛰어난 관내 중·고교생들을 선발하여 졸업식장에서 학교별로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후돈(속초중학교) △심영은(속초여자중학교) △김소라(속초여자고등학교) △한미영(속초상업고등학교) △함학수(설악중학교)  
△김민희(설악여자중학교) △이장균(속초고등학교)

## ■ 예총속초지부 제5차 정기총회

'94년 2월28일, 오후1시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예총속초지부 제5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 ○ 주요안건

- '93년도 결산 감사보고 및 결산(안)승인
- '9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승인
- '94년도 속초시 예술문화 발전에 관한 토의 등

## ■ 제11회 강원연극제 출품

연극협회속초지부(지부장 : 장규호)는 4월1일부터 4일까지 춘천시립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제11회 강원연극제에 출전하였다.

출전 작품은 최명수 작 "오지의 사람들"이며 연출은 장규호 지부장이 맡았다. 태백무대의 "칠산리"에 이어 춘천 문화방송사장상인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연출상 장규호, 연기상 김귀선, 무대미술상 박동국이 각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 허병훈 초청 기타 독주회

음협속초지부 및 한국 기타협회속초지부, 도레미기타학원(원장 : 원영백)주관으로 5월 21일 오후 7:30에 속초시 기타음악 팬들의 성원하에 거행되었다.

## ■ '94 어버이 행사

연예협회 속초지부 주부가요동우회(회장 : 박순아)는 '94년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속초시와 연계하여 어버이 행사를 5월9일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 속초시내 노인 1,100여명이 본 행사에 초청 관람하였으며, 속초시 주부가요동우회원들 전원이 멋진 노래 가락으로 관객들의 홍을 돋구었다.



### ■ 제5회 청소년건전가요제 예심

한국연예협회속초지부(지부장 : 한기학)주관으로 5월22일 12:00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영북지역 중·고교생들의 총 접수 130개팀 250여명이 경연을 벌인 제5회 청소년건전가요제 예심이 거행되었다. 예심 통과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 대회에서 본선 16개팀 27명이 선발되었으며 예신통과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제5회 청소년 건전 가요제 예심 통과자 명단

번호	성명	학 교	학년/반	전화번호	곡 명	주 소
1	정선화	속초여고	2/1	33-3617	사랑해 사랑해	조양동 2/4
2	전은숙	속초상고	1/4	33-7076	난 널 사랑해	장사동 1/4
3	최희영	설악여중	1/4	33-3312	너의 마음을 내게준다면	금호동 15/3
4	박현기 김미연	설악여중	2/6 2/6	31-1145 33-3792	마지막 그 아쉬움은 지나간 시간속에 묻어둔채	교동현대1차1306 교동현대2차105
5	최재엽	속초고등	2/2	681-3265	내게	간성읍 신안2리
6	김광진	"	2/6	32-7735	나의 너에게	
7	함학수	속초상고	1/4	33-7618	광야에서	조양동 7/4
8	김용제	속초고등	1/2	33-6353	오늘 같은 밤이면	교동 주공2차203동 508호
9	남성식 탁준용	속초고등	2/6 2/7	635-8933	사랑으로	교동 18/3 토성면 용촌1리1
10	추봉자 정현진	속초여고	2/3 2/3	31-3956	난 아직도 널	고성군 즉왕면 송암리
11	최지영	고성고등	2/4	681-2996	추억에 책장을 넘기면	간성 금수리5반
12	김대복 김택현 조인견 천복기	거진공고	3/1	635-2025	이밤이 깊어가지만	도문동 1616 1/2
13	박은혜	속초여고	1/4	32-4560	광야에서	금호동 14/2
14	김정민	설악여중	2/5	635-9787	너에게로 가는 길	교동 서울대명1차 1104호
15	김미정 김은진 김승희 박은미 홍화정	속초여고	2/2 " " " "	31-5772	마지막 그 아쉬움은 기나긴 시간속에 묻어둔채	금호동 서울대명2차 1동 705호
16	천나영 고현주	설악여중	1/2 1/1	32-6360 33-2084	우연히	중앙동 3/1 청호동 6/7

### ■ 제5회 속초종합예술제

한국예총속초지부(지부장 : 김영복)에서는 '94년 6월10일부터 25일(15일간)까지 5개 협회지부(문인, 미술, 연극, 연예, 음악협회지부)가 대 단결하여 영북지역 문예발전에 이바지코져 각종문예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29회 강원도민체전 기념을 겸한 문화예술 행사의 의미를 부여한 본 예술제는 청소년문예사업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총 9개의 단일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협회 지부 별 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제5회 학생백일장

제5회 학생백일장이 문협속초지부(지부장 : 윤홍렬) 주관으로 6월10일 오후2시에 속초시 수복탑 놀이광장에서 학생미술실기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본 백일장에 영북지구 초·중·고교생 1,400여명이 참가하여 시, 동시, 산문 부문에서 96명이 입상자로 결정되었다.

### ■ 제5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제5회 학생미술실기대회를 미협속초지부(지부장 : 김광희) 주관으로 6월10일 오후2시에 제5회 학생백일장과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영북지구 초·중·고교생 1,600여명이 참가한 본 대회에 크레파스, 수채화, 한국화 부문으



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총 입상자는 130명이 선정되었다.

### ■ 연극협회 제30회 정기공연

연극협회속초지부(지부장 : 장규호) 주관으로 6월10일부터 12일(3일간)까지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극협회 제30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공연작은 제11회 강원연극제에 출품된 바 있는 최명수작 "오지의 사람들"을 연 5회 공연하였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청년 김건표, 애인 이미경, 선주 김혜성, 선원1 김귀선, 선원2 한만균, 잡부 안병규, 김준수, 김만겸 등이 주요 스텝진이였다. 총 관람인원은 2,000여명이었다.

### ■ 시, 서, 화, 도예전

문협속초지부(지부장 : 윤홍렬) 주관으로 6월16일부터 18일(3일간) 속초신협 4층에서 시, 서, 화, 도예전을 개최하였다.

도민체전경축행사로 열린 시, 서, 화, 도예전은 문학을 조형미로 감상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특색있는 전시회로써 많은 시민의 호응속에 개최되었으며 주요 출품인은 윤홍렬, 사상철, 박명자, 이구재, 김춘만, 장승진, 권정남, 김영섭, 지영희, 채재순, 이화국, 김영미, 서귀옥, 이충희, 김영미 등이였으며 총 60여점이 전시되었다.



작이 함께 전시되어 관내 학부모는 물론 교사, 학생등 많은 호응과 관심속에 전시회를 가졌다.



### ■ 제5회 청소년건전가요제

연예협회속초지부(지부장 : 한기학)주관으로 6월19일 제5회 청소년건전가요제를 속초시문화회관대극장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5월22일 130개팀 250여명중 본선 16개팀 27명의 선발된 학생들이 열띤 기량을 뽐내었으며 대상을 포함 7팀이 수상팀으로 결정되었으며 총관람객수는 800여명이였다.

### ■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

문인협회와 미술협회가 연계 주관하여 지난 6월10일 수복탑놀이광장에서 거행한 제5회 학생 백일장 및 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회가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21일부터 25일(5일간)까지 전시되었다.

백일장 작품 96점, 미술실기 130점의 입상

### ■ 제18회 미협속초지부전

미술협회속초지부(지부장 : 김광희) 주관으로 6월16일부터 20일(5일간)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18회 미술협회속초지부전을 개최하였다.

5개분과(한국화, 양화, 조각, 서예, 공예) 20명의 회원이 40점을 출품하였다.

### ■ 제2회 설악청소년음악콩쿠르

음악협회속초지부(지부장 : 심연홍) 주관으로 6월18일, 오후2시 문화회관대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제2회 설악청소년음악콩쿠르를 개최하였다.

영북지구 국민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총 99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성악부문 지정곡 나뭇잎배, 그네등 자유곡 1곡, 피아노부문 모짜르트 피아노소나타 K332 1악장, 모짜르트 피아노소나타 K333 1악장의 지정곡과 자유곡 1곡을 연주, 총 23명이 시상자로 결정되었으며 지도교사, 학생, 학부모등 총 500여명이 관람하였다.



### 제5회 청소년 건전 가요제 시상 내역

내역	성명	학 교	곡 명	비 고
대 상	박은혜	속초여고 1/4	광야에서	(예총강원도지회장상) 장학금 20만원
금 상	최지영	고성고등 2/4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예총 속초지부장상) 장학금 15만원
은 상	함학수	속초상고 1/4	광야에서	(연예협회지부장상) 장학금 10만원
동 상	추봉자 정현진	속초여고 2/3 속초여고 2/3	난 아직도 널	(연예협회지부장상) 장학금 7만원
장 려	김미정 김은진 김승희 박은미 홍화정	속초여고 2/2 " " " 속초여고 2/2	마지막 그 아쉬움은 지나간 시간속에 묻어둔채	(연예협회지부장상) 장학금 5만원
장 려	남성식 탁준영	속초고등 2/6 속초고등 2/7	사랑으로	(연예협회지부장상) 장학금 5만원
인기상	최희영	설악여중 1/4	너의 마음을 내게준다면	(연예협회지부장상) 장학금 5만원

### 제5회 백일장 수상자

#### <저학년 동시>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장 원	속초국(2-1)	김 정 대
차 상	중앙국(2-4) 강현국(2-1)	김 이 슬 홍 은 비

#### <저학년 산문>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장 원	인홍국(3-1)	이 연 정
차 상	조양국(3-1) 청호국(3-1)	최 지 애 이 삼 민

## 예총속초지부 '94년 주요업무 소개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차 하	인홍국(3-1)	김 미 나
	속초국(2-2)	박 준 수
	회룡국(3-1)	추 지 은
장 려	설악국(2-1)	박 아 영
	속초국(3-4)	김 미 리 나
	인구국(3-1)	김 은 실
	조양국(2-1)	선 혜 숙
	양양국(3-4)	한 송 이
	영랑국(2-3)	백 하 나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차 하	양양국(2-4)	김 한 나
	속초국(3-1)	한 인 희
	현북국(3-1)	이 향 란
장 려	속초국(2-2)	홍 자 람
	양양국(2-1)	안 영 환
	설악국(2-1)	손 경 훈
	속초국(2-2)	이 빛 나
	중앙국(3-4)	김 보 혜
입 선	인홍국(2-1)	김 초 롱
	설악국(3-1)	백 설 아
	현북국(2-1)	황 지 은
	속초국(2-5)	김 현 지
	청호국(2-2)	최 혜 미
	속초국(3-3)	이 수 미

### <중학교 시부문>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장 원	속여중(2-5)	양 승 희
차 상	설악중(2-5)	박 대 육
차 하	설악중(1-4)	박 경 희
입 선	속여중(2-7)	김 영 림
	설여중(1-7)	김 효 숙
	속여중(3-6)	주 선 미

### <중학교 산문>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장 원	설악중(3-2)	이 영 석
차 상	속여중(1-5)	정 지 은
차 하	현북중(2-1)	최 미 선
장 려	현북중(1-2)	윤 재 섭
입 선	설여중(3-5)	양 은 진
	설여중(1-5)	주 선 영
	속여중(2-8)	이 송 미

### <고등학교 시부문>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장 원	속여고(2-1)	김 지 선
차 상	속여고(1-3)	김 수 아
차 하	속여고(3-3)	권 경 희
입 선	양양고(2-4)	탁 재 흥
	속여고(1-2)	김 미 지
	속여고(2-4)	김 혜 진

### <고등학교 산문>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장 원	속여고	전 은 경
차 상	양양고	이 영 권
차 하	속여고	김 주 연
장 려	속여고	정 현 진
	속여고	박 지 영
	양양고	김 회 주

## &lt;고학년 동시&gt;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장 원	중앙국(6-3)	한 초 록
차 상	강현국(4-1) 청호국(6-2)	홍 승 대 김 정 화
차 하	상평국(6-1) 설악국(6-1) 속초국(4-5)	지 숙 정 일 곤 강 선 영
장 려	양양국(5-1) 교동국(6-2) 교동국(6-6) 임호국(5-1) 속초국(6-1)	권 시 연 채 주 영 문 수 영 원 지 영 정 진 호
입 선	인구국(6-1) 속초국(5-4) 온정국(6-2) 상평국(5-1) 영랑국(5-2) 속초국(6-6) 온정국(6-2) 청호국(5-1)	조 성 일 김 민 진 함 혁 민 이 미 선 김 인 혜 임 혜 민 고 광 구 김 수 경

## &lt;고학년 산문&gt;

구 분	학교·학년·반	이 름
장 원	인구국(6-1)	안 진 향
차 상	설악국(6-2) 속초국(6-4)	조 승 희 김 혜 인
차 하	중앙국(6-4) 양양국(6-1) 상평국(4-1)	서 미 경 김 영 미 전 정
장 려	교동국(6-2) 현북국(6-1) 속초국(5-2) 양양국(6-2) 교동국(5-3)	김 은 영 오 금 진 정 안 진 최 연 육 최 현 적
입 선	중앙국(6-4) 조양국(6-4) 속초국(5-6) 속초국(6-6) 청호국(6-1) 교동국(6-5) 양양국(6-4) 강현국(5-1) 영랑국(5-4) 청호국(6-1) 속초국(6-6) 영랑국(6-1)	김 동 현 김 유 미 이 민 주 정 지 혜 우 선 희 함 경 식 정 자 영 김 지 혜 전 보 현 홍 미 선 엄 해 윤 손 영 화

## 제5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수상자 명단

## ◇국민학교 1,2학년

▲금 = 양양국 1/4 윤준식

▲은 = 속초국 2/4 김성미, 교동국 1/5 최나윤

▲동 = 교동국 1/2 백지현, 속초국 2/1 조성아, 속초국 1/2 김정래

▲입선=영랑국 1/4 정다희, " 1/1 정진영, " 2/2 이보라, " 2/4 탁대열, " 1/1 장유진,  
 속초국 1/5 이호은, " 2/4 황인선, " 2/4 김수정, " 1/6 김수린, " 1/2 한민우,  
 " 1/5 김기수, " 2.4 이미경, " 1/5 안홍경, " 2/4 김영권, " 1/3 장우열, 중앙  
 국 1/2 한산, 양양국 2/4 이소정, 중앙국 1/4 김상협, " 1/2 이해림, " 1/3 이정  
 인, " 1/2 이준영, " 1/1 남용현, " 1/3 김동환, 청호국 1/2 황선영, " 1/2 최선  
 권, " 1/1 이선영, 교동국 1/7 박지완, " 2/4 박단비, 상평국 2/1 최근준, 교동국  
 2/4 박현경, " 1/6 남궁화란, " 1/2 김승연, 설악국 2/1 혀진희, " 2/1 이청아,  
 조양국 2/3 김주영, " 2/3 김윤정, " 2/1 김은진, 강현국 1/1 김나리, " 2/1 박  
 동진, 천진국 2/1 정진아, " 1/1 양정훈

## 예총속초지부 '94년 주요업무 소개

### ◇ 국민학교 3,4학년

- ▲ 금 = 교동국 4/3 정현희
- ▲ 은 = 중앙국 4/1 한솔아, 임호국 4/1 엄경도
- ▲ 동 = 교동국 4/3 김새롬, 영랑국 3/1 주동혁, 중앙국 4/2 김미정
- ▲ 입선 = 청호국 4/1 양지연, 양양국 3/1 박성희, 온정국 3/1 탁익주, " 3/1 장두석, 설악국 3/1 정성호, " 4/1 이희연, 조양국 4/2 김민호, " 4/2 신종환, " 4/3 남영우, 영랑국 3/1 김지혜, " 3/2 천연정, 교동국 4/2 김미소, " 4/2 함인애, " 3/4 조소정, " 4/6 최정미, " 3/2 김유린, " 3/6 채영은, " 3/3 이정훈, 속초국 3/1 최혜나, " 3/2 이상아, " 3/2 이진, " 4/1 김은영, 중앙국 4/4 윤성희, " 3/4 강현전, " 3/2 김수연, " 4/1 엄지연, " 3/4 피세라, " 4/4 박은영, " 3/2 박인선, " 4/4 김하라

### ◇ 국민학교 5,6학년

- ▲ 금 = 중앙국 6/5 김채영
- ▲ 은 = 교동국 6/6 장유진, 임호국 5/1 이은혜, 교동국 6/5 박현주
- ▲ 동 = 중앙국 6/4 원미선, 상평국 6/1 신민숙, 천진국 6/1 권소심
- ▲ 입선 = 속초국 5/1 이현지, " 6/1 김보라, 교동국 6/6 박지희, " 5/1 김정민, " 6/4 김방철, " 6/7 김세영, " 6/6 김여정, 영랑국 6/1 박정훈, 중앙국 6/4 박은주, " 6/2 박태민, " 6/2 김나영 조양국 6/1 배미진, " 6/4 엄선미, " 6/3 최희진 상평국 6/1 박연실, 임호국 5/1 권은미, 천진국 6/2 강유진, 현북국 6/1 오성훈, 설악국 6/1 박경선, 양양국 6/4 김혜현

### ◇ 중학교

- ▲ 금 = 설악중 3/6 김보묵, 현북중 3/ 김경남(한국화)
- ▲ 은 = 설여중 3/1 장지선, 강현중 2/2 양승배, 현북중 1/ 김태희(한국화)
- ▲ 동 = 설여중 3/6 박은영, 설여중 3/5 선미영(한국화), 현북중 1/ 궁남경(한국화), " 3/1 박소양, 강현중 2/1 장혜선
- ▲ 입선 = 강현중 2/1 김대환, " 2/2 김정미, " 2/1 윤혜진, " 2/2 탁선미, 현북중 1/1 안성호

### ◇ 고등학교

- ▲ 금 = 속초여고 2/4 박주영, 속초여고 2/4 박윤경(한국화)
- ▲ 은 = 속초여고 1/4 이정원
- ▲ 동 = 속초여고 2/3 정미진, 속초여고 2/1 박현주

## 제2회 설악 음악 콩쿠르 시상 내역

내역	초등Piano	중등Piano	성 악	비 고
금 상	송현주(교동국)	황하늬(설악중)	송지선(영랑국)	예총속초지부장상
은 상	한초롬(교동국)	유혜정(설여중)	임주영(오호국)	음협속초지부장상

내역	초등Piano	중등Piano	성 악	비 고
동 상	박현주(교동국) 최용주(교동국) 조아람(중앙국)	이민지(양여중) 이슬기(속여중)	김여주(영랑국) 이향아(교동국)	" "
장려	서현주(양양국) 전유나(교동국) 윤한석(속초국) 김명진(속초국)	김희진(강현중) 정하니(속여중)	김숙희(간성국) 정보라(중앙국) 주미경(조양국)	" " "

### ■ 제4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연극협회속초지부(지부장 : 장규호) 주관으로 6월20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속초시문화회관에서 제4회 강원도 청소년연극제가 개최되었다.

심사위원은 권오일 연극협회이사장, 문고현 극단 "춘추"대표, 백성희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등이 맡았으며, 1일 2회(4시, 7시)공연을 하였으며 공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6월 20일 : 춘천성수여자상업고등학교-(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지도교사 : 강한원-출연학생 : 13명
- 6월 21일 : 속초상업고등학교-(17세의 꿈)-지도교사 : 김선경-출연학생 : 14명
- 6월 22일 : 양양여자고등학교-(만선)-지도교사 : 조수현-출연학생 : 17명
- 6월 23일 :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우리들의 우상)-지도교사 : 우문호-출연학생 : 14명
- 6월 24일 :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이대감망할대감)-지도교사 : 최종국-출연학생 : 6명

### ■ 제2회 강원도청소년연극경연대회 수상 현황

#### ○ 연기상

- 춘천성수여자상업고등학교-김수진(10만원)트롯피-연극협회이사장상
- 속초상업고등학교-김정희(10만원)트롯피-연극협회이사장상
- 양양여자고등학교-조유미(10만원)트롯피-연극협회이사장상
-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도광수(10만원)트롯피-연극협회이사장상
-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남은화(10만원)트롯피-연극협회이사장상

#### ○ 무대미술상

-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10만원)-최용문-속초문화원장상

#### ○ 장려상

- 양양여자고등학교-(20만원)-예총속초지부장상

#### ○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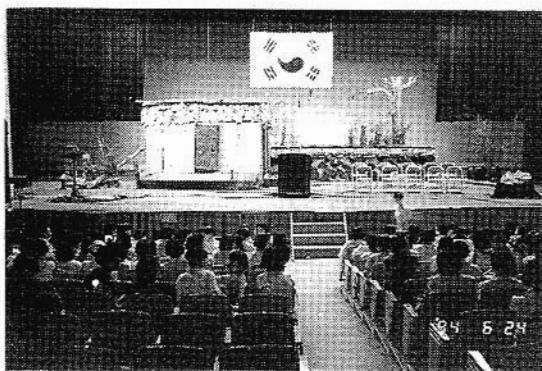
- 속초상업고등학교-(30만원)-속초시장상

#### ○ 지도교사상

- 춘천성수여자상업고등학교(강한원 : 지도교사)-(20만원)-속초교육장상

#### ○ 최우수상

- 춘천성수여자상업고등학교-(50만원)-강원도지사상



### ■ 연극협회 제31회 정기공연

연극협회속초지부(지부장 : 장규호)에서는 제23회 삼성문예상 희곡 당선작이며 제11회 강원연극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최명수 작 "오지의 사람들"을 삼성문화재단의 후원(무대제작경비 1,000만원지원)으로 7월3일부터 11일(9일)까지 서울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지방 극단이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이번이 처음으로써 속초시 극예술의 위상 정립은 물론 속초 연극인들의 안목을 넓히는 계기로서도 그 성과가 다대하였다고 평가되어진다. 주요 출연진 및 스탭진은 제11회 강원연극제 출품 당시와 크게 변함이 없으며 연출역시 연극협회지부장인 장규호가 맡아서 서울시민의 호응속에 공연을 마무리하였다.

### ■ 아남쇼핑타운 품바 공연

연극협회에서는 9월13일부터 14일(2일간)까지 속초시 교동 아남쇼핑타운 5층 연회실 및 1층 광장에서 각각 공연하였다.

1일 1회 공연으로 주연 김귀선, 고수 장규호, 김준수 등이 출연하였다.

### ■ 제4회 영북지역 교사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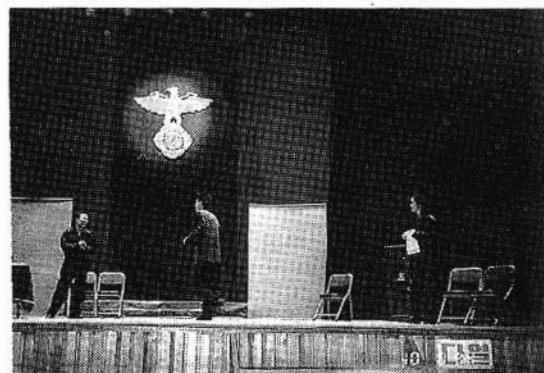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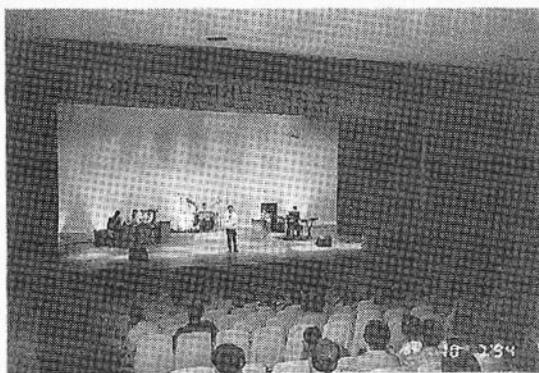
9월28일부터 10월2일(5일간)까지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4회 영북지역 교사작품전이 있었다. 출품 회원의 대부분이 미술협회 속초지부의 회원들로써 총 23명이 작품을 출품하여 일반인은 물론 특히 학생들의 관람객이 많았다.

### ■ 제29회 설악제경축 동대항 노래자랑

연예협회 속초지부(지부장 : 한기학)주관으로 10월7일 오후 7:30분에 제29회 설악제 경축 동대항 노래자랑을 가졌다. 설악제의 전야제 행사의 일환인 본 노래자랑은 설악제가 시민의 한마당 잔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전년의 영북지구주부가요제를 대폭 사업을 확대하여 동대항 노래자랑을 개최하기에 이르렀으며 총 14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속초시민 4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제1회 속초시 동대항 노래자랑 시상 내역

내 역	성 명	제 목	비 고
최우수상	(교동)윤정희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설악제위원장상) 21인치 칼라TV
우수상	(청호동)김미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예총지부장상) 전자렌지
장려상	(장사동)박두원	아베마리아	(연예협회지부장상) 진공청소기
가창상	(청호동)민순애	새타령	(연예협회지부장상) 카셋트
노력상	(동명동)김선희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연예협회지부장상) 전기밥통
인기상	(중앙동)최금자	만남	(연예협회지부장상) 커피포트셋트



### ■ 제6회 속초시민문화상 수상(한기학)

10월8일 11:00 제29회 설악제 개막식장인 속초공설운동장에서 한국연예협회속초지부 지부장 한기학이 제6회 속초시민문화상(문화예술부문)을 수상하였다. 수상공적은 청소년 전전가요제를 비롯, 설악제경축 주부가요열창 등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 속초시 문예창달에 기여했음은 물론 군부대 위문공연 등의 자선 사업 등으로 협회지부 회원의 권익 증진은 물론 대중예술을 통한 속초시 문예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 받아 문화예술부문으로 선정, 속초시장상 및 부상 100만원을 수여 받았다.

### ■ 설악제기념 연극공연(뜨거운바다)

연극협회 속초지부(지부장 : 장규호)에서는 제29회 설악제 기념 연극공연으로 제일교포인 쪼가고데이 작 “뜨거운바다”를 10월8일부터 10일(3일간)까지 총5회 공연을 하였다. 연출 : 장규호, 범인 : 김귀선, 형사 : 최용재, 김준수, 형사부장 : 장규호의 배역진과 무대 : 김형관, 미술 : 박영근, 음향 : 남상진이 스텔을 맡았으며, 연 관람객은 400여명이였다.

### ■ 강원지역 문화예술인 대회

10월25일부터 26일(1박2일) 강릉 관광호텔에서 '94. 강원지역 문화예술인 대회가 강릉시 주최로 개최되었다. 예총속초지부에서는 속초지역 예술인 20명을 대동하고 본 행사에 참가 하였으며, 예총속초지부장(지부장 : 김영복)이 토론자로 참가, 지방문예발전의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하였다.

### ■ 제10회 회원서예전

속초시 서예교육연구회(회장 : 박재호)에서는 10월29일부터 11월2일(5일간)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10회 회원서예전을 예총속초지부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회원 22명이 39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순수한 서예전의 의미를 부여, 시민의 많은 관심속에 전시회를 가졌다.

### ■ 제2회 설악아동연극제

예총속초지부(지부장 : 김영복)는 속초교육청과 연계하여 제2회 설악아동연극제를 11월 14일부터 18일(5일간)까지 오후2시, 7시(1일 2회공연) 지역 아동연극 발전을 도모코져 제2회 설악아동연극제를 개최하였다. 대회참가 학교는 물론 지역민, 학부모들의 지대한 호응 속에서 행사를 가졌으며, 학교별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2회 설악아동연극제 일정

일자	학교	작품명	지도교사
11월 14일	중앙국교	꾸러기들의 꿈동산	김영일
15일	양양국교	우리들의 꿈동산	홍선녀
16일	영랑국교	외박골 아이들	노연숙
17일	교동국교	애니	길애란
18일	속초국교	꾸러기들의 꿈동산	유순자

#### 제2회 설악아동연극제 시상내역

내역	수상자	시상자
최우수상	교동국교	속초시장상 (부상30만원)
지도교사상	교동국교 교사:길애란	속초교육장상 (부상10만원)
우수상	중앙국교	예총지부장상 (부상20만원)
장려상	속초국교	예총지부장상 (부상10만원)
연기상	중앙:한초록 양양:김남호 영랑:조성례 교동:온용근 속초:권형래	연극협회지부장상 (부상 각5만원)

### ■ 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장규호)

12월6일 서울신문사와 스포츠서울이 공동 주최하고 문학체육부 및 금성사가 후원하는 제10회 향토문화대상 현대문화부문상에 장규호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이 수상하였다.

수상 공적은 25년간 수십작품의 연극에 연기, 연출, 제작에 참가 영복지역 연극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청소년 연극사업을 활발히 전개, 지방 청소년 연극활성화 및 정서함양에도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상 구분은 전국에서 대상 1명 본상 6명으로 구분하여 시상되었다.

### ■ 1994년도(제8회) 예총 예술문화상 수상(김영복)

12월16일 한국예총에서 주최하는 제8회 예총예술상 공로상에 김영복 예총속초지부장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94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공적을 대상으로하는 본 예총 예술상에 지난 1년간 지역극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극단 초청, 설악아동연극제, 강원도청소년연극제 개최, 미술전시, 음악발표회, 문학지발간, 각종청소년사업등 20여 사업을 전개.

영복지역 문예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을 인정 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며, 예총회장 공로상 상패 및 은메달을 부상으로 수여 받았다.

### ■ 무의탁 노인돕기 사랑의 라이브공연

연예협회 속초지부 주부가요동우회(회장 : 박순아)는 11월6일 오후2시, 7시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무의탁노인돕기 사랑의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였다.

속초시 주부가요동우회 회원이 주요 출연

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음악은 연예협회 회원들이 맡았다. 이익금은 전액 속초시 무의탁 노인돕기에 쓰여질 예정이다.

### ■ 국립중앙극단 초청공연

예총속초지부(지부장 : 김영복)에서는 지역 간 문예격차 해소 및 시민의 문예충족욕구 해소의 일환으로 11월26일부터 27일(2일간) 까지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립중앙극장 초청공연을 가졌다. 공연작은 “맹진사백경사”로 ;94 한국명작무대, 국립극단 제159회 정기공연을 겸한 공연이였으며, 작 : 오영진, 연출 : 김상열, 주요출연진은 맹진사 : 권성진, 정상철, 이뿐이 : 권복순, 한희정, 특별출연 : 고설봉, 맹효원, 장민희 외 백성희, 이승옥, 오연수, 김재건 등이 출연하여 연 3회 공연을

하였으며, 스텔진을 포함 60여명되는 단원으로 시민으로써는 좀체 접하기 힘든 대작으로 지역민의 뜨거운 호응속에 공연하였다.

### ■ '94 송년 정기음악발표회

음악협회 속초지부(지부장 : 심연홍)주관으로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2월 10일 오후 6시30분에 '94 송년 정기음악발표회를 가졌다.

지역 음악인들의 연중 최대의 잔치로써 피아노 독주, 기타독주, 시립합창단 축하공연등 다양하고 격조높은 울조를 시민에게 선보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주요 출연진은 독창 : 이진우, 피아노독주 : 김희숙, 바이올린독주 : 김미주 등이었다.

국교저학년 산문 장원

## 운동회

고성군 인홍국교 3의1  
이연정

작년에 열린 운동회는 내 생애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이었다.

그전 나의 짹 상하와 나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트집을 잡아 싸우기도 했다. 한참 그렇게 지내다가 선생님께서 운동회를 한다는 말에 우리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섭섭한 마음 이었다. 상하는 우리반에서 운동을 제일 잘한다. 그런데 상하가 나하고 싸워서 우리편이 되어 주지 않을것 같았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상하가.

“요번에는 너희 편을 해줄께.”

하는 말에 나는 너무 기쁘고 운동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일이 지나자 드디어 운동회 날이 되었다. 우리 팀은 운동회날 한 번이라도 이겨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요번에 상하 때문에 이길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개인 달리기에서 상하는 1등을 했고 나도 1등을 했다. 출다리기 시간에는

“영차! 영차!”

모두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하여 이겼다.

축구 할때 우리여자 아이들은 소리를 질러 가면서 응원을 해서인지 요번 경기도 이겼다. 청백 계주 시간은 계주들이 잘 뽑혔다. 남자 계주는 이상하 여자 계주는 김다운이다. 우리팀은 지고 있었다. 그러자, 상하가 따라 잡았다. 그때 우리팀은 환호성을 막 질렀다.

상하가 들어오자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나도 덩달아 갔다. 상하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송 맺히었다.

그래서

“상하야, 있잖아. 내가 땀을 닦아 줄까?”

상하는

“괜찮아, 별것도 아닌데 뭐.”

하며 씨익 웃었다.

이일로 인해 상하와 나는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 아이들이 상하를 좋아하니까 매일 나를 약 올렸지만, 상하가 아이들 보고 그려지 말래서 그런 말을 별로 하지 않았다.

왠지 상하가 멋있게 보였다.

운동회를 계기로 상하와 나는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지금은 그 학교를 떠나 전학을 왔지만 나의 남자 친구 상하를 나는 상하를 잊을 수 없다.

국교저학년 산문 차상

## 운동회

청호국교 3의1  
이 삼 민

오늘은 운동회날 아침밥을 서둘러 먹고 기쁨에찬 마음으로 학교로 갔다. 학교에 이르르니 하늘에는 만국기가 펼려이고 있었다. 운동회가 시작되었다.

“청군이겨라.”

“백군이겨라.”

청군응원단과 백군응원단이 열심히 응원을 했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은 청군과 백군은 더욱 열심히 운동을 했다.

얼굴은 빨갛게 되어서 땀에 젖었다.

우리편이 지고 있었다. 마음이 언짢았다. 나

는 우리편을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목이터져라’ 열심히 응원을 하였다. 하지만 점수는 우리편이 뒤떨어지고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출다리기가 시작되었다. 호루라기소리가 들렸다. “시작” 나는 힘껏 출을 당겼다. 출다리기는 우리편이 이겼다.

“야호”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나는 우리편이 졌지만 정정당당히 한 우리편이 자랑스럽다. 운동회를 끝내고 집에가서 참 보람있었다고 생각되었다.

국교저학년 산문 차상

## 편지

조양국교 3의1  
최 지 애

나는 지금 송유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다.

오늘 내가 송유에게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싫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빌려주면 어떠냐!”하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도 말다툼이 계속되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

송유가 진선이하고 말다툼을 하여서 화가

났기 때문에 나에게 화를 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결심했다.

송유에게 미안하다며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쪽쪽하게 송유네 집으로 갔다. 그런데 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내몸은 떨려왔다.

미안하다고 말하는것이 쑥스럽기때문이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썼다.

며칠이 지나 답장이 왔다.

편지를 읽어보니 송유도 나와 같은 생각이 였다고 한다.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오늘부터는 송유와 친해졌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며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은 이 사회에는 싸움이란 없어질 것이다.

### 국교저학년 산문 차하

## 운동회

양양국교 2의4  
김한나

작년 운동회 날이었어요. 오늘이 운동회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무척 상쾌 했답니다. 하늘도 내 마음을 아시고, 제 기도를 들어 주셔서 맑고, 예쁜 햇님이 방긋 웃으며 떠 있었어요. 어머니께 “어머니, 오늘 운동회 날 인데 맛있는것 많이 싸오셔야 해요!” “알았으니까,어서 학교나 가”학교로 가니 교문 밖에는 벌써 목걸이 장사 아저씨, 꿀맛같은 솜사탕 장사 아저씨,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장사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와 있었어요. “아저씨, 이 목걸이 얼마예요?” “아줌마, 이 아이스크림 얼마예요?”하고 시끌벅적 했었지요. 저는 집에서 아빠가 엄마 몰래 주신 이천원중에서 500원을 가지고 제일 먼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답니다. 운동장에서는 선생님들과 오빠들이 하얀 줄을 긋고 계셨어요.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 “경아야.

우리 빨리 뛰어 가자.” 그래서 경아와 저는 막 뛰어갔어요. 저희들은 행진곡 소리에 맞추어 체조도 하고, 뒤로 돌아가서 의자에 앉아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바구니 터뜨리기 시간이 되었어요. “야, 바구니 터뜨리기 시간이다!” 선생님의 지시대로 줄을 맞추어 운동장 가운데에 토끼, 다람쥐로 편을 나누어, 총 소리에 맞추어 경기를 했는데, 잘 터지지가 않아서 아슬아슬 했답니다. 콩 주머니에 머리도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서로 먼저 터뜨릴려고 열심히 던졌어요. 저는 다람쥐팀이 먼저 터뜨린 합성이 들릴까 가슴이 조마조마 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 하다가 우리팀이 먼저 빵!하고 터졌어요. 야!하는 신나는 소리와 우리팀이 이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니들이 줄을 맞추어 서라고 해서 짜증스럽기도 하고, 싫었어요. 그러나 벌써 점심

시간이 되었다고 방송이 나와 엄마가 기다리시는 곳으로 가서 김밥도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학교정문 앞에서 팔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또 사먹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에 달리기를 했는데 등수에 들어서 상을 받았어요. 그때 상단 기분이 얼마나 기

뻤는지 모릅니다. 운동회하기전에 체육 대회를 했는데, 달리기를 잘 못하였거든요. 창피한 말이지만 끌찌에서 2등을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올 가을 운동회가 또 기다려 진답니다.

## 국교저학년 산문 차하

## 줄다리기

현북국교 3의1  
이 향 란

오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은 무얼 먼저 할까?’

생각하다가 밤 11시에 겨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육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갔다. 교문앞에 들어섰을 때 휘바람이 저절로 나왔다. 달리기, 피구, 씨름, 닭싸움을 하였다. 나는 청군이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호르륵.”

선생님의 호르라기에 맞춰서 나는 줄을 힘껏 당겼다. 청군쪽으로 조금씩 밀려왔다. 첫 판은 청팀이 이겼다. 나는

“야!”

하고 소리쳤다. 두번째판은 청군이 이길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도리어 우리 팀이 졌다. 백군은

“야!”

하고 소리쳤다. 나는 백군이 알미웠다.

이번엔 언니, 오빠들의 계주가 시작되었다. 나는

“청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

하고 크게 응원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청군이 이겼다.

선생님께서 호르라기를 부르셨다. 계주는 청군이 이겼지만 우리 청군은 70이었고 백군은 80이었다. 선생님께서 상품을 주셨다. 나는 백군에게 쳐서 분하였다.

운동회를 마치고

“하,”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나는 상품을 받아서 흐뭇하였다. 지금이라도 엄마에게가서 자랑하고 싶었다.

집에와서 가족에게 상을 탔다고 자랑하였다. 할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셨다. 기분이 참 좋았다.

국교저학년 산문 차하

## 운동회

속초국교 3의1  
한인희

운동회 날 아침.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운동회의 만국기가 오늘따라 더 힘차게 날고 있었다. 개선문에는 첫 차례 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니 아빠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꼭 1등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1등을 못 할 것 같아 겁도 났지만 용기도 났다. 이제 3학년 달리기 차례이다. 개선문을 통해 썩썩하게 걸어 나갔다. 나는 아빠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선생님의 팽하는 총소리에 나는 열심히 달렸다. 그러나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기 때문에 끝지점에 있는 엄마 품에 안겨 울고 말았다. 엄만 2등도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시며 나를 달래셨다.

언니들과 동생들의 달리기가 끝난 뒤 드디어 즐거운 점심 시간이 돌아왔다. 1시간 후에 이곳으로 모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

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 곳엔 벌써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엄만 내가 힘들었겠다며 아기를 달래시듯 말씀하셨다.

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먼저온 아이들도 있었다. 그다음 5학년 언니들의 홀라후프로 춤추는 모습 2학년의 오재미 던지기 그리고 6학년의 춤 그리고 고적대의 연주를 하고 10분 휴식 그다음은 아슬아슬한 경기 줄다리기다 3학년의 줄다리기가 돌아왔다. 나는 이기기 위해 힘껏 줄을 당겼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당겼다. 우리 편이 이겼다. 그다음은 모든 선수들이 참여하는 계주다. 우리 반에선 예지라는 아이가 나갔다. 나의 달리기 경쟁상대이다 예지가 언제나 1등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2등을 하는 것이다. 경기가 시작됐다. 힘차게 달리는 우리 국민학교 학생이 자랑스럽게 보였다. 그런 마음보다 더 앞선 마음이 있었다. 나도 계주를 뛰고 싶은 마음이 선지였다. 이제 운동회는 끝났다. 우리 편이 이겼다.

국교고학년 산문 장원

## 편지

인구국교 6의1  
안진향

외삼촌의 소개로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게

되신 어머니께 편지가 오는 날이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별씨 편지가 와 있었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편지를 뜯어 보았다. 편지의 내용에는 동생과 내가 무척 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었다.

내가 편지를 한참 읽고 있을 때, 동생이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라는 동생의 말을 들으니 팬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어머니께 온 편지를 동생에게 차근차근 읽어 주었다. 어머니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읽는 순간 동생도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되었다. 어머니께서 일자리를 옮기시기 전에는 동생과 나를 차별하여 대하시는 느낌이었다.

내가 시험을 잘보면 잘했다는 말씀 한마디였고 동생이 시험을 잘보면 원하는 것을 사주시곤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 내가 부끄러웠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나는 참 못난이였어 어머니의 진정한 뜻도 모르고…’

갑자기 어머니께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또 어머니께 편지 한번 보내지 못한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께 편지를 자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속으로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편지를 앉은 채 어느새 잠이 들었다.

## 국교고학년 산문 차상

# 편지

설악국교 6의2  
조승희

따스한 햇빛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학교갈 준비를 하고 학교로 출발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청소를 하기 위해 맡은 구역으로 달려갔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슬픈 사연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 할머니는 어렸을 때 뜻하지 않은 결혼을 하셨다. 할머니 보다 스무 살 더 많은 할아버지와 결혼해 할머니는 우리아버지와 고모를 낳아놓고서 집

을 나가셨다. 어린 우리아버지와 고모를 나두고 집을 나가셔서 할아버지께서는 화가나 맨날 술로 나날을 지내셨다. 그러다가 큰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1년 2년이 지나고 할머니께서 연락을 해 우리아버지와 고모를 만났다. 우리아버지는 국민학교 때 공부를 참 잘하셨다고 하셨다. 그런데 할머니 때문에 국민학교 밖에 졸업 못했다며 할머니를 원망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우리집에 놀러 오셨는데 우리아버지께서 “엄마 때문에 난 인생 망쳤어”하고 울면서 말하자 할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할머니께서는 새할아버지를 얻어 고모 두분과 삼촌 두분을 낳았다. 이런 일로 우리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원망하시는 일이 더 많았다. 난 이런 슬픈 사연을 하늘에 계신 친 할아버지께 편지를 올렸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저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환생을 하셨다면 우리가족과는 언젠간 만나겠죠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다. 하루가 지났다. 어머니께서

“승희야 편지왔다.”

이러는 것이었다. 나는 누구의 편지인지 보려고 편지를 받아들고 내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뜯어보니, 할아버지의 답장이었다. 너무 깜짝놀라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승희야 그런일은 슬픈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쁜일이란다. 항상 가족끼리 웃고사는 것도 좋지만 과거가 있는 것도 행복이지”라고 말이다. ‘그 편지는 누가 보냈을까?’ 혼자 생각해 봐도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께서 보낸걸로 믿었다. 그래도 만약 다른 사람이 썼다면 누군지 나에게 이 편지를 써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한번이라도 만나 뵤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아니라면… 이런일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나 할머니께서 놀러 오셨다. 아버지는 반가운 얼굴로 할머니를 맞아 주셨다. 내가 그 편지를 할아버지께 드려 소원을 들어 주셨나보다. 놀이동산으로 가족끼리 소풍도가고 외식도 했다. 나는 너무 기쁜나머지 할머니와 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왜 안나는 듯이 크게 웃으셨다. 그런 할머니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다.

## 국교고학년 산문 차상

# 편지

속초국교 6의4  
김혜인

지금은 6월, 초여름의 하늘아래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다. 누구에게 쓸 것인가? 날 어떻게 소개 할 것인가? 그리고 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아일까? 난 편지를 써도 주로 모르는 사람에게 쓴다. 펜팔? 그런거다. 안산에 이사간 친구. 친척들. 그 외에는 모두 그런 식으로 쓰는거다. 오히려 그게 더욱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다. 그게 편해서 난 선택했을 것이고……. 지금부터 나를 소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써서 답장 받은 것과 얻은 친구

를 말이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쓴 계기를….

내가 이 일을 겪게 된 것은 서울에서 살 때 우리집은 잘 사는 편이었고 친구들도 많아 남부러울게 없었다. 난 그런 나에게는 이 일이 큰 충격이라 보겠다.

우리 옆반에는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 아이가 있었다. 소문에는 아버지도 잊고 어머니도 도망갔다는 한 마디로 고아. 나로선 경험도 아니 그런 아이들의 생각도 진지하게 해보지 않았던 낯설었던 날말. 하지만 그 사

전으로 인해 난 그 날말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그 아이에겐 여동생이 있었는데 7살도 채 안된 어린아이였다. 소년가장이란게 그 아이의 이름표나 다름 없었는데 부끄럽게도 난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피하기도 했다. 어느 날이었다. 옆반 선생님께서 오셔서 우리 선생님께 껏속 말을 하시고 나가셨다. 잠시 뒤 선생님께선 칠판에 ‘친구를 돋자’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무슨 일인지 모두 궁금해 했다. 입을 다무셨던 선생님도 입을 여셨다.

“옆반에 희철이가 병원에 입원 했단다. 연탄가스를 마셨다는 구나. 우리가 조그만 정성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도 회복할 테니 성금에 협조 바란다.”

하느님 이렇게 소리지르고 싶었다. 난 생각했다. 나의 잔인했던 행동들과 그 아이를 바라보던 시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 아이에게 고백 하는 거야.’ 하지만 내겐 그럴만한 용기가 없었다. 맞아! 편지다. 내 마음을 서슴없이 전할 수 있는 편지. 그 날 밤. 난 불을 켜고서 조용히 사각사각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내 행동을 용서해 달라든지 너에게 많은 걸 느꼈다고 말이다. 그 중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 친구가 되자는 그 말이었다. 이 편지를 곱게 접어서 옆반선생님께 전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회복이 되지 않아 그 편지를 보는 데 시간이 걸렸는지 답장은 한 달 후에 왔다. 열번은 더 읽어서인지 아직도 그 하나하나가 머리속에 떠 오른다.

“안녕? 네 편지 잘 받아 보았어. 다른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많이 받았지만 너는 좀 특별했어. 나를 동정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 그리고 네가 나보고 친구가 되자는 말 뜻밖이었어. 난 너와 친구가 되어도 해 줄께 없는데 넌 그걸 나에게 부탁하다니 나에겐 영광이야. 회원하면 널 다시 만나고 싶다. 안녕”

내용이 길진 않았지만 감동깊은 말들로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그 후에도 그 아이와 나는 편지도 주고받고 그 애 동생도 보살펴 주다가 무슨 일인지 운없게 속초로 이사오게 되었다.

그 때 그런 일로 난 펜팔이란걸 계속 썼다. 15번을 써서 친구가 된 아이들은 9명, 모두 착한 아이들이다. 이런 친구들을 알게 해 준 것도 희철이의 덕이다. 희철이가 보고 싶다. 그리고 이 고마운 희철이를 되새기며 편지의 고마움도 다시금 되새겨 본다.

「모든 아이들아! 너희들 모두 수줍음 없이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를 써봐. 친구도 생기고 많은 걸 알게 될꺼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편지란거~ 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취미로 쓸것이다. 영원히…

## 국교고학년 산문 차하

## 5학년때 운동회

중앙국교 6의4  
서 미 경

“잉잉~나 오늘 학교안가.”

“왜그러니? 오늘 운동회잖아.”

오늘 아침 나의 투정때문에 엄마께서는 한 바탕 땀을 흘리셨다.

평소에 다리가 좋지 못했던 나는 운동회날 만 되면 투정을 밥먹듯 부렸다.

하지만 엄마의 등살에 떠밀려 체육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때의 발걸음이 왜그리도 무거웠던지 1,000톤 10,000톤정도 되는것 같았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나는 어느새 학교의 교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운동회없는 학교를 꿈꾸며 아이들 곁으로 갔다.

운동장은 운동회를 즐기는 아이들이 반정도 자식을 찾는 부모님이 반정도로 혼잡했다.

‘우리 엄마는 운동회를 보려 오기도 싫으실 거야 말이 달리기도 출다리기도 아무것도 하지않으니 말이야.’

이런저런 생각속에서 친구들의 틈사이에 끼어 스텐드에 와 앉았다.

개선문을 통과해 경기가 시작되었다.

1학년 아이들이 귀엽게 달리기하는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했다.

여러경기가 숨막히게 진행될수록 나는 초조하기만 했다.

‘우리반 아이들이 달리기 하러가면 나는 뭘 하지?’

내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만 했다.

이런저런 생각속에 아이들이 온지도 모르고 먼곳을 보고있었다.

“미경아, 뭘그리 넋나간 사람처럼 보고 있니?”

아이들의 물음에 나는 그만 아무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 해 버렸다.

이제 남은것은 엄마를 찾는일 운동은 안했지만 밥은 먹어야만 했다.

내가 운동장을 두리번 거리고 있을때 엄마께서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주셨다.

나는 그만 엄마를 보고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엄마께서는

“미경아 다리가 나오면 운동회를 꼭 할 수 있을거야. 아직 너는 자랄 기간이 많이 남아있잖니?”

나는 엄마의 따뜻한 위로로 지겨운 운동회라는 이름을 부르지않게 되었다.

지금도 다리가 완전히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다.

나도 중학생이되면 즐거운 운동회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로 튼튼한 몸을 키우고 있다.

어느새 해는 노을로 변하고 나는 커다란 꿈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 국교고학년 산문 차하

## 선생님, 감사합니다.

양양국교 6의1  
김영미

“읽기 책 63쪽 읽어 볼 사람?”

발표 잘 하는 아이를 좋아 하시는 나의 5

학년 때 선생님이신 이은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발표 잘 하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손을 드는데 수줍음을 잘 타는 나는 손을 못 들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나는 전에도 선생님께 발표를 잘 하지 않는다고 충고를 몇 번 받았었다. 그런데도 손을 들지 않은 나를 보신 선생님께서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고는 다른 아이를 시키셨다.

이렇게 수줍음 많이 타는 나는 선생님께 충고를 받을 때마다 ‘발표를 잘 해야지’하고 마음 속으로 다짐 다짐 했지만 손 들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시간은 언제 흘렀는지 겨울 방학이 되었다.  
“내년에 볼 텐데 예쁜 이 여선생님 얼굴 좀 봐 둬라.”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바탕 웃음을 터뜨리고는 인사를 한 다음 집으로 왔다. 나는 그 때부터 방학이라고 놀기만 하였다.

그렇게 지내던 방학 어느 날 엄마께서  
“영미야, 편지왔다.”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뛰어 나갔다. 쓴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셨다. 나는 너무 반가워 빨리 뜯어 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영미에게

영미야, 이 추운 날에 잘 있었니?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잘 있지 못하단다. 계단에서 넘어져 그만 다리 뼈가 부러져서 목발을 집고 다닌단다. 하지만 반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단다.

영미야, 선생님 부탁 하나 들어 주겠니? 이제 부터는 영미도 손을 들고 발표를 해 보렴.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잘 해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란다.

그럼 잘 있거라.’

나는 이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였다. 참 반가웠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받고 나는 선생님께 이에 답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 한 가지 다짐도 하였다. 이제 부터는 선생님께서 물으시면 손도 잘 들고 발표도 잘 하는 아이가 되겠다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의 물음에 손도 잘 들고 발표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은진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은진 선생님을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 할 것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국교고학년 산문 차하

# 편지쓰는 것도 몰래 몰래

상평국교 4의1  
전 정

학교에 갔다오니 어머니께서 없으셨다. 아마 큰엄마댁에 가셨나보다.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어머니께서 없으

시니 내가 옛날 친구인 지희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서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있으셨다면 내가 쓴 편

지를 읽어 보셨을 것이다.

얼마 전이었다.

내가 3학년때 가르쳐 주시던 원태수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내 서랍속에 잘 간직해 두었는데 어머니와 내 동생이 서랍을 정리하다가 내가 쓴 편지를 읽어 보시더니 마구 웃으셨다.

내 동생도 어머니를 따라 같이 웃었다. 그것을 안 나는 밖으로 나갔다.

이제부터는 편지도 어머니 몰래 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속상했다.

거기에는 나에게 답장이 온 것도 다 읽어 보시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께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다.

여태까지 내가 쓴 편지와 나에게 온 답장이 온것을 어머니께서 읽지 않았을 때가 많았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를 피해서 편지를 썼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 감추는 것이 많았다. 친구와의 사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 공

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는 모든것을 감추었다.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놀때

“다 나때문이야 그리고 편지 때문이야”라고 크게 외쳤다. 그러니 내 친구 연정이가 “정아야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라고 말했다.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고는 시무룩하게 혼자서 놀았다. 터덜 터덜 집에 가니 어머니께서 저녁밥을 짖고 계셨다.

“어머니 저는 이제 4학년이예요. 그러니 저의 편지 같은것은 좀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부탁이예요”라고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정아야 엄마는 네가 친구를 잘 사귀고 있나? 친구와 싸우지는 않나? 를 보기위해서 편지를 보는데 네가 싫어한다니 이제는 편지를 보지 않을께”

하시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숨이 막힐것도 같고 달콤하기도한 엄마의 냄새를 맡으니 웬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 중등부 산문 장원

# 약 속

설 악 중 학 교  
이 영 석

즐거운 주말이 되었다. 일주일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삶의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다. 만약 내게 토·일요일이 없다면 난 아마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황금 주말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한 친구가

내게 제안을 했다.

“야, 시험도 끝나고 시간도 많은데 오늘 ○○에 놀러가자. 남승이, 길호, 인호, 태섭이다 모이니까 너도 참석해야돼.”

한참 생각 중이었던 난 너무나 갑자기 말

해 버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

“응, 좋아. 넌?”

(난 원래 뭔가 잘 모르거나 귀찮은 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곤 한다.)

“나도 당연히 가지. 나야 노는 거라면 ‘약방의 감초’ 아니냐.”

하더니

“오늘 1:30 ○○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늦지 말고 제때에 와야해.”

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응? 응.”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종이 치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막 교실로 뛰어갔다.

그때의 일은 대충이랬다. 너무나 빨리 그것도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였는지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

학교가 파한 후 난 여느때와 같이 민혁이랑 같이 집으로 갔다. 주말이라 거리엔 사람들도 많았고 차도 많았다. 난 내일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걸음도 가벼웠고 무척 즐거웠다.

그때 민혁이가

“영석아, 우리 오씨네 집에 가자.”

하고 말했다.

“뭐, 오락실?”

난 갑자기 오락실에 무척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때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오락을 조금만 하

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만 헤히 웅했다.

“좋지! 가자!”

우린 오락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오락을 했다. 그날따라 오락이 잘 되었고 재미도 있었다. 난 그저 오락에만 정신이 팔린채…….

그 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뻔하다. 친구들은 날 기다리다 못해 그들끼리 놀려 갔고 난 그 다음 날 친구들에게

“넌 입이 너무 가볍다.”

라는 악담을 들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신용은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바이어들이나 세일즈맨이나 상인들에게서나 신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회속의 내가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다.

혹시라도 누가 그때 그 약속 불이행 얘기만 꺼내기만 하면 난 으레

“그때 그 약속 지킬 수도 있었는데 오락실하고 민혁이가 괴여서……”

하고 평계를 대곤 한다. 이러는 것이 비겁하고 치사한 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말들이 뛰어 나온다.

어쨌든 약속을 어긴 사람은 나니까 잘못은 내게 있다. 하지만 오늘 난 내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한다. 그건 바로 나 자신 또는 타인과의 그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잘 지켜 질지는 모르지만 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달라질 내 모습이 기대된다.

## 중등부 산문 차상

# 신희와의 약속

속초여자중학교  
1의5 정지은

신희라는 친구가 있었다. 내겐 무척 소중한

친구였다. 5학년 때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늘

외롭고 쓸쓸한 듯 하면서도 늘 활발한듯, 명랑한듯 지낸 나의 친구, 신희.

5학년때 우리 반에 전학왔던 신희는 아버지와, 오빠, 새엄마와 헤어져 할머니와 삼촌네 집으로 오면서 우리 반에 오게 되었다. 할머니와 삼촌이 너무나 욕이 심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매로 다스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신희는 늘 슬퍼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명랑하게 행동하고 남자아이들과 싸웠었다.

6학년 맨 어떤 남자애와 너무 심하게 싸우다가 말리던 나에게 그 남자아이가 든 야구방망이로 치게 되었다. 핫김에 든 방망이가 뒤에서 말리던 내 머리에 맞은 것이었다. 순간적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자리에 주저앉고 그들의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공부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는 날보신 선생님께선 아이들에게 물어 그 싸운 이야기도 나게 되었고, 신희가 혼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때문에 신희가 다시 외톨이로 되어가는, 웬지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풍기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그날, 난 신희에게 다신 보지 못할 만한 우울한 분위기를 느꼈고, 그 애가 없어질 것 같은, 사라져 버릴것 같은 예감을 느껴 2004년 11월6일날에 다시 우리의 국민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신희가 어디에 있던지 그 약속만은 꼭 지키리라 믿으면서 다시 만날날을 기다리고, 만일 우리가 헤어진다면 그땐,

그 2004년엔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슬픔도 덜할 것이다.

그렇게 굳게 약속했던 내 친구. 그 친구는 그 약속을 뒤로 하고 졸업식전날 집을 나가고야 말았다. 겨우 나와 같은 중학교로 배정받았는데, 그애는 내곁에 없었다. 졸업후, 한번 그애의 집에 다녀왔었는데, 신희네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우시면서 연락오면 전해달라고 하셨다. 난 너무나 답답해서 곧 나오게 되었고, 신희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쁜 곳에 빠지지는 않는지, 저번에 깡패소굴에 불잡혔었는데 그들이 다시 데려간 것인지, 신희는 내게 많은 의문을 제기시켰다.

단지 나중에 큰 후에 다시 만난다는 그런 한 가지 소망만이 자리잡고 내 마음을 죄고 있었다.

지금도 가끔 개 소식을 물어보고 있다면 난 늘 신희를 다시 만나면 엉덩이를 차 주겠다고 말하곤 한다.

신희. 그는 나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나와 그애의 약속은 나의 꿈과 희망이 되어 버렸다. 비록 남들에겐 그애를 혼내겠다고 말하고 다니곤 하지만, 난 그 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리워 한다. 그리고 그 애의 약속, 그것 때문에 난 훌륭하게 되어 신희를 만나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품게 하였다.

그 약속은 나를 이끌고 나의 장래를 위한 반침이 되게 하였다.

## 중등부 산문 차하

# 지키지 못할 약속

현복중학교 2의1  
최 미 선

잔잔하고 푸른 물결이 흐르는 이 곳처럼 내 고장도 작은 어항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부 이셨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배를 갖기를 원하셨지만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의 배 사업 때문에 굽주려야 했던 기억으로 아버지의 생각에 반대를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틈틈히 시간이 나는 데로 나를 어깨에 태우고 부두를 걸으셨다.

당신의 어릴 적 이야기도 해주시고 노래도 함께 불렀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자주 다투셨다. 그럴때마다 어린 난 동생들을 데리고 자주 외삼촌댁으로 갔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족 보다 아버지 당신의 형제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셨다.

어느날 아버지와 다시 부두로 갔는데 예전과 달리 무척 자상한 표정을 지으시며 내 작은 손에 용돈을 쥐어 주셨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다투셨는데 아버지께서 화김에 약을 드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보통 약이려니 생각하고 모른척했다.

그러나 그 날 저녁 아버지께선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일

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위로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난 단 한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으로 돌아 오셨는데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조용히 나를 부르시고 말씀 하셨다.

“미선아. 아빠가 너 국민학교 졸업식날에 꽃다발 가지고 찾아 가마.”

국민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나와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기도 하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그땐 괜히 멀리고 부끄럽고 남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께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국민학교 졸업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보면 또 다시 울 것 같다.

하지만 난 늘 생각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곁에 있다고….

그리고 틀림없이 내 국민학교 졸업식날에 꽃다발을 한아름 가지고 오셨는데 나를 찾지 못해서 나에게 꽃다발을 주지 못하셨다고 난 믿고 싶다.

그리고 어디엔가 계실 아버지에게….

## 고등부 산문 장원

### 침묵의 약속

속초여자고등학교  
전 은 경

“미숙아!”

내가 이렇게 그 아이를 처음으로 불렀을 때, 미숙이는 내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었다.

중학교 3학년 학기초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나에게 언제나 4분단 구석진 자리에 조용하게 앉아있는 미숙이를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불러본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 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가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미숙이 곁에 다가가서 ‘미숙아!’하고 다시 불러보았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만 예쁘게 웃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첫만남은 시작되었다.

언제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이. 미숙이는 말을 할 수 없는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이다.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짜증도 냈었다. 왜 미숙이는 나와 정말 신나게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면서 신을 원망하기도 했었다. 나는 그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미숙이와 짹이 되겠다고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었다. 그 때의 나는 솔직히 말을 못하는 아이에 대한, 나와는 다른 친구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동정심이 컸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을 미숙이에게서 어쩌면 나는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우린 그 때부터 짹이 되었고, 정말 지금 까지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잘 지냈다. 미숙이는 처음에 내게 마음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었다. 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 책상에는 늘 연습장이 꺼내져 있었고, 나는 미숙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주절 주절 늘어놓았었다. 나만의 글로 가득했던 연습장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미숙이의 글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그 행복감이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미숙이와 내가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었다. 그건 언젠가 미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리와 침묵이 만나는 곳인 사랑, 바로 사랑이라는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미숙이와 약속을 한 것이 있었다. 그건 내가 수화를 배우는 것이었다.

“미숙아, 내가 수화를 배워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께. 그럼, 우린 이렇게 쓰지 않아도

손으로 말을 할 수 있는거야. 어때?”

이렇게 해서 나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미숙이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니 그것보다 미숙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내 다짐들을 실행하고 싶은 욕구에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나는 정말로 열심히 수화를 배웠다. 그리고 미숙이에게도 조금씩 가르쳐주었다. 그렇지만 손말보다 더 빠르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우리 둘 사이의 눈빛이었다. 그래서 내 첫번째 약속은 우리 둘다 모두 공감하면서 부터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고입이 다가왔다.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미숙이는 장애로 인해 그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졸업을 맞았다. 수많은 축하, 그리고 감사함이 오고가는 그 순간 나는 미숙이로 인해서 기분이 좋지 못하였다. 미숙이가 내게 주었던 곰인형, 아니 그것보다 더 이뻤던 그 미소가 나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했었다. 나의 뺨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뜨겁게 끌어안고 난 우리는 가슴과 가슴을 모아 약속을 했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더 큰 언어로 자리잡은 눈빛으로 서로 연락하고, 언제까지나 이 우정 변하지 말고 기억하자고.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한 내가 지금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그 약속을 잊은 채로 여기에 서있다. 고등학생이 되어 바쁘고, 공부해야 된다는 정말로 유치하기 짹이 없는 이유로 미숙이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약속이란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지금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 언제나 미숙이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내 자신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숙아.

내가 처음으로 너를 불렀을 때처럼 오늘은 내 가슴으로 너를 불러본다. 너와 했던 그 침묵의 약속을 잊지 않을께.

## 고등부 산문 차하

## 약 속

속초여자고등학교  
2의 1 김 주연

“주연아! 재 봐.”

“어머, 얼굴은 저게 뭐야?”

횡단보도 맞은 편에 선 그 아이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피하는 듯 했다. 신호가 빨리 바뀌기 만을 바라는지 차 신호등과 사람 신호등에만 분주하게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양쪽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고서 있느라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땀을 닦지도 못하고 그저 얼굴을 어깨에 가져다 비볐다. 마치 우리의 조용한 수군거림을 듣기라도 한 듯이 불편한 몸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금방 넘어져 버릴 것 같아 보였다. 그런 보기 싫은 모습에 흥한 화상은 우리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했다. 아까부터 계속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서 우리를 무섭게 쏘아보는 어떤 여자 아이는 안중에 두지도 않고, 우리는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는 유치원 어린이처럼 그 아이의 흥한 모습을 신기한 듯이 구경하고 있었다. 우린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온통 그 아이에게만 신경을 쓸다가 옆에서 계시던 아저씨가 건너시는 것을 보고 뛰어 전졌다. 그 아이는 우리가 건너고 한참 후에야 흥하게 몸을 뒤풋거리며 전졌다. 도로를 반쯤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 돌아보니 그 아이와 목발이 도로 한 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신호등을 열심히 쳐다보기만 했지 신경은 온통 우리에게 쏠려 있었던 그 아이는 빨리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등은 빨간색이 되

어 버렸고 다 건너기를 기다려 주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차들 때문에, 그 아이는 놀라서 차도 한 가운데에 넘어져버린 것이다. 금새 사방에서 소란한 경적 소리가 울려 왔고 어느 차에선 아저씨의 무서운 애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이는 당황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곳을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썼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재촉의 소리에 목발을 한 쪽만 짚고 한 쪽은 연약해 보이는 여자아이의 어깨에 의지한 채 도로를 벗어나기에 바빴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까부터 쪽 그 아이 옆에서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던, 동생인 듯 싶은 그 여자 아이는 울상을 하고서 원망 섞인 눈빛을 우리에게 던졌다. 가까스로 도로를 다 건너서 숨을 돌리던 그 아이 옆에서 한쪽 목발을 들고 선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여자 아이의 얼굴을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상하게 구부러진 오른 쪽 다리를 마치 짐처럼 흉겹게 끌고 가던 그 아이의 뒷 모습을 난 아마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축 처진 오누이의 어깨에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들만의 외로움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화상을 당한 그 아이의 얼굴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지 그 흥한 얼굴 속에 짚이 스며들어 있는 슬픔과 외로움을 생각해 주지 못했던 나. 우리 사회엔 아직도 그 때의 내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아직도 장애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짙은 색안경이 씌워져 있다. 우

리의 그 어리석었던 행동이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드리워 놓았던 그 짙은 그림자를 이제는 걷어내야 할 차례이다. 그 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짊어지게 했던 소외와 외로움이라는 짐을 이젠 좀 덜어주어야겠다. 그들의 그런 육체적인 불행을 우리가 대신 해 줄 순 없겠지만 말이다. 그 아이가 차도에서 쓰러졌을 때 소란스럽게 경적을 눌러댔던 그 사람들과 그 아이를 그저 쳐다보기만 했지, 가서 일으켜 주는 봉사를 아꼈던 수 많은 사람들.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들과 내가 아닌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는 이제 한가지 중요한 약속을 할 때이다. 그것 역시 너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약속이어야만 한다. 그건 바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색안경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그 때 그 아이의 오른 쪽 다리가 되고, 우리 앞 집 아저씨의 눈이 되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날엔 그 오누이의 마음 속에 짙게 드리워 놓았던 그 어두운 슬픔은 벗겨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이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장애인들의 어깨가 가벼워 질 수 있을 텐데….

국교저학년 시 장원

## 신 호 등

속초국민학교  
2의1 김 정 대

빨강, 노랑, 녹색  
찻길의 교통 순경

노랑 아저씨  
얼굴 보이면  
잠깐 기다리고요

빨강 아저씨  
얼굴 붉히면  
아이, 무서워

녹색 아저씨  
얼굴 환해지면  
발걸음 가볍게  
어서 가지요.

국교저학년 시 차상

## 대 청 소

중앙국민학교  
2의4 김 이 슬

빗자루와 결례가  
춤을 추어요  
하나 둘 셋  
엉덩이를 흔들면  
결례들이  
앞으로 행진을 해요

빗자루가 샘이나서  
쓱싹 쓱싹  
콧노래 부르면  
어느새 교실은  
어여쁜 미인 되었어  
요.

국교저학년 시 차상

## 신 호 등

강현국민학교  
2의1 흥 은 비

여러 색깔 신호등

빨강신호등

“불이 났어요.”

걸어가면 위험해요

노랑 신호등

꽃들이 피어 있어요

지나가면 꽃들이 죽

어요

초록 신호등

푸른 나뭇잎이 손 흔

들어요

학교가는 길로 걸어

가요.

국교저학년 시 차하

## 대 청 소

고성군 인홍국교  
3의1 김 미 나

오늘은

대청소를 하는 날  
나는 쓱싹쓱싹  
유리를 닦고

아빠는 망가진 물건을  
쿵쿵쾅쾅 고치시는데  
내 동생은  
여기저기  
장난감을 널어놓기만 하지요

개구장이 동생이  
여기저기  
널어놓은 장난감 베고  
스르르 잡이들면  
나는  
또 청소를 시작하지요

대청소 끝나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하품하다  
동생 옆에서  
스르르 잡이들지요.

국교저학년 시 차하

## 신호등

속초국민학교  
2의2 박 준 수

슬쩍슬쩍  
지나가는 차들  
신호등이 불잡아요

살금 살금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이 불잡아요

깜빡깜빡  
움직이는 신호등은  
질서잡는 아저씨.

국교저학년 시 차하

## 신 호 등

회룡국민학교  
3의1 추 지 은

신호등 신호등  
발강, 주황, 초록  
얼굴자랑 해요

빨간색은 자기가  
장미꽃처럼 예쁘다고  
자랑해요

그런데 주황색과 초록색은  
얼굴에 자신이 없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주황색과 초록색이  
좋다고 하자

빨간색은 얼굴자랑 한 것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더 새빨개졌어요.

국교고학년 시 장원

## 대 청 소

중앙국민학교  
6의3 한 초 록

침대 밀도

“쓱”

책상 위도

“쓱”

먼지와

결례들의

전쟁

노랗게 바랜

커튼도

“쓱”

김치물 화장을 한

식탁보도

“쓱”

모두 세탁기의 뜸

드디어

엄마의

잔소리는

그치고

먼지들은

결례에게

백기를 들었네

온세상은

“반짝, 반짝.”

국교고학년 시 장원

## 대 청 소

청호국민학교  
6의2 김정화

오늘은  
우리집 목욕하는 날  
잠들었던  
청소 기구들이  
활동하는  
대청소 날

각기 재능을  
발휘하려고  
주인들 손에  
쥐어들면서  
대청소 시작  
아빠는 남자답게  
무거운 이불의  
마음의 먼지를  
털어 주시고

엄마는  
인간 세탁기되어

스트레스 풀으시고  
언니는  
부엌에 들어가  
앞치마 둘러  
더러워진 그릇들의 얼굴  
세수 시켜 주고

나는 우리방  
미운 마음을  
모두모두  
떨쳐서  
쓸어버리는  
오늘은 대청소 날

엄마의  
속상했던 마음  
해소 시켜주고

밝은 마음 심어주는  
대청소의 날.

국교고학년 시 차상

## 신 호 등

강현국민학교  
4의1 홍승대

“전너면, 큰일납니다.

빨간색 불이

걱정 스러운 표정으로

알려요”

“안전 합니다 전너세요.”

초록색 불이

밝은 표정으로

알려요

빨간색 불은 언제나

우릴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 같고

초록색 불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같네.

국교고학년 시 차하

## 신 호 등

속초국민학교  
4의5 강 선 영

친구들과 전널때  
내눈이 예쁘다고 시끄럽게 떠들면

심술궂은 아저씨는  
빨간눈을 데굴데굴

내동생 철이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나와 다정스럽게 전널때는

맘씨좋은 아저씨는  
파란눈을 데굴데굴

엄마와 손을 잡고  
학용품 사러 갈때는

조심조심 하라고  
노란눈을 데굴데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릴 보호 하지요.

국교고학년 시 차상

## 대 청 소

설악국민학교  
6의1 정 일 곤

하기싫어 겨우 하는데

먼지는 우리를 놀리며

날아다니고

하기 싫어 얹지로 하는데

쓰레기는 쫑알쫑알 대며

뛰어 다니고

놀리는 먼지를

먼지 털이로

잡으면

쫑알쫑알 대며

뛰어다니던

쓰레기가

놀리고

해도 해도

끌이없는

대청소.

## 신 호 등

양양군 상평국교  
6의1 지 숙

‘왜 이리 파란 불이 안되지’  
엄마의 급한 심부름

이라갔다 저리갔다  
신호등이 고장났나?

그냥 갈까?  
차도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기다려 봐야지

드디어 파란불  
‘축우 살았다.’

## 중등부 시 장원

## 산

속초여자중학교  
2의5 양승희

산은  
자연의 숨소리 먹으며  
새와 함께 생활하는  
나무들을 볼 수 있는  
맑고 고운 행운을 가졌다  
  
산은 푸르른 하늘을 벗삼아  
계곡물 소리  
시원히 들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졌다

맑고 고운 행운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졌으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우리들을 넓은 포용력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산  
  
해님과 달님과  
항상 가까울 수 있는  
산은

하얀안개 친구되어  
세상의 온갖고뇌를  
내려다 본다  
  
한낮 꽃가지처럼  
금방 시들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늘 푸르름을 간직한 체  
내게 초록빛 꿈을 키워주는  
산

두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먼곳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듯한  
산 곁에 서면  
문득 내가 작아 보인다  
  
하지만 이젠 느낀다  
내가 대하기에  
결코 크지 않은  
그리고 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산은  
나의 좋은 친구라고….

중등부 시 차상

# 산

설악중학교  
2의5 박 대 육

푸르름과 싱싱함을 나타내는 산  
산에 오르면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둔  
모든 희망과 꿈들이 다시 꿈틀꿈틀 솟아 오른다

한 나라의 정기와 얼을 지닌 산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나라의 역사가  
눈에 비치는 듯하다

온갖 사람들이 오르는 산  
공해와 사리사욕에 찌든 속세와는 달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산  
산은 모든 인간들을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산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만물이 최고봉에 오른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

오랫동안 꿋꿋하게 말없이  
모든것을 바라보고 지켜온 산  
이런산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산은 언제나  
우리들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으로 믿는다.

중등부 시 차하

# 산

설악여중  
1의4 박 경 희

아침이슬 질때면	노오란 은행잎들이
빨갛게 떠오르는 태양아래	산을 만들고
살고있는 저기 저 산	겨울이면
봄이면	하얀 눈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산을 마무리 짓네
지저귀는 산새들이	저녁 노을 질때면
봄을 알리고	노랗게 떠오르는 달빛아래
여름이면	살고있는 저기 저 산
맑은 시냇물이	저기 저 산에
푸르른 나무들이	우리의 꿈을 실어
여름을 알리네	푸르른 산과
가을이면	벗하고 싶다.
울긋불긋 단풍들이	

고등부 시 장원

# 산

속초여자고등학교  
2의1 김지선

백색의 바다가 새벽이 오면  
산 허리로 내려앉는다

천상에  
흰 바다가 깔리고  
청명한 섬이 솟는 새벽

산은  
그 경이로운 찰라를 위해  
밤새 하늘가 연못에서 몸을 씻어내렸다

산은  
그렇게 새벽이면  
  
하늘 아래 세속과 인연을 끊은 채  
붉은 해를 맞으러간다

허나 산아 알아 주려느냐  
세속의 중생에게  
붉은 해의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천상에 올랐던 너 뿐임을.

## 고등부 시 차상

## 산부시

속초여자고등학교  
1의3 김 수 아

웅크린 몸뚱이 아래	어스름 새벽이 들자
고요한 야경이 있다	산은 꿈을 벗는다
커다란 그 가슴 아래	메마른
별빛이 깜빡 죽는다	골짜기틈새
산은	똑똑... 빛이 고인다
잠들고,	산이 불타는 아침
어느덧	빛덩이가 떠오른다
꿈속에 있다	태양, 바다부터 번져와
...	산을 태운다.
끌없는 바다 앞에서	산을 태운다!
철썩	매일 솟아 되는 산
눈인사 정겹다	결코 사그러지지 않는다
바다는 그에게	웅크린 그 몸뚱이 아래
이렇게 살라고 한다	터질듯한 가슴
터질듯한 가슴	그 가슴!
그 가슴!	
.....	

고등부 시 차하

## 1994년 무명산(無名山)

속초여자고등학교  
3의3 권 경희

청춘을 앓는 6월의 푸르름에서  
나를 산이라 부르기엔  
우린 너무나 늙고, 병들어 버렸다.

회색하늘 사이에  
어느새 숨을 놓았다

사람이라도 살아  
슬픔의 온정이라도 느꼈으면

난 홀로 외산이 되어 떠나온날 밤  
세차게 울었다

내 도태의 근처  
어둠이 서식하여 그전같은 맘을 불러갔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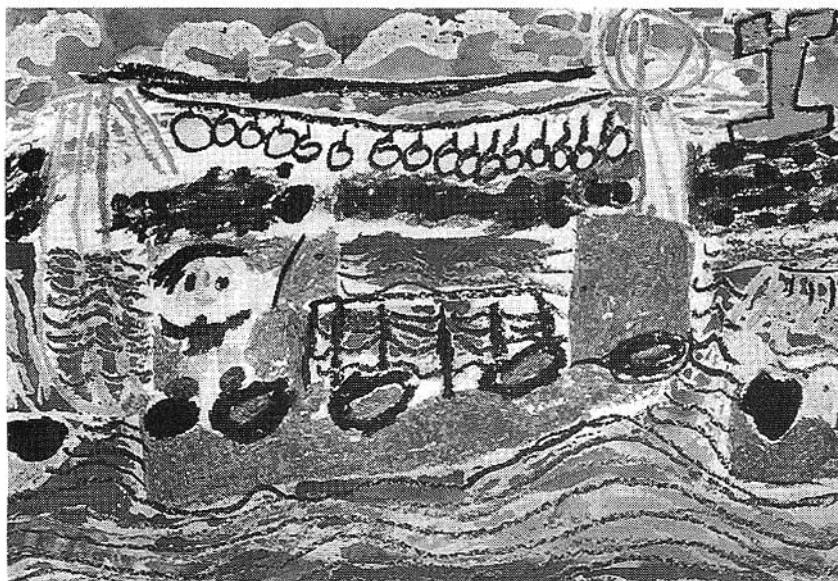
아픔의 계절을 아는 나무  
꽃과 함께 불구가 되어 나온  
그길에서

한땐 살만하여  
숨이라도 토해 냈건만…

오늘 나.  
회색인의 체형이 되어버려  
슬픔의 분노를 심어주고 싶다.

한끝으로라도 살아야 한다.

## 속초시 제5회 백일장 입선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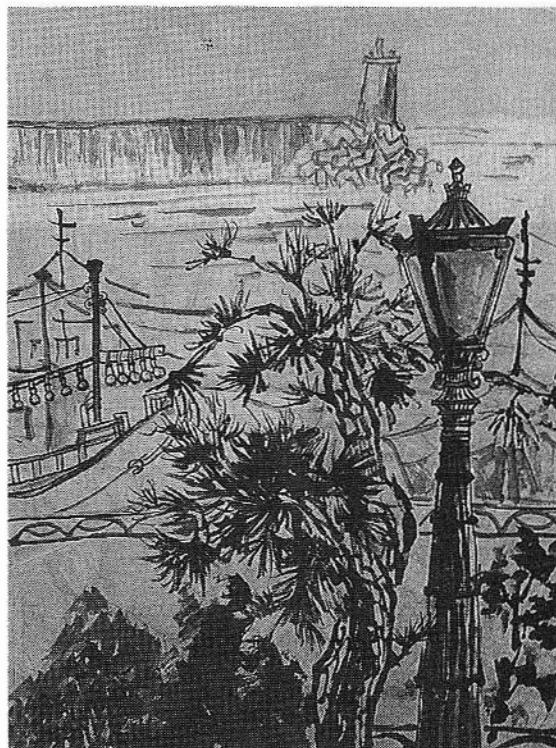
양양국교 1-4 윤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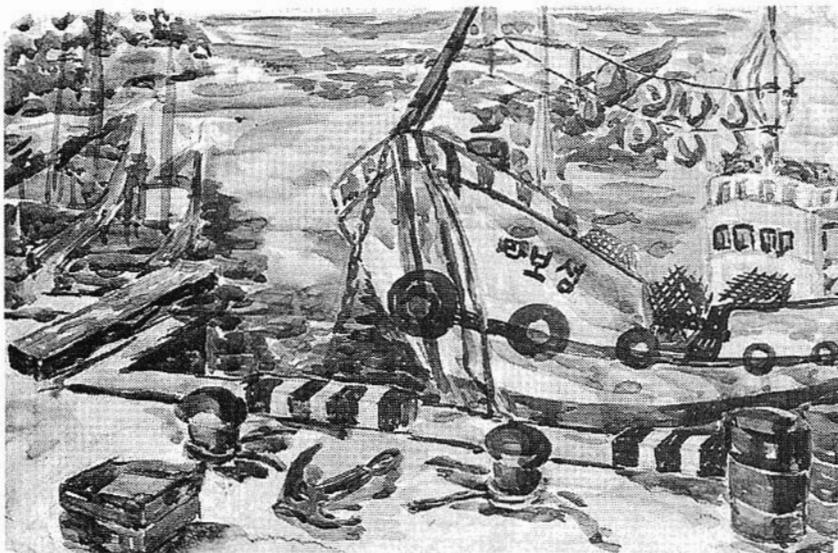
교동국교 4-3 정현희



중앙국교 6-5 김채영



현북중학교 3년 김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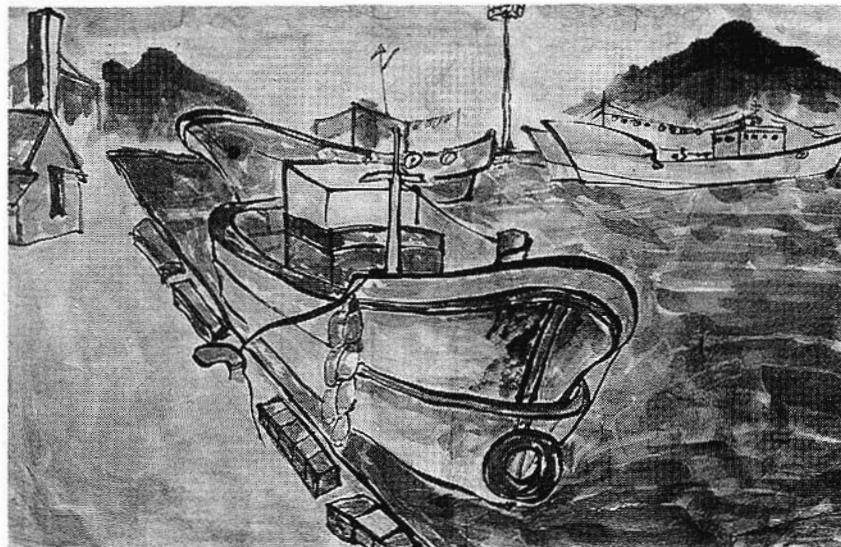
설악증 3-6 김보욱



속초여자고등학교 2-4 박주영

백일장 입선

---



속초여자고등학교 2-4 박윤경

# 束草가 좋아서



金 鎬 應  
束草文化院理事·事務局長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세번쯤 일어날 수 있는 운이 든다고 말하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제1군단에서 종군하시던 아버지 따라 53년봄에 속초에 정착. 군에서 제대하신 아버지는 1군단의 도움으로 10t급 명태잡이 어선을 진수했다. 그때 두부자가 새운이 들때 인지는 몰라도 출어하면 만선기를 끊고 귀항하는 날이 빈번했었다. 당시 시민의 대부분이 단칸방 판자집에서 살았다. 고기도 잘 잡고 해서 청학동 성황골에 자작으로 방 2개짜리 흙벽집을 짓고 매일 찾아오는 어대금이 부피가 많아 마대에 질 머지고 와서 군수용 빈 궤짝에 넣고는 다음 사업을 구상 하는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뭉치를 어떻게 써야하는 것이 생각의 전부였다. 그때는 노다지 경기가 늘 계속될줄만 알았다. 선박과 엔진, 어구의 감가상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불우이웃돕기등은 알지못했고 단지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오는 이웃에게는 차용중도 없이 있는대로 빌려 주어도 다음날에는 또 만선해 오니까 차용금 상환을 독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바보같은 인생을 살았다. 저녁때 만 되면 특수부대 대원들을 위문한다는 핑계로 그들과 어울려 청학동에서 주점이 있는 영랑동 거리를 헤매는 것이 유일한 낙이요. 즐거움이였었다. 다시 말해서 메뚜기가 겨울생각을 하지 않고 시원한 풀밭에서 노래만 부르는 꼴과 다름이 없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명태어군은 자취감추고 바다홍어가 몇년째 계속되다 보니 사채는 늘어나고 생계위협을 받게 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소규모 명태 덕장을 시작, 두번째 운이 들었는지, 생태를 사오면 명태 내장에서 명란이 많이 나와 명태값을 빼고 덕장에 전조한 명태는 몽땅 이익금이 되어 짹짤한 수지를 맞추게 되었다. 이때도 사업에 대한 머리가 없어 전에 몸에 밴 낭비벽이 되 살아나 모두들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있는 집까지 날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드디어 첫아들을 얻게되니 도적질외는 무슨 일이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서게된것이다. 직장은 얻을길 없고

밀천이 없어서 장사할 수도 없어 어선전조할 때 조력하던 경험을 살려 목수로 둔갑, 중앙 시장 상가의 진열대 제작하는 일 말아 목수행 세도 해보았다. 그것도 경험과 기술부족으로 목수로서 일거리가 얻기 어려워 도중하차 하는 봄이 되었다. 이때는 두부자가 어선을 운영할 때 어렵게 살던 분들이 거의가 열심히 저축한 보람으로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남을 사기친 일이 없어 미움을 사지않아 주위의 도움으로 교동사무소 서기로 취직된것이 사회에 첫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5·16후 경제기획원에서 공채가 있다하여 응시한 결과 행운으로 합격되어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통계조사 요원으로 영북지구에 파견근무하게 되었다. 시청이나 군청처럼 출근하는것이 아니고 집에서 통계조사업무를 처리했다. 주간엔 시간이 있어 업무연락 관계로 속초시 재향군인회에 임시 연락장소로 정하고 馬長乾향군회장, 徐在鴻부회장등과 어울려 전국에서 처음 불우이웃돕기운동과 농촌일손돕기운동을 벌여 향군회원들의 공감을 얻어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제야 사는 보람을 느끼게되어 가난한 이웃의 벗이되고 상담역이 되었다.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장경기대회를 열어 선풍적인 화제의 대상이 되었고 삶의 기쁨을 생전에 처음 실감하게 되었다. 이런점을 감안, 당시 金聖恩국방장관 초청으로 64년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나가게 되어 청와대까지가 대통령과 오찬을 하게 되었다. 당시朴대통령께서 불우이웃돕기와 농촌일손돕기, 무장경기대회 개최동기와 목적을 질문하시어 내가 구상한 사업이므로 척척답변하게되었다. 서울서 국방장관, 서울시장, 국회의장등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속초에 내려왔다. 향군 중앙회를 통해서 馬長乾회장에게 김호응을 청와대로 올려보내라는 전갈이 왔었다. 이때가 아마 세번째 운이 드는것인지 향군회원들이 모두 축하해 주면서 상경하라고 권고받았다. 나는 설악산이 좋고 동해바다가 낭만이 가득하고 아버지 산소가 東草에 있는데 출세하겠다고 아버지 곁을 떠나기 싫어 이제의를 묵살했었다.

東草가 좋아 높은 벼슬을 준다하여도 가기 싫고 이고장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열해 주저 앉는 바람에 세번째 행운을 놓쳐버린것이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언론계 재직하는 동안도 속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영세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어가유지책에 늘 신경을 썼고 지금 학생체육관 앞에 있던 한국화학사료공장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를 카메라에 활용하는데 성공한 것은 나혼자 생각하는 보람이지만 영생의 터전에 냄새 풍기는 공해공장의 진출을 저지하는데 있었으므로 영원히 속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것이 나의 소망이요 꿈이다.

# 束草文化院 創立總會



사단법인 속초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으로 '94. 8. 2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체되고 특별법인 속초문화원으로 창립. 새모습과 새진용으로 새출발하게 되었다. 공익사업을 주목표로 그 위상이 높아진 속초문화원은 임시총회에서 조상님들의 슬기와 용기를 이어 받아 전통문화 전승과 진흥, 보전사업에 가일층 분발할것을 다짐하고 모든업무는 사단법인 문화원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임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94. 10. 12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 東學思想과 教育



曹 太 星

- 成均館大學 同大學院
- 教育學科卒
- 哲學博士

## I. 序 論

東學은 1860年에 水雲 崔濟愚가 창교한 민족종교이다. 조선왕조 말기 국내·외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민생의 고난과 불안이 증대 되어가는 상황에서 創導된 것이 遷都이다.

東學思想은 灵魂政濟의 宗教的 思想을 초월하여 社會改革을 지향한 社會思想이다.

東學運動은 전통사회 内部의 모순인 조선왕조의 儒教的 지배체제의 말기적 현상에 저항하고 개혁이라는 움직임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近代化運動의 측면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本論文에서는 후천개벽사상과 동학의 교육사상에 관하여 고찰하려 한다.

## II. 後天開闢思想

개별이란 천지가 열려 사람과 만물이 처음으로 나온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천지의 시초나 만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재우의 역사개조 논리인 후천개벽사상은 그의 제자인 최시형과 손병후에 의해 신앙적으로 받아들여 지다가 이돈화에 이르러 더욱 철학적으로 심화 되었다.

이돈화는 1920년도에 잡지「開闢」을 만들어 동학사상을 민중에게 알리는 데 노력하였다. 특히 그가 「新人哲學」에서 최재우의 개벽사상을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 등 의 3대 개벽으로 체계화 시켰다.

후천개벽은 천지개벽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문화개벽을 뜻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 문화 전반의 일대 변혁과 새로운 창조의 교체를 뜻한 말이다. 이와같은 후천개벽의 역사관은 역사의 순화에 따른 천운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는

乃天思想의 체계화의 근본적인 의도는 새로운 종교로서의 天道教의 위치를 밝히고 천도교를 통해서 地上天國을 건설하는 새로운 信念이며 水雲이 말한대로 「今不聞古不聞」의思想이라고 말하고 있다.

후천은 新社會를 의미한 말이요 개벽은 文化的 改造를 의미한 것이니 후천개벽은 新社會 건설을 의미한 것이다.

水雲主義는 현대의 모든 文化를 혁신하기 위한 일종의 생활혁신 운동으로서의 宗敎이다.

天道教가 새로운 종교라는 것은 神과 사람의 결합이라는 인격적 神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現世의 생활과 문화를 개혁하여 地上에 새로운 社會를 건설하려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다.

「布德天下 經濟蒼生」은 地上天國을 의미하는 것이다.

地上天國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단계로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의 필요한 것이다.

### 1) 정신개벽

정신개벽이라 함은 사회질병설 중에 개인의·정신적 결함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성 정화운동으로서 정신질서 찾기 운동으로 민족정신 개조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 스스로 가설하여 놓은 神의 노예 靈의 노예, 物質의 노예, 權力의 노예, 金力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 인간의 본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노예적 정신은 依他思想과 事大思想을 낳게되어 결과적으로 봉건제급을 낳게 되어 관료의식을 조장시켜 천차만별의 계급과 차별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病的 精神狀態를 인간을 본위로 한 사람에 맞는 새로운 정신관념으로 바꾸어 事人如天精神에 입각한 새로운 論理와 道德을

수립하여 同歸一體의 새생활 이념으로 혁신하는 것이 곧 정신개벽인 것이다. 또한 개벽은 모든 개벽의 준비행위가 되는 것이다.

### 2) 민족개벽

「東國大全」에 “여기에 나서 여기에 얹었고 고로 동방부터 먼저 하나니라”하였으며 「龍漂遺詞」에서도 “내니라 무슨 운수로 그다지 기험할꼬 개같은 왜적놈이 전세임진 왔다가서 술싼일 못했다고 쇠사슬로 안먹는줄 세상 사람 뉘가 알꼬.”

왜적들이 임진왜란 때 공을 이루지 못했다 해서 쇠슬로 밥을 안먹고 재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였다. 한편 서양국가들이 극동의 후진국가들을 노리고 西勢東漸하는 것을 통탄하였다. 또 「東經大」에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보국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것인가”라고 하면서 중국과 한국은 입술과 이빨과 같으니 입술이 떨어지면 이빨이 차가울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여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였다. 그는 廣濟蒼生도 輔國安民이 된후라야 가능하다고 했다.

水雲은 한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길은 民族獨立과 자주의식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세계 공화의 단위로서 異民族의 침해를 받아서도 안되고 또 他民族을 침해해서도 안되는 것이며 각기 그 민족의 전통적 특수성을 상호 존중하고 상호 제휴함으로써 세계공화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弘益人間의 개국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人乃天의 민족혼을 이어받은 3·1 독립정신과 自主思想을 주축으로 民族主義意識을 확립하고 왜래문화를 포용소화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비로소 민족개벽을 이루었다 할 것이다.

### 3) 사회개벽

홍장화는 “다 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쓰고사는 집, 입고 있는 의복, 먹고사는 음식이 절대지도 천차만별인가 즉 이것이 사회적 질병이요 인간의 불평등인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제도의 모순으로 인하여 경제가 불균형한 데서 생긴 질병인 것이다. 한 국가 사회의 경제력이 균형을 잃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한 국가 안에 사는 民族으로서 정치적 기회균등 경제적 평등이 없이는 번영과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水雲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질병을 개벽하는 것이 사회개벽이니 누에치는 잠부가 비단옷을 입고 밭가는 농부가 쌀밥을 먹고 벽돌쌓는 노동자가 벽돌집을 가져야 합리적이며 천명과 천리에 合致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치하는 사람 바다에서 고기잡는 사람, 지하에서 광석캐는 사람등 모든 지역에서 자기 맡은바 직분을 천직으로 알고 국민개로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그 자유평등한 天國이 전설되는 것이다.

사회개벽은 개성의 정신 개벽과 함께 집단적 민족개벽이 있고 그리고 세계 개벽으로서의 일반사회개벽을 말하게 되는 데 社會開闢은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와 생활의 氣化 즉 생활이 상호부조로써 민족과 국가간의 침략, 정복, 갈등 등의 모든 행동을 지양하고 이상 사회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한것이다.

## III. 東學의 教育思想

모든 교육행위는 일정한 문화적 기반위에서 수행되는 인간활동이다. 교육의 정의적 기능, 목적이나 가치, 記述的內지 操作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教育의 기능면에서 국가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문화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있다.

한국의 교육이 한국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현상임에 틀림 없다면 오늘의 한국교육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교육학적인 측면의 과제인 것이다.

모든 사회가 사용하는 인간행위의 규제방법으로 법, 도덕, 종교의 세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아마도 문화의 교육적 기능 내지는 인간행위 국제기능의 가장 심충적인 원형은 도덕이나 법 보다는 종교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水雲은 「論學之」에서 “神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한물과 땅은 알아도 神은 모른다. 그 神 이라는 것도 나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내 마음이란 神의 마음이요 네 마음이란 水雲의 마음이다. 水雲은 人乃天主義에 입각하여 낡은 시대의 가치표를 버리고 새 시대의 가치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人乃天主義는 혁명정신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水雲은 「教訓歌」에서 “儒道, 佛道, 累千年에 運이 다했다.” 했으며 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를 반대하였다. 水雲은 創造時代에 교도에게 명첩(名帖)이라 하여 간단한 목적표시를 준 일이 있는데 그 첫머리네 “龍潭潤原劍岳布德”的 여덟자를 썼으나 용담은 수운이요. 검악은 해월이다.

끝에 대자 특서로 “輔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썼으니 보국은 민족개벽을 의미한 것 이요. 안민은 사회개벽을 의미하며 포덕천하 광제창성은 地上天國을 의미한다.

水雲은 自我에 눈뜬 지각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이념 이었으며 한울림을 잘 모시게되면 인간개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侍天王思想에 입각해 볼때 인간이란 신령하게 깨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요 관계의 존재이지만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

상사람들로 하여금 깨쳐 알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教育과 修養이 필요한 것이다.

崔海月은 한율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음이 종자의 生命이 종자속에 있음과 같은데 한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종자를 물속에 던져生命을 멸망케 함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는 자아각성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義庵은 心學에 근거하여 內有神靈 즉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범인은 내 성품을 내가 알지 못하며 내 마음을 내가 알지못하여 내 道를 내가 알지 못하여 마음을 쓰고 세상을 쓰는데 스스로 외도를 쓰며 악을 행하고 패도를 행하며 正義가 아닌것을 행치 않은 것이 없나니라 했다.” 또 “人乃天을 認하는 心이 그 주체의 位를 접하여 自心自挑하는 敎體”라 했다. “사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은 다만 자기 마음과 정성에 있는 것이요. 하늘과 스승의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 마음을 내가 깨달으면 몸이 곧 한율이요 마음이 곧 한율이라 깨닫지 못하면 세상은 세상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니라”하였다.

東學의 자아개념은 內有神靈뿐만 아니라 外有氣化 즉 관계의 존재, 大我, 우리의 뜻도 있다. 金容沃은 氣哲學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이 관계의 존제임을 주장한바 있다. 그는 나의 몸은 개별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몸이다. 자아와 세계가 이원적 책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였다. 東學의 內有神靈과 外有氣化는 이러한 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김범부는 ‘侍’를 侍者內有神靈 外有氣化라 하니 이 內는 ‘神의 内’인 동시에 ‘人의 内’이고 이 外는 ‘人의 外’인 동시에 곧 ‘神의 外’인 것이다. 즉 天主가 內인데 인간이 外이거나, 인간이 內인 天主가 外이거나 그런것이 아니라 我인 內가 곧 天의 内이며 天의 外가 곧

我的 外에 삼라한만상이 곧 天主의 氣化란 것이다. 그러므로 天主의 신령을 떠나라 我의 신령이 따로 있거나 천주의 氣化를 떠나서 我의 氣化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후인의 ‘人乃天’이란 것도 저간소식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自我의 世界가 二元的 主·客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自我와 世界가 二元的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은 東學의 인간관이 우리조상들이 생각하는 인간관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자아개념에 있어서도 小我만을 의미하지 않고 大我의 自我개념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東學의 인간존중에 대해 박종홍은 “천도심의 人乃天 사상에서 보다 더 어디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조하는 사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존중과 자아관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심어 주는 교육적 실천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가르치는 사태에서 인간존중의 의미는 또한 그 존중을 받는 상대방이 현재의 구심점을 발달시켜 나가는 도중에 있다는 사실이 첨가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학생에 대한 강렬한 애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존중인 것이다.

東學의 人乃天 思想도 사람이 한율이될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 人格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섬기기를 한율과 같이 하라고 했다. 이러한 事人如天의 정신은 자아개념의 형성과 인간성 상실의 회복을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사상이다.

자존감의 표현으로 崔海月은 “我心我敬 天赫說樂”이라 하였고 “孫義菴도 自心挑”이라 했다.

이러한 인간존중의 정신은 東學 指導者들이 講導에만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였다.

崔永雲은 女婢 두 사람을 해방시켰다.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고 한 사람은 수양딸로 삼았다는 사실은 어떤 학설로 인간 평등과 존엄을 주장한 것보다 생생한 無言의 教育인 것이다.

崔海月도 事人如天을 그대로 실천하여 어떠한 사람에게도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무리 젊은 道人이라도 정녕히 인사를 하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존경해서 말하고 항상 온화한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였다 한다.

그의 事人如天에 관한 범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께 효도를 극진히 하고 사방님께 극진히 공경하며 내 자식과 며느리를 극진히 사랑하며 하인을 내자식 같이 아껴라.

○어린 자식 치지말고 울리지 말라 아이 치는 것은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다.

○도가(道家)에 손님이 이시거든 한울님께서 강림한 것으로 생각하라.

○부부가 화목하는 것은 우리 道의 중심이 되는 것이니 아내가 불순하거든 정성을 다해 절을 하라 한번 절하고 두번 절하고 자꾸 절하게 되면 아무리 완쾌한 부인도 화할 수 있나니라.

崔海月은 敬天, 敬人, 敬物의 三敬思想을 고취하였다. 예로부터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마다 인정하지만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공경치 않으면 참된 敬人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하느님을 공경하면서 물건을 공경치 않으면 또한 敬天과 敬物이 될 수 없는 것이니 敬天, 敬人, 敬物을 빠짐없이 병행함으로써 三敬思想의 성격이 발휘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인간존중의 교육에 큰 시사를 주는 卓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간존중의 전통은 갑오혁명 당시에 홍종

식 집주는 “이때에 있어서 제일 인심을 끈 것은 주의나 목적보다는 또는 造化나 장래의 영광보다는 당장의 실익 그것이었습니다.

첫째 人道만 하면 事人如天의 주의하에 상하 귀천 남녀 존비할 것 없이 꼭꼭 맞절을 하고 경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심열 성복이 되었고 둘째 죽이고 밥이고 아침 저녁이고 道人이면서도 도와주고 서로 모두 집안 식구같이 일심 단결이 되었습니다. 그때야 말로 참말 天國 天民들이 이었지요” 통해서 인간존중의 면을 짐작할 수 있다.

東學의 教育思想의 다른 특징으로 自律的人格形成을 돋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水雲의 「敎訓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하염없는 이것들아 날로 믿고 그러하나 나는 도시 믿지말고 한울님만 믿었어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 말가”는 傳天主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教祖만 믿지 말고 자신이 각각 한울님을 모신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자율적 인격형성을 중시하는 교육관이 되는 것이다.

자율적 인격형성의 교육적 견해를 羞義菴은 마음으로써 스승을 삼아(以心爲師)내 한울을 내가 깨닫는다(自天自覺)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義菴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道가 있으니 그 천연한 마음을 지키고 그 천연의 기운을 바르게 하여 넓게 지식을 배우고 행하는 道를 배푸름에 경위를 잊지 않는 것이다”했다. 여기서 義菴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천연의 기운을 바르게 하는 자율적 인격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東學의 人格形成의 教育方法으로서 心告法을 이용하였다. 心告法은 한울님을 가까이 모시는 방법이다. 心告은 告天의 뜻으로 밥을 먹을 때, 잠잘 때, 깔 때, 출입할 때 마음으로 告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 기도에 속하는 것으로써 자기 兩心과의 대화이며 이것은 자율적 인격형성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IV. 結 論

동학의 후천개벽은 천도교를 통해서 地上天國을 건설하자는 信念이다. 후천은 新化會를 意味하며 개벽은 文化的 改造를 뜻한다.

地上天國의 이상은 정신개벽, 민족개벽, 정신개벽을 내 새우고 있다. 그는 보국은 민족개벽을 의미한 것이요 안민은 사회개벽을 의

미하고 布德天下 廣濟蒼生은 地上天國을 의미한다.

東學의 人格形成의 教育方法인 心告法은 自律的 人格形成에 좋은 方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萬民의 人格을 존중하는 평등사회 건설이념은 時代的 道德을 초월한 사명감을 고취했음을 알 수 있다.

## ▣ 한장의 귀한 옛사진을 찾습니다 ▣

本文化院에서는 문화은행에 보존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옛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문화원 사무국(☎32-1231)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자료의 종류

※문헌자료 : 향토사, 지명, 인물등에 관한 기록등

※사진자료 : 속초의 옛풍물, 인물, 옛구조물등을 찍은 사진

※음향자료 : 강연, 연설, 기타 주요인사의 육성을 담은 녹음등

### 2. 수집기간 : 제한없이 받음.

《표지화》



金光秀

- 함흥사범, 평양 미대 회화과 졸
- 개인전5회(서울 덕수, 잠실 롯데미술관 외)
- 일본아세아 현대미전 초대참가(한국대표 단장·83)
- 한국미협전 출품(1984~1987국립 현대미술관)
- 함남도전, 한국현대미술 신기획회전 출품(세종문화회관)
- 강원초대작가전 원우회전 출품.
- 속초시 문화상 수상  
(현)강원도전 초대작가, 현대미술 신기회, 원우회 회원.
- 근무처 : ☎32-8322
- 주 소 : 속초시 교동 로얄1차APT B동 409호 ☎635-5853.

## 편집위원

주	간	이	기	을
위	원	박	익	훈
		이	성	선
		지	응	준
		김	광	수
		오	세	하
		최	낙	민
		정	영	래
		최	현	식
		윤	의	구
		주	상	훈
간	사	김	호	용

## 束草文化 제10호(비매품)

인쇄 : 1994. 12. 1

발생 : 1994. 12. 15

발행인 : 崔 龍 文

발행처 : 束 草 文 化 院

인쇄처 : 江 原 日 報 社 出 版 國

이 책은 강원도 문예진흥기금의 도움을 받아 발행하였습니다.





# 늘푸른 통장

늘푸른 환경은



우리의 꿈입니다

마고 푸른 이 강산,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개과 함께 농협이 환경을 지켜가겠습니다.

‘늘푸른 통장’  
그 작은 실천의 하나입니다.

마음은 농촌 저축은 농협  
**농협중앙회**

지부장 최동순

속초시지부 ☎ 31-7063~4

《기쁨두배 축협》

축산진흥사업에 이바지 하는

속초 축산업 협동 조합



속초시 조양동(조양동사무소 앞)에 새로 신축한  
속초축협 새청사

※상호금융 안내

- |              |           |           |
|--------------|-----------|-----------|
| • 보통예탁금      | • 자립예탁금   | • 자유저축예탁금 |
| • 정기예탁금      | • 비과세 예탁금 | 종합통장      |
| • 정기 적금      | • 자유적립적금  | • 장학적금    |
| • 노후보장 연금 적금 |           | • 공과금 수납  |



속초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명호

☎(0392)31-6831~3,31-6834

FAX33-0952

신속·정확·신의·친절을 신조로 삼는

법무 서비스 창구인

## 조일호 법무사 사무소



### 법무사 趙 一 豪



- 춘천지방 법무사회 속초지부장
-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정위원
- 속초신용협동조합 이사

● 속초시 중앙동 468-6번지

☎ (0392) 33-0015  
          2814

祝 束草文化제10호發刊

## 조동룡 변호사사무소

속초시 청학동 482-9(전신전화국 앞)

☎(0392)635-<sup>2868</sup>  
<sup>2185</sup> ~ 6  
31-2882



변호사

趙 東 龍

속초의 명소, 영랑호반에 자리잡은

## 이화예식장



속초시 동명동 ☎(0392)31-3380~1  
(한일레저·영랑호 입구)

#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보장

## 신탁업무

### 수퍼가게신탁 수퍼적립신탁

고객 여러분께서  
맡기신 자금을  
안전하고 유리하게  
투자 운용하여  
높은 수익을  
배당해 드립니다.



## 상호부금

### 국민주택종합부금 내공장마련부금

장래에 달성하  
고자 계획한 목  
표나 예측하지  
못한 필요자금  
대출이 보다  
손쉽습니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보장 —————  
**개인연금신탁**

주가 1,000포인트 대 수익상품  
**공무주청약**  
**정기예금**



생활속의 꿈을 키우는 —————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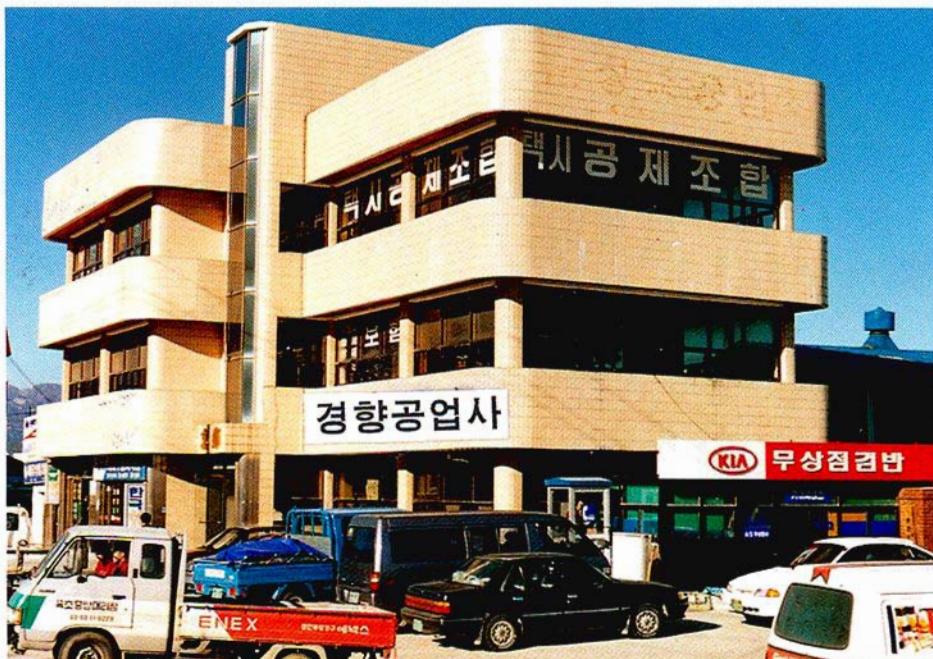
속초지점(☎33-3871)  
지점장 최종선

이고장 자동차 정비사업의 원조

## 1급 자동차 중기 정비 경향공업사

● 속초지구 자동차 출장 검사장 설치

● 출장검사일: 매주 5회(월·화·수·목·금)



- 견인차량: 대·중·소형 주야 대기
- 특수열처리도장 시설 완비



社長 金 麗 水

### 京鄉工業社

속초시 조양동 63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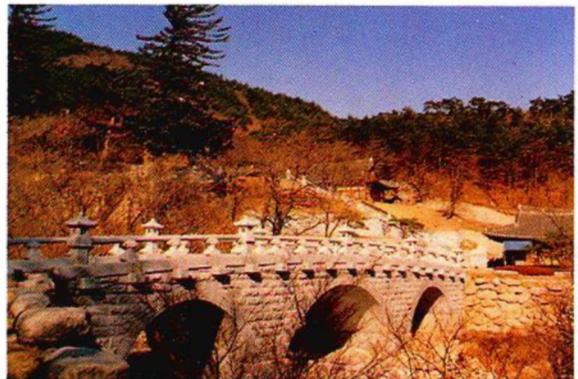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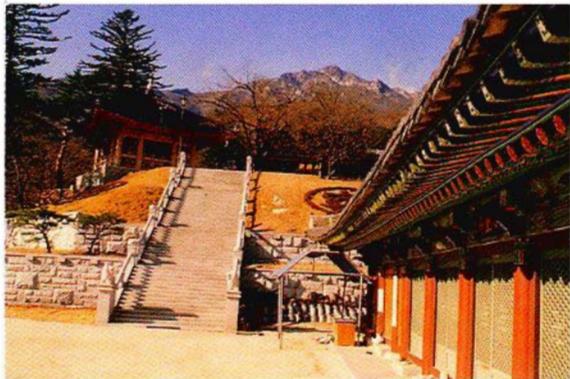
☎(0392)31-3829

33-2622·4574

FAX33-7368

##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말사

### 금강산 화암사



화암사(主사진)

금강산의 최남단 봉우리인 신성봉을 뒤로 하고  
동해를 굽어보는 1300년의 고찰 화암사는  
강원도 최고의 청정 기도 도량입니다.



### 화암사

주지 김문석 외 대중일동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0392)33-5827**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설악신용협동조합**



이사장

韓丙起



상무

강상호

속초시 동명동 466-56(시청 앞)  
☎(0392) 31-6008~9, 33-8008

## 신흥사 신용협동조합

황금보다 소중한 보배같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신흥사 신협을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흥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金雲植

(구명한의원장)

속초시 금호동  
한남빌딩 3층  
☎(0392) 635-4782



상무

鄭完時

# 祝·束草文化10호發刊

安寧하십니까?

영북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운전면허출장시험장 개설에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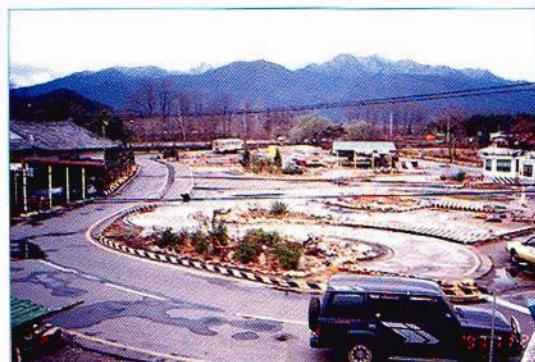
❖ 응시구비서류 : 응시원서(속초의료원, 인심의원  
고성·양양군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시험장소 :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속초자동차학원

❖ 문의및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 33-3333  
속초자동차학원 ☎ 635-3366, 3377, 3388, 3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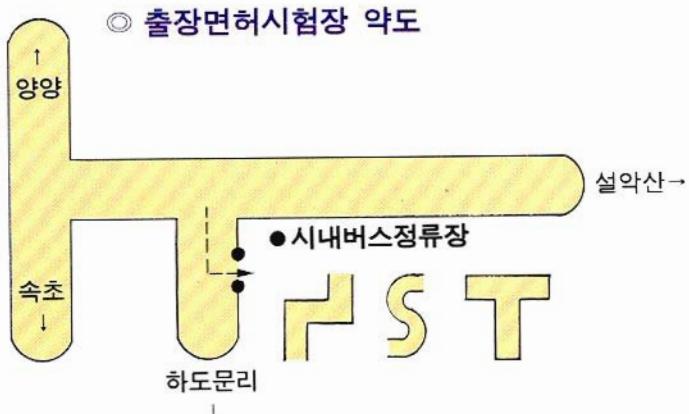


속초자동차학원 강의실



속초자동차학원 시험장

## ◎ 출장면허시험장 약도



## 속초자동차학원

학원장 金光洙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 雪嶽山新興寺



**新** 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하  
여 香城寺라 이름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22년(1644)에 靈瑞, 惠元, 蓮玉 세스님  
이 중건하여 新興寺라 개명하였다.

新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시루, 국  
락보전(指定文化財 14號), 경판(指定  
文化財 15號), 보제루(지정문화재 104

호) 및 香城寺址 三層石塔(寶物  
第443號)이 보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  
사 극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 경판 강원도지방유형  
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지정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제11호 신흥사(계  
조암·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등산문  
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 3존좌상외 9점

◎수행하는 도량 ◎포교하는 도량 ◎청정한 도량

**신흥사** 주지 송지홍 외 대중일동